

言語活動의 指示적 組織의 形式化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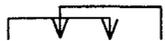
- 韓·佛語의 後置·前置詞의 例를 中心으로* -

朴 亨 達

(언어학과 교수)

‘언어활동(의문 - 대답)의 지시적(拒否적·同形化적) 조직’이란 의문(=Q)=형태(=F)와 대답(=R)=의미(=M)가 서로 얽혀서 전자(=근원적 형태)가 후자(=2근원적 형태)를 ‘거부’ 내지 ‘동형화’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이 ‘거부적조직’은 한정된 수의 짝 짜인, 동형적으로 분석 가능한 慣用句에 비유될 수 있으며(아래 註 1/2 참조) ‘최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Q(의문)는 ‘근원’, ‘동형화(변형)’ 및 ‘피동형화(생성)’를 포함하는 근원적 ‘관용구’이다; ‘근원’은 (괄호) 없는 “Q”로 표시되고, 동형화(변형)는 (괄호) 안에다 “(Q)”와 같이 표시하여 (괄호) 없는 “Q” 옆에다 “Q(Q)”와 같이 표시한다. 이것이 ‘근원적 짝’이다. 이 근원적 짝 “Q(Q)”의 ‘外部’로서의 ‘피동형화(생성)’는 外部를 표시하는 斜線(/)과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Q)Q”와 같이 표기한다. 이어서 內部적 짝도 外部적 짝 각각의 첫째와 둘째 項을 각각 逆方向의 화살 표시로 연결시킴으로써 “Q(Q)/(Q)Q”와 같은 그림을 얻는다. 여기서 右화살표시(→)는 ‘동형화(=거부)’, 즉 “₁Q(₁의문)”을 나타내고 左화살표시(←)는 ‘피동형화(=피거부)’ 즉 “₂Q(₂의문)”를 나타낸다. 이것은 (위 左/右화살표시로 연결된 ‘짝 단계’가 그 보다 이전의 內部/外部의 ‘짝 단계’에 비해서 ‘나중단계’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內部와 外部의 각각의 짝의 참된 성격 (또는 位置)을 들어내 준다. 위 그림표기의 內部項과 外部項은 각각 ‘同一性’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관용구’이므로 화살표시로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위 그림표기에 따라서 逆方向 화살표시로 연결시켜서 표기하면


“Q→(Q)/(Q)←Q”와 같이 된다.

* 이 논문은 1997년 6월 19일 Chambéry-Seyssel(프랑스)에서 개최된 제8차 國際心理·精神力學理論言語學大會 (8^{me} Colloque International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The 8th International Colloquium of Psychomechanics of Language)에서 발표된 논문을 옮긴 것이며, 拙稿(1995) : “指示의 力學的 組織에 관하여 - 助詞와 尊待法을 中心으로 -”(人文叢論 34 : pp. 111-156)의 續(=完)篇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이 단계에서의 ‘관용구’ Q(의문)는, 이 단계가 갖는 ‘변형(동형화)의 度’ 때문에, 두 개의 ‘근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동형화(거부)의 짝’ “Q→(Q)”라는 ‘₁근원’과 피동형화(피거부)의 짝 “(Q)←Q”라는 ‘₂근원’가 곧 그것이다.⁰⁾

2°) R(대답)은 ‘근원적 복합적 관용구’로서 Q(의문)와 마찬가지로 ‘근원’, ‘동형화(변형)’ 및 ‘피동형화(생성)’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는 *위에서 말한 ‘₁근원-₂근원’의 짝의 각각의 項을 다음과 같이 역방향의 화살표시로 밑에다 연결시켜서 표시한다.

$$\text{즉 : } \begin{array}{c} \text{“Q} \rightarrow \text{(Q) / (Q) } \leftarrow \text{Q”} \\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end{array}$$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위에서 말한 Q(의문) 단계에서와 같이 두 개의 ‘근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동형화(거부)의 짝’ “Q(Q)”에 해당하는 “QQ”라는 ‘₁근원’과 ‘피동형화(피거부)의 짝’ “(Q)Q”에 해당하는 “(Q)(Q)”라는 ‘₂근원’가 곧 그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위 “1°)” 단계에 비해 ‘₁근원/₂근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합성단계이므로 ‘동형화’의 짝 “Q(Q)”로서의 ‘₁근원’로써 대표된다.

3°) 끝으로 ‘언어활동의 지시적 조직’은 *위 “1°)=Q· 단순 관용구-2°)=R· 복합관용구’가 지닌 ‘연속적 同一性’에 비하여 ‘불연속적 非同一性’으로 특징지어지는 ‘합성=피동형화’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성격을 돋보이게 1°의 Q(의문)와 2°의 R(대답)을 합친 그림으로써 표기한다. 즉(‘변형의 度’가 非∅적· 구체적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화살표시의 양쪽에 모두 ‘화살’을 달고 ₁근원-₂근원’의 짝의 각각의 右項 (*위 그림에서의 Q)을 R(대답)으로 바꿔 쓰고 ‘동형화-피동형화’의 度는, ‘동형화’는 (괄호) 없는 “∅”도로, ‘피동형화’는 (괄호) 있는 “(∅)”도로, 이들 근원적 짝의 각각의 화살표시 위에다 표시한다.

$$\text{즉} \quad \begin{array}{c}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 \begin{array}{c} \text{“Q} \rightarrow \text{(R) / (Q) } \leftarrow \text{R”} \\ \begin{array}{c}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 \text{---} \quad \text{---} \quad \text{---} \\ \uparrow \quad \uparrow \quad \uparrow \end{array} \end{array} \end{array}$$

Q와 R은 각각 ‘언어활동의 근원적, 1理論’로서 그 각각은 ‘2理論’를 대표하는 너<Tu>와 나<Je>를 수반한다. ‘₁이론=근원’과 ‘₂이론=동형화(변형)’는 각각 ‘尊待의 同形적 조직’으로서의 ‘言語’를 수반하는데, 그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원-동형화’ 즉 ‘순수한 의문(Q)-대답(R)’으로서의 ‘먼저’ 단계(예컨대 ∅ 단계)와 ‘피동형화’, 즉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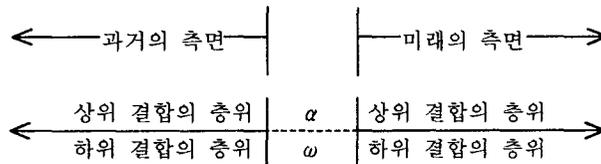
0) ‘기움’식 心理·精神力學論의 영향을 받은 結合적(=非同一적) 「慣用句」의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G. Moignet 1961, “L’Adverbe dans la locution verbale” in *Cahier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NO 5),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p. 1-36/H. Curat 1982, *La Locution Verbale en Français Modern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대적 의문(Q)-대답(R)으로서의 '나중' 단계(예컨대 2 \emptyset 단계)가 곧 그것이다.

'언어활동(의문-대답)의 최대의 지시적 (동형화적·거부적)조직 (mécanisme déictique <synaptisant·refusant>énonciatif <Q-R> maximal : *이하 略字 M.D.E.M.로 표기)'은 따라서 *뒤 그림 : "존대의 조직('순수한 의문-대답'과 '존대적 의문-대답')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中央에다 1Q(근원), 2Q(동형화) 및 R(피동형화)을 배치하고, 그 각각의 上部에다 (그 각각을 '근원'으로 잡은) '동형화(변형)'와 '피동형화(생성)'를, 下部에다 (上部의 '피동형화'를 '근원'으로 잡은) '동형화(변형)'와 '피동형화(생성)'를 각각 '동형화(변형)'의 度를 표시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Q(의문)-R(대답)', 즉 '너(Tu)-나(Je)'의 '동형적으로 최대로 팽창 조직'이다.

4°) '기욤'의 心理·精神力學論은 '근원적-형태적 力學性 cinétisme'을 주장하면서, 사실상으로는 "(物理적)心理性 제일주의 primat de psychisme"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기호론 sémiologie'을 "표현적 充足性 suffisance expressive"이란 이름으로 그에 종속시키고, "바라보는 개념 idée regardante"과 "결과적 개념 idée résultante"의 "일치 accord" 또는 "과거(α)-미래(ω)-현재(α/ω)", 또는 "단일위치 position-합성위치 composition"를 각각 후자에 우선권을 두고 연구하였다.1) 이로부터 "그것의 分析의

1) 이들은 모두 '형태'와 '의미' 사이의 '일치(=비 관용구)'라는 '기욤'식 '결합적' 관점을 반영한다. 그것은 이 일치는 언제나 物理적, 의미적, 可視적 테두리에 머물거나 - (여기서 心理性的 優位에 대한 '記号論'의 '표현적 充足性' 즉 恣意性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 '구체적 문장의 테두리에 머물거나' - 여기서 '바라보는 개념'(개연성, 확실성, 가능성 : il est probable, certain, possible)/'결과적 개념'(*위 "개념"의 종속문 : "그가 올 것이" qu' il viendra, vienn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 , 혹은 또 구체적 '현재'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현재'(="단일 위치"에서의 '분리 장치')를 수평선상의 中央에, 그 左/右에 '과거/미래'를 배치하고, 다시 이 '현재'를 '과거/미래'와 함께 上(=상위적 結合 incidence)/下(=하위적 結合 décadence)로 나누어 그 '현재'는 '복합위치'에서의 '분리장치'가 되는 佛語 直說法의 표기가 나오게 된다 - (Guillaume 1971,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 83, p. 105, p. 144, pp 195~196 등 참조). 즉(p.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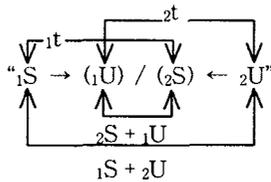
이 '결합적' 그림은 *뒤 p. 5의 "대각선 그림" 중 'S → U'식 그림과 연관지어 "橫대각선"으로 표기될 수 있다. (*주의 : '단일위치/복합위치'는 '橫대각선'의 경우에는 그 그림의 '上部/下部'에, '正대각선'의 경우에는 '동일성(≡/≡)/비동일성(≠/≠)'에 대응된다 ; " α/ω "는 '결합적'인 경우에는 "현재 <1나, 1S> 2현재 <2나, 2S>/과거 <1너, 1U> 미래 <2너, 2U>에, '동형적'인 경우에는 그 순서가 " ω/α "로 바뀌어서 과거 "<1너, 1U>, 미래 <2너, 2U>/1현재 <1나, 1S>, 2현재 <2나, 2S>"에 해당된다).

(이들 '결합적 비 관용구'의 그림들은 모두 '특수→일반' 또는 "나→너"라는 짝의 순환에 대

어려움” 또는 “그 크기의 비 동일성 *inégalité de sa largeur*”이 由來된다.²⁾ 다시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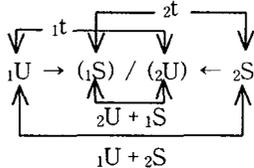
한 (自我<나>·어휘 중심적) ‘기욤’식 파악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짝의 각 項은 “나”(= $_1$ 나 및 $_2$ 나)라는 可視적·구체적 동일 實在에 주어진 ‘구체적 명칭(이름)’에 지나지 않는 ‘크립케’식 《이름→指稱體》라는 조직과 흡사한 ‘짝의 조직’이다(S. A. Kripke 1972/1996,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佛譯版 1982, *La Logique des noms propres*, Les Éd. de Minuit, Paris ; 韓譯版 1986, 「이름과 필연」, 서광사 참조).

즉 :



이 그림은 그것을 버리고 “일반→특수” 또는 “너→나”라는 짝의 순환에 대한 ‘근원적·동형적(너 <의문> 중심적)’ 파악을 나타내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때 그 짝의 각 項은 ‘理論’으로서의 ‘의문-대답’에 대응하는 ‘言語’로서의 ‘문법표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데리다’식 《筆跡 écriture》과 같다고 할 수 있다(J. Derrida 1967,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英譯版 1976, *Of Grammatolog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韓譯版 1997,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참조).

즉 :



이로부터 (너 <의문> 중심적) 근원·동형적 조직이란 결국 ‘관용구’로서 취해진 ‘존대-화법(=의문-대답)의 조직’, 즉 다시 말하면 (‘의문-대답’과 ‘존대’가 ‘융합’되어서 그대로 동사와 ‘결합’되는 비분석적이고 결합적인) ‘비 관용구적’ 조직으로부터(즉 그 조직을 버림으로써) 재구성된 조직에 다름 아니라고 결론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비 관용구적 조직을, ‘먼저’=순수 의문-대답(존대 霧)과 ‘나중’=존대적 의문-대답이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동형적 시간’으로 분석되는 관용구적 조직으로 환원시킴을 말하며, 또 한걸음 더 나가서 예컨대 ‘性-화법’이라는 조직을 ‘존대-화법’조직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볼 때, 性은 존대와 마찬가지로 인간(또는 사물)과 관계가 되지만 그대로 근원·동형적(너 <의문>중심적)조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는 ‘性’은 의문-대답에 없어서 안되는 요소가 아니고 차라리 ‘동사적 인칭’으로서의 ‘格’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합적 비관용구적 존대-화법 조직과 함께 ‘통일화된 존대-화법 조직으로’ 즉 명확히 구분되는 두 동형적 시간으로 분석되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즉 : ‘이론(일반 <인칭>음운론) → 일반형태론 → 내부 통사론 → 외부 통사론’.

- 2) 이 “어려움”은 “근원·동형적 관용구”로서의 ‘너 <의문>중심적 유형의 “U→S” 또는 “너→나”의 순환(적 짝)과 구별되는 결합적 비 관용구’로서의 自我<나>-어휘-중심적 유형의 “S→U” 또는 “나→너”의 순환(적 짝)이 곧 ‘기욤’식 파악임을 이해하기에 이르지 못한 데

서 心理·精神力學論적 분석의 原理는 ‘어휘·의미적 제한’속에, 즉 ‘自我(나) 중심’

기인한다(*위 註 1의 두 그림 참조).

이들 두 유형의 그림들의 차이를 들어내기 위하여 우선 ‘기움’식 (수평/수직적) 그림을 두 유형의 결합적 그림(正 대각선과 橫 대각선 그림)과 나란히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위 註 1/*아래 p. 7 참조 ; *주의 : 각각의 그림 “1/2”는 ‘동형적임을 주장하는 그림’/‘사실상 결합적 그림’에 해당한다. 이것이 곧 ‘기움’식 ‘심리·정신역학론’의 특징이다) :

<기움식 그림>

<결합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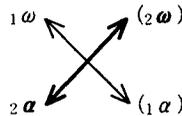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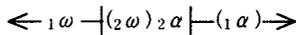
단일적 위치

正 대각선

橫 대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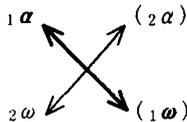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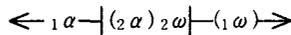
단일적 위치

1)



$$“1\omega \rightarrow (1\alpha) / (2\omega) \leftarrow 2\alph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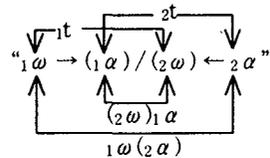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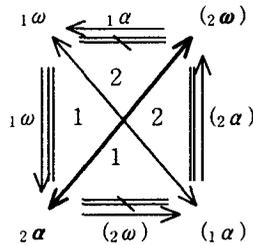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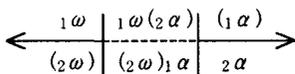


$$“1\alpha \rightarrow (1\omega) / (2\alpha) \leftarrow 2\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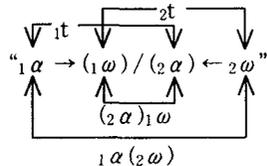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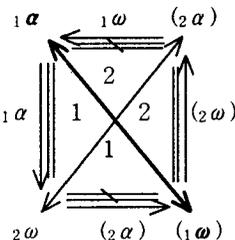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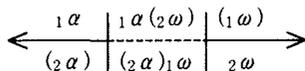
복합적 위치

복합적 위치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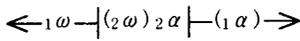


이들 결합적 그림으로부터 (즉 이들 그림을 버리고) 동형적 그림이 재구될 수 있다.

또는 ‘動詞중심’의 테두리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印歐語를 다룬 ‘소쉬르’ 이래 오늘날 까지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³⁾ 위에서 사용한 우리 식 그림으로 이것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주의 : “g” = 근원; “t” = 변형 또는 동형화; “e” = 생성 또는

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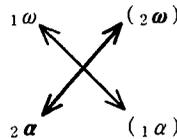
재구된 단일적
위치의 그림



<동형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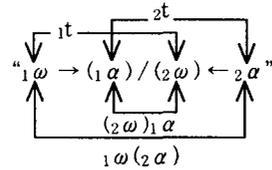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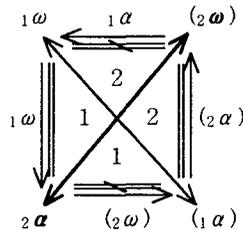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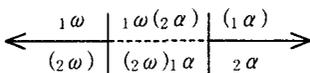
正 대각선

橫 대각선



“1ω → (1α) / (2ω) ← 2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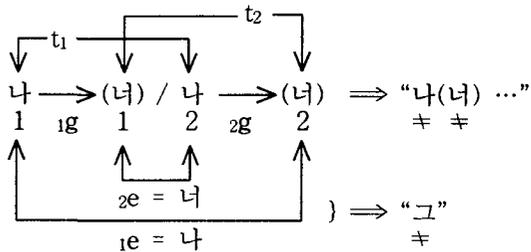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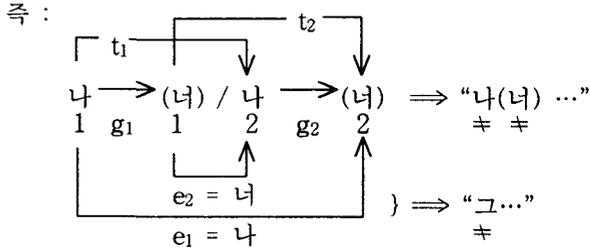
재구된 복합적
위치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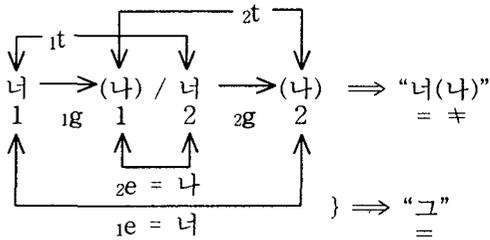
이로부터, 自我<나>, 어휘중심 유형의 순환(적 짝) 즉 “S → U,” “나 → 너,” “α → ω”의 한 項 : “S, 나, α”는 다른 項 : “나, 너, ω”와 마찬가지로 (可視적, 비분석적) 구체적 實在로서의 ‘비 동일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동형’과 ‘결합’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두 項 : α와 ω의 크기가 왜 다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순환론으로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 졌다(R. Valin, 1966, “D’une difficulté inherente à l’analyse du présent en français” in *Mélanges Gardette*, Strasbourg, Klincksiek, pp. 485-493 ; R. Martin, 1980, “psychomécanique et formalisation de la théorie linguistique” in *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P. 530 등 참조).

- 3) 예컨대 Kuno,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in *Linguistic Inquiry (Volume III, Number 2) Spring*, pp. 161~195 등 참조 : 여기서 그는 자기 모국어인 日語를 취급하면서 ‘심층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 : ‘심리동사’(sentir 느끼다, dégouter 싫다, 등) 또는 ‘수행동사’(promettre 약속하다, dire, 말하다)를 포함하는 “Il déplore qu’il ne puisse venir 그는 자기가 못 오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 “Il a dit qu’il a été malade 그는 자기가 아팠다고 말했다”와 같은 문장 즉 : “主節적 統合 + 從屬적 統合(= que 統合)”의 ‘共指示적 主語 代名詞’에다 ‘自我 중심적 나’를 설정한다 : *위 예들은 N. Ruwet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Éd. du Seuil, Paris, p. 179 등/J-C. Milner 1978, *De la syntaxe à l’interprétation*, Éd. du Seuil, p. 364 등에서 취했음.

피동형화; 각 기호의 右 및 左의 숫자표시 1/2, 화살표시(→→)/(→←), 비동일성/동일성(≠/=) 및 反復/非反復(…/·)은 ‘非力學/力學’의 구분 표시임).



위 두 그림에서 같은 “自我(나)-, 어휘-중심”의 파악이 서로 다르게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 둘은 모두 *아래의 ‘근원적·동형적(너-중심적)그림’에 비해서 ‘結合적 incidenciel’이고 ‘恣意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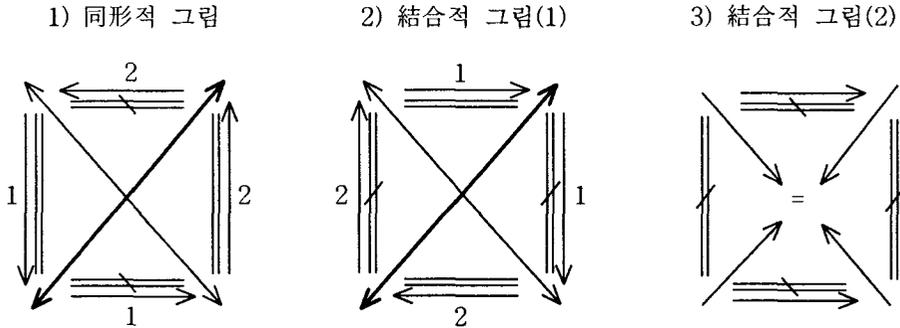


이들 그림(즉 橫對角線 그림)을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正對角線 그림’ 또는 그에 대응하는 ‘나무그림’으로 代置시켜서 알기 쉽게 표시하면,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파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4)

4) 이 점에 관해서는 M. Launay, 1976, “A propos du mot et de la phrase : Réflexions sur les rapports entre sémantique générative et grammaire systématique”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I V.1*, Strasbourg, pp. 327~370 참조 : 여기서는 ‘心理·精神力學論’과 ‘變形·生成文法’의 비교가 그들 둘의 참된 성격을 지적하지 않은 채 행하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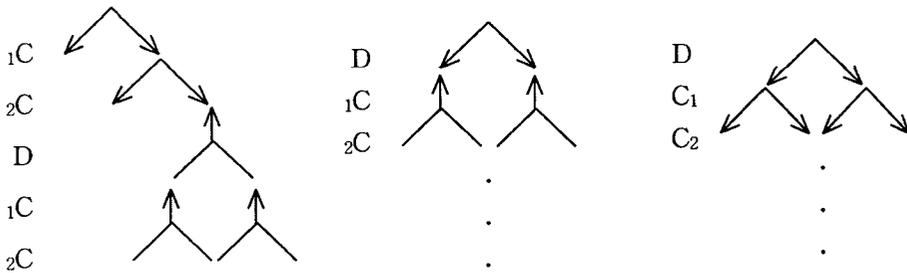
<대각선 표기>

(*주의 : *아래의 “結合적 그림(1)”은 *위(註 1)의 그림과 그 내용이 같음 ; “結合적 그림(2)”의 ‘結合의 순서’는恣意적이다) :



<나무그림 표기>⁵⁾

(*뒤 “同形적 理論의 그림/結合적 理論의 그림” 참조)



‘동형적 그림’에서 ‘근원’은 대각선의 左(\swarrow)/右(\searrow)의 화살표시에, ‘동형화(변형)’는 ‘수평적 비동일성 표시(\neq)’에, ‘피동형화(생성)’는 ‘수직적 동일성 표시(\equiv)’에, 각각 해당한다. 이것은 공식으로 “(單一적)근원 $\neq \rightarrow$ (변형 \neq)/생성 \equiv (근원 \neq) \leftarrow 변형 \equiv ”과

5) ‘결합’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둔 ‘나무그림 분석’에는 Chomsky와 Grünig/Clé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유형이 있는데(그것은 ‘동형적’ 관점에서 볼 때 可視적 구체 \leq 구체적 매듭 \geq 를 非可視적 추상 \leq 심층적 매듭 \geq 으로, 그와 逆으로 후자를 전자로 잡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결국 그것은 마찬가지로 관점이다 : ‘전자’는 매듭(X)과 그 구성요소(A \rightarrow B)를 ‘직접성분 분석적’으로 분석한다.

즉 : $\begin{matrix} & X & \\ & \swarrow \searrow & \\ A & & B \end{matrix}$: ‘후자’는 ‘기능적으로’ 분석한다. 즉 : $A = B$; 매듭(= X)이 ‘사실상’ 구체를 추상(= 심층)으로 취한 것인 이상,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적 순서’를 설정하건, 혹은 또 단순히

같이 표기할 수 있고 ‘左에서 右로(→)’ 읽는다, *앞 pp. 1~2 : 1°)의 공식 참조). 이 공식을 그와 逆方向으로 ‘右에서 左로(←)’ 읽으면 *위 공식의 ‘구체화’ 단계가 된다. 즉 ‘생성 II’은 ‘변형’으로 ‘(변형 ≡)’은 ‘생성’이 된다. ‘첫째의 공식’이 ‘理論(너-音韻論) 단계’라면 ‘둘째의 공식’은 그것의 ‘동형화(변형)단계(= 일반형태론 단계)’이다. 따라서 ‘구체화’ 단계로서의 ‘둘째 공식’에 따라 ‘동일성표시 II’를 ‘동형화(변형)(${}_1U/{}_2U$)’로, ‘비동일성 표시 ≡’를 ‘피동형화(생성)(${}_1S/{}_2S$)’로 잡으면, *위의 세 그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별 표시할 수 있다.

즉 : 1) “ ${}_1U \rightarrow ({}_1S)/({}_2U) \leftarrow {}_2S$ ”; 2)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 3) “ $S_1 \rightarrow (U_1)/S_2 \rightarrow (U_2)$ ”

따라서, ‘근원적·동형적 공식’의 ‘순서’는 ‘일반(U)’에서 ‘특수(S)’로 나아가는 순서이고, 반대로 ‘結合적 나(自我 ego) 중심의 두 개의 공식의 순서는 그 逆의 순서, 즉 ‘특수(S)에서 일반(U)’으로의 순서이다(기욤식 설명, 즉 “일반(U_1)에서 특수(S_1)로, 특수(S_2)에서 일반(U_2)으로”는 결국 “특수에서 일반으로”와 같은 내용을 그와 같이 표현 내지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⁶⁾ 이로부터 ‘力學적·동형적 그림’은 ‘자연스러운 力學性’을 지닌 반면 ‘결합적 그림’은 ‘恣意性’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다음 공식들을 (心理·精神力學論의 品詞理論에 사실상 해당하는 ‘기욤’의 공식 : “ $U_1 \rightarrow ({}_1S_2) \rightarrow U_2$ ”를 수정하여) ‘理論·근원(너-음운론)’의 ‘동형화(변형)’로서의 ‘일반형태론의 조직’(拙稿 : 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1996/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57-364등 참조)을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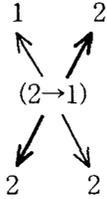
즉 : (1) “ ${}_1U-({}_1\emptyset) \rightarrow ({}_2S \leftarrow {}_1S)-({}_2\emptyset) \rightarrow {}_2U$ ”; (2) “ ${}_2U-({}_2\emptyset) \rightarrow ({}_1S \rightarrow {}_2S)-({}_1\emptyset) \rightarrow {}_1U$ ”;
(3) “ ${}_1U-({}_11)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_21) \rightarrow {}_2U$ ”.

이들 공식은 각각의 공식의 左/右의 中央에다 ‘동형화의 度’ (“ $\langle \emptyset \rangle$, $\langle {}_2\emptyset \rangle$, $\langle {}_11 \rangle$, $\langle {}_21 \rangle$ ”)를 표시한, 아래와 같은(*앞 “1°)/“2°”) 참조) ‘대각선’에 대응되는 공식이다(대각선의 네 모서리의 숫자 “1/2”는 “ ${}_1U/{}_2U$ ”에, 중앙의 (괄호)안의 숫자는 “ ${}_1S/{}_2S$ ”에, 그리고 左/右의 ‘굵고/가는’ 線의 구분 표기는 ‘변형의 度’에 해당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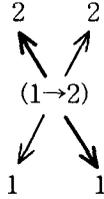
그 매듭의 ‘出現’으로 보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매듭과 非매듭 사이의 恣意적 연결을 나타낼 뿐이다(B-N. Grünig, 1981/1982, *Structure Sous-Jacente : Essais sur les Fondements Théoriques*, Honoré Champion, Paris, p. 3 등/“Démontrer des contraintes?” in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Théorie et méthodologie)*, Université Paris VIII, pp. 113~126 ; D. Clément, 1982, *Élaboration d'une Syntaxe de l'Allemand*, Verlag Peter Lang, p. 24 등 참조 ; 여기서 기능적 관점이란 음운을 “동시에 실현되는 유효·변별 자질의 총체”라고 정의하는 ‘마르띠네’식 음운의 정의와 비교될 수 있다. : A. Martinet, 1956,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Genève/ Paris, p. 40 등 참조).

6) *위 (p. 7) 세 그림의 “근원·동형적(너-중심적)”/“自我(나)-, 어휘-중심적” 구분을 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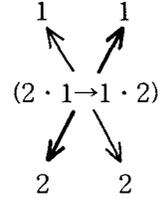
1°) ${}_1Q = {}_1$ 근원



2°) ${}_2Q = {}_2$ 근원



3°) $R = {}_3$ 근원



‘心理·精神力學論의 品詞論의 (結合적)理論’과 그에 대응하는 ‘同形理論’은 “C(연속)”/“D(불연속)” 표시를 사용해서 역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즉 :

내 부		외 부
내 부	외 부	
1° 2°	D	
1C 2C		

*주의 : ‘근원적 동형 이론’의 ‘내부’는 ‘문법적동형화-피동형화(Q-R)로서의 ‘근원적 관용구’ : ‘ ${}_1C-{}_2C$ ’로부터 시작한다. 그와 반대로 ‘결합이론’의 ‘내부’(=D)는 ‘實辭적非관용구(=R)’이다.

외 부	
내 부	외 부
1C	2C

同形이론

내부 = 외부		
내 부	외 부	
D	1°	2°
	1C	2C

結合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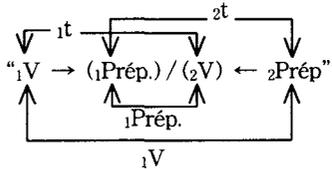
따라서 ‘일반형태론’(M.G. = Morphologie Générale)은 ‘언어활동의 지시적 조직’과 병행되게, 그 ‘中央’에다 ‘첫째로’ : *앞 “1°” 공식 = “ $Q(Q)/(Q)Q$ ”에 해당하는 *위 “(1)” 유형, 즉 ‘屈折적 同形적 1차·2차적 分節’, ‘둘째로’ : *앞 “2°” = “ $Q(Q)/(Q)Q$ ”에 해당하는 *위 “(2)” 유형, 즉 ‘동사적 내부 3차적 분절’, 끝으로 ‘셋째로’ : *앞 “3°” = “ $Q(R)/(Q)R$ ”에 해당하는 *위 “(3)” 유형, 즉 “대명사적 외부 3차적 분절”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언어활동(의문-대답)의 최대의 지시적(동형화·거부적) 조직’ (M.D.E.M.)의 경우에서와 같이 ‘同形적으로 최대’가 되도록 하여 만들어진다. 그 차이는 “M.D.E.M.”의 경우에 있어서는 ‘中央’에다 ‘근원적·연속적 근원 理論’으로서의 “1°” = ${}_1Q-{}_2Q$ 와 “2°” = R이 각각, 그에 대응되는 파생적·불연속적 言語로서의 “3°” = R을 수반함에 반하여, “M.G.”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 단계로서의 “M.D.E.M.” 단계에 비하여 ‘구체 단계’인 “말의 寶庫”(trésor de la langue : F. de Saussure 199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30 참조)로서의 이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기된다. 즉 ‘中央’에다 ‘비근원적·再派生적 理論’으로서의 “1°), 2°), 3°)를 배치하고 그 각각이 ‘재 파생적·재 불연속 언어’를 수반한다. (*뒤 pp. 15~20의 “존대의 조직”의 “순수 의문-대답” 및 “존대적 의문-대답”을 합친 전체 그림 참조/*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 1996/1997. pp. 357-364 등 참조). 그리고 이 ‘조직’은 ‘기욤’식 ‘心理·精神力學論의 結合적 品詞論’에 代置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內部統辭論’을 거쳐 종착점으로서의 ‘外部統辭論’에 도달한다.

6°) ‘同形理論’과 비교하여 설명한 ‘結合理論’은 1: (인간·사물에 관계되는) 性-존대와 (文內部적) 前置詞-格助詞(後置詞)와 같이 佛語 및 韓語에서 (어휘요소 前置·後置되는) 두 유형의 문법표지를 따로 따로, 그리고 위와 같은 순서(“1” 먼저, “2” 나중의 순서)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근원·동형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근원적·동형적(‘너’ Q 중심적) 관용구’와 ‘결합적(自我 ‘나’ 중심적) 비 관용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 “4°)의 대각선의 비교 참조) 두 문법요소들을 둘째의 ‘결합적’의 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첫째의 (근원·동형적) 의미로 취하는데 있다.7)

7) 예컨대 전치사를 “起因→작용→결과”의 순으로 동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다룰 때, (*위에서 “특수→일반”이라는 짝의 ‘自我<나>- 어휘- 중심적’ 순환을 나타내는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로 파악된) ‘기욤’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橫대각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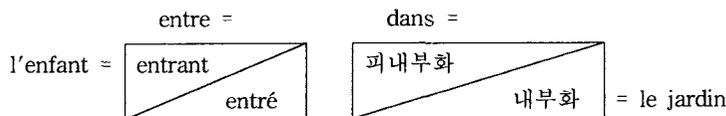
즉 :



예 :

- a) “Pierre observe” ‘베에르’는 본다
- b) “Pierre observe Paul” ‘베에르’는 ‘뿔’을 본다
- c) “Pierre entre dans le jardin” ‘베에르’는 정원에 들어간다

*주의 : “ ${}_1V/{}_2V$ 1動/2動” = 자동적(예 “a”)/타동적(예 “b”)통합에서의 ‘起因의 능동성/결과 수동성’ ; “ ${}_1Prép/{}_2Prép$ 1전치사/2전치사” = ‘주어-동사’(“a”) 또는 ‘주어-동사-목적어’(“b”)통합에서의 ‘주어/목적어’ 및 ‘간접타동’(“c”)이라 불리우는 통합에서의 전치사의 ‘起因(능동)/결과(수동)’ : 이것은 다음과 같은 ‘파네’의 그림으로 표기된다(G. Moignet, 1974, “Sur la «transitivité indirecte en français” in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XII. 1)*, Strasbourg, p. 2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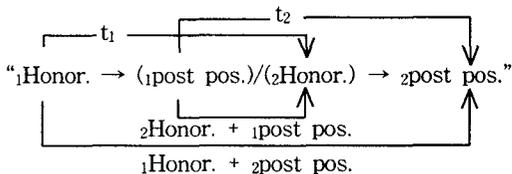


(또 G. Moignet, 1973, “Incidence verbale et transitivité” in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XI.1)*, Strasbourg, pp. 363~379 참조).

7°) 위와 같은 취지에서 “존대의 조직”(*뒤 그림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냐?(의문) Est- ce-que ... ?”/“-어! (대답) Cest que ... ”⁸⁾과 같은 말트막은 “너는 X가 먹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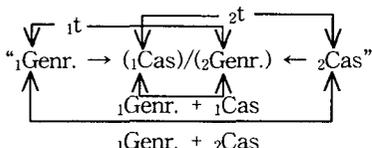
혹은 또 두 문법요소(존대 및 후치사 = 助詞)를 이와 같은 순서로 따로 따로 다루며 전자(존대)를 ‘주체-/대상-/상대-존대’로 분석하고 후자(助詞)를 거기에 종속시키는 예를 들 수 있다(*주의 : 이것은 곧 ‘狀況意味적 相對尊待’의 테두리 안에서 ‘文內部적 主体 = 主語 - 대상 = 客語’를 분석하는 等方向적 分析이 된다 : 許雄, 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pp. 8~122.).

즉 :



*주의 : “1Honor./2Honor. 1존대/2존대” = ‘동사적 상대존대 <-이니>/ 동사적 주체 존대<-시>’ ; “1post pos./2post pos. 1助詞/2助詞” = ‘조사적 주체존대 <주어로서의 ‘나+이/가 = 비 겸손의 나’, ‘-님 = 주체 존대’>/ ‘조사적 객어 존대 <존대의 직접/간접 목적어로서의 ‘저+이/가 = 겸손의 나’, ‘-님+께, 을 = 객어존대’>’ ; “1Honor.+2post pos./2Honor.+1post pos. 1존대+2조사/2존대+1조사” = ‘겸손의 나 <주어> 文/비 겸손의 나<주어>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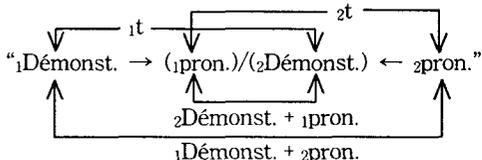
혹은 또 ‘格’을 종속시키는 ‘性’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주의 : “1Genr./2Genr.” = ‘무생물+중성/생물+남-여성’ ;
 “1Cas/2Cas” = ‘주어/목적어’ ;
 “1Genr.+2Cas/2Genr.+1Cas” = ‘무생물+목적어/생물+주어’;

*(A Joly, 1975, “Toward a theory of gender in English” in *Studies in English Grammar*, Universeté de Lille III, pp. 229~287).

또 지시대명사(ce)와 그에 종속되는 대명사(celu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주의 : “1Démonst./2Démonst.” = ‘지시대명사 <ce>/관계대명사<qu->’ ; “1pron./2pron.” = ‘대명사<celui>/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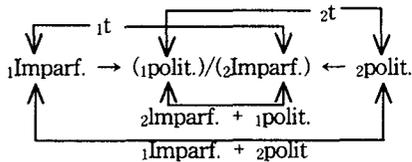
“1Démonst. + 2pron./2Démonst. + 1pron.” = ‘지시대명사 <ce> + 實詞/대명사<celui> + 관계대명사 <qu->’.

*(L. Guenette 1995, *Le démonstratif en français*, Éd. Honoré Champion, Paris, p. 42 등 참조).
 끝으로 ‘반과거’에 종속된 ‘존대’의 예가 있다.

든야?” ; “그는, 내가, X를 먹고 싶어하든야?” “Tu t', l', m' as vu aimer, aimant, manger X?” / “나는 X가 먹고 싶든야” ; “그는, 너는, X를 먹고 싶어하든야, ~먹고 있든야”, “je m' l' t'ai vu aimer, aimant manger X”, 또는 “너는, 그는, 나는, X냐? 그분 X냐?”⁹⁾ “Tu t' l', m' as vu être, étant x?”와 같이 韓/佛語에서 모두 각각 “굴절적 너 Tu”, “동사적 나 je” 그리고 “대명사적 나-너 je-tu”로 분석이 되는 ‘同形적 慣用句’가 된다.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명사적 존재의 동형 조직(의문-대답)”(*뒤 그림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나 tu-je,”/“-∅-∅ suis-es”(굴절적 의문), “저-님 je-vous”/“-시-버니 êtes-s”(동사적 대답), “너-나 tu-je” / “∅-∅ suis-es”(1대명사적 의문), “저-님 je-vous” / “-시-버니 êtes-s”(2대명사적 대답)은 韓語와 그에 대응되는 佛語에서 모두 ‘근원적·同形적 慣用句’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관용구 “-아!~-어!”/“C'est que(대답)”만이 있고 그와 함께 관용구 “너(나)(먹게)해!, (너)나 먹게(해)!, 너(나)(X-먹게) 조용히 해!, (너)나 X 먹게(조용히 해)!, -님(그분/저)(잡수시/먹-게)하십

죽 :



- 1) “je venais (étais venu) dire à Monsieur”/
선생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 2) “je viens (suis venu) dire à Monsieur”/
선생님한테 말하러 왔어.

*주의 : “1Imparf./2Imparf. 1반과거/2반과거” = ‘동사적 상대존대 <venais, était venu>/동사적 주체존대 <viens, suis venu >’ ;

“1polit./2polit. 1존대/2존대” = ‘전치사적 주체존대 <겸손의 je 나>/전치사적 객어존대 <비겸손의 je 나>’ ;

*(Guillaume, 1971, “위 인용본”, pp. 132~133 등 참조).

8) 倒置法(“est-ce-que?/c’est que”; “Pierre, il viendra/Pierre viendra-t-il?”)의 ‘결합적’ 분석에 관하여는 A. Joly, 1983, “Ambigüité et paraphrase à propos de certains types d’inversion en français” in *Modèles linguistiques (tome V, fasc. 2)*,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pp. 135~17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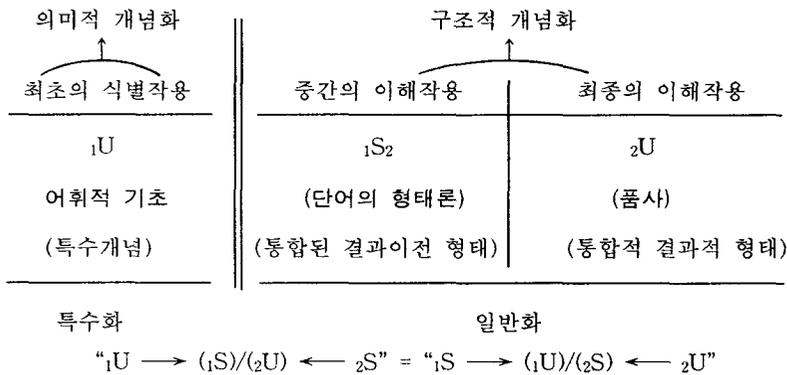
9) “He has realized...” ⇒ 1) realized | 2) has |와 같이 조동사 (have)를 ‘작용(= realized)’의 ‘결과(= has)’로 ‘결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대하여는 W. H. Hirtle 1975, *Time, Aspect and the Verb*,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p. 37 등 참조. 동형적 (너 <의문> 중심적) 분석의 관점에서는 “時制-相-法”과 같은 自我(나)-, 어휘- 중심의 분석을 탈피하여, 그것(조동사 have + pp.)을 하나의 (人稱的) 慣用句 즉 : “Tu t', l', m'as vu?” (의문 중지어미 ‘-야?’)/“Je m', l', t' ai vu” (대답 중지어미 ‘-어!’)로 보고 각각 (근원·동형적) 존재(être <비 존재> ∅/étant <존재> -시)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주의 : “avoir”를 “1avoir/2avoir”로 나누어 ‘기호’로서 사용함에 대하여는 *뒤 p. 16의 *주의 項 참조).

시오!, (-님)그분/저 X 잡수시/먹-게(하십시오), -님(그분 X 잡수시게) 조용히 하십시오!
 오!, (-님) 그분 X-잡수시게(조용히 하십시오)” “je, t', m', l'ai vu faire, faisant, manger, mangeant, calme”를 갖는 “동사적 존재의 동형적 조직(= 명령)”(*뒤 그림 참조)도 위와 같이 취급된다.

8°) 이제 남은 일은 이미 언급되긴 하였으나 ‘대명사적(= 의문-대답)-동사적(= 명령) 결합적 조직’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다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반복하면, 그 위치는 ‘동형적 조직’의 ‘피거부’의 자리에 “연결(먼저)-종결(나중)”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동형적으로 거부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조직이 再構成을 거쳐서 ‘동형적 조직’에 併合되어야 함을 뜻한다.¹⁰⁾

적극적 관점에서 볼 때 ‘기욤식 心理·精神力學論’은 처음부터 아예 배척될 것이 아니라, ‘自我(나) 중심적 결합적 조직’을 ‘데리다식 筆跡 écriture’¹¹⁾으로서의 ‘(너-중심적) 力學·同形적 조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이고 非恣意的인 力學性’을 재구함에 있어 체계적 기초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10) ‘기욤식’ 결합적(어휘 중심적)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을 참조(A. Joly, 1975, “*위 인용본” p. 242 참조). 이것을 우리는 *위 p. 9에서 한 바와 같이 “ ${}_1U \rightarrow ({}_1S)/({}_2U) \leftarrow {}_2S$ ” = “ ${}_1S \rightarrow ({}_1U)/({}_2S) \leftarrow {}_2U$ ”와 같이 고쳐서 파악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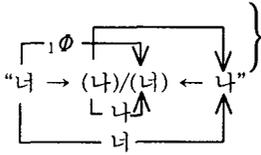


11) J. Derrida, 1967, *De la Grammatologie* 참조 : ‘소쉬르’식 노선에 따라 ‘筆跡 écriture’보다 ‘말 parole’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音韻 중심관을 비판한 뒤 그는 그와 ‘逆의 순서’를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그와 반대로 口頭言語가 이미 이 「筆跡」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p. 81).. “우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 : 《原始》, 《自然》등의 言語란 결코 존재한 일이 없으며, 그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筆跡」이었다고” (p. 82)/ M. Toussaint, 1983, *Contre l'Arbitraire du Signe*, Didier Érudition, Paris 참조 : 발생기원 이론으로서의 ‘데리다’의 筆跡理論에 토대를 두고 ‘기욤’의 物理·의미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음성·음운적) 記号論의 취급방법은 우리의 견해로는 역시 ‘기욤식 물리·의미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원적/同形적) 존재의 조직 순수 의문-대답

*주의 : 아래 표기의 “너 → (나)/(너) ← 나”
표기는 “指示 → (被指)/(指) ← 被”표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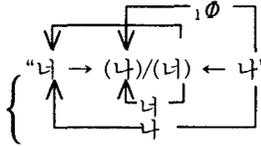
I. 理論 - 근원 \emptyset
일반형태론(I)/(II)-
同形化(=변형) $1\emptyset$ 度



바로 *아래의 複合조직의 同形化(變형)로서의 “너 → (나) / “너 → (그)”의

- 單一적 조직(*주의: “너 /나/그” 밑의 화살표시: →/←의 표시방법은 이하 모두 같음).

外部1차 分節 -
同形化, \emptyset 度
일반형태론(III) -
被同形化(=生成) $2\emptyset$ 度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일반형태론(I)/(2)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 바로 *앞 “理論단계”의 同形化 $1\emptyset$ 도로서의 “너 → (나) / “너 → (그)”의 (單一적) 조직.
*예 : “flex. <u-nò-Q> → (verb. <je-na-R.>) / (flex. <tu-nò-Q> ← verb. <je-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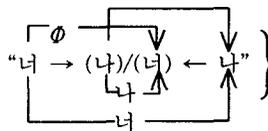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 그 자체가 “()”안에 바로 *뒤의 同形化($2\emptyset$) = (單一/複合적) 内部통사론(I)/(II) 및 被同形化=同(III)을 內有하고 있는 同形化 $2\emptyset$ 도의 “너 → (나) / “너 → (그)”의 複合적 조직.
*예 : “tu(je) → (<tu>il) / (ce=tu <que=toi>) ← (est=tu-présent) zes t=je-prés.” : nò(na) → (<nò>ki) / (nò <nin = quand à>) ← (nin-tu-prés) ya?=particule de Q.=je-prés.

*주의 : 각 分節을 연결하는 左右의 수직선은 내부/외부적 同形운동을 가리킴.

理論-근원 \emptyset 일반 <인칭>
음운론 = “너” - 음운론

内部 1차 分節-同形 (=근원) \emptyset 度

*바로 *뒤 複合적(= 변형적) “너 → (그)”적 “나” 음운론 단계의 同形化로서의 “너 → (나)”적 單一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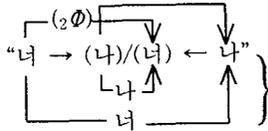


*주의 : { 표시는 각각의 그림이 나타내는 단계의 位置를 가리킴.

*예 : *뒤(부록) “근원적 인칭음운론단계”의 “근원” = “너 → (나)”단계 : 그 자체가 “()”안에 被同形化(=被거부) = “1生2”를 內有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안에 바로 *뒤의 “나”음운론과 바로 *위 左의 “일반형태론 $1\emptyset$ ” = *별지 “單一적 일반형태론(I)/(II)단계”를 內有하고 있는 변형 \emptyset 도의 “너 → (나)”적 근원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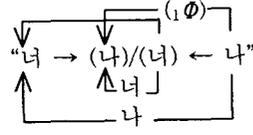
*예 : “tu → (je) / (<tu> je)”
“nò → (na) / (<nò> na)”

內部통사론(I)/(II) -
同形化(2∅)度



- *바로 위 單一적 同形化의 被同形化로서의 “너 → (나)”/“너 → (그)”의
- 複合적 조직.

內部통사론(III) -
被同形化(1∅)度



외부 1차
分節
被同形化
(1∅)度 ←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內部통사론 (I)/(II)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예 : *뒤(부록) “(單一/複合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주의 : “()”/“< >” = 同形의 順序 “1/2” ; Flex. : 屈折, Verb. = 動詞, Pronom. = 代名詞 人稱.

$\begin{matrix} & & \downarrow & & \downarrow \\ \text{“}_1\text{Est} \rightarrow & (\text{ce}) & / & (\text{2Est}) \leftarrow & \text{que”} \\ \text{ce(Etre)} & \langle \text{ce} \rangle \text{E} & & \text{que} \langle \text{E} \rangle & (\text{que})\text{E} \\ \text{Q(R)} & \langle \text{Q} \rangle \text{R} & & \text{Q} \langle \text{R} \rangle & (\text{Q})\text{R} \\ \text{Tu(Je)} & \langle \text{Tu} \rangle \text{Je} & & \text{Tu} \langle \text{Je} \rangle & (\text{Tu})\text{Je} \end{matrix}$				
\wedge				
$\left\{ \begin{matrix} \text{tu} & \text{tu} & \text{tu} & \text{je} \\ \text{t}' & \text{t}' & \text{t}' & \text{m}' \\ (\text{aimer}) & \text{aimer} & \langle \text{aimer} \rangle & (\text{aimer}) \end{matrix} \right.$	as	as	as	ai
	vu	vu	vu	vu
	\vee			
ya?(joh-ún)	<à>joh-til-	i<joh-tin>-	i(joh til)	
Flex.	Verb.	Pronom.	Verb.	

$\begin{matrix} & & \downarrow & & \downarrow \\ \text{“}_1\text{Est} \rightarrow & (\text{ce}) & / & (\text{2Est}) \leftarrow & \text{que”} \\ \text{ce(E)} & \langle \text{ce} \rangle \text{E} & & \text{que} \langle \text{E} \rangle & (\text{que})\text{E} \\ \text{Q(R)} & \langle \text{Q} \rangle \text{R} & & \text{Q} \langle \text{R} \rangle & (\text{Q})\text{R} \\ \text{Tu(Je)} & \langle \text{Tu} \rangle \text{Je} & & \text{Tu} \langle \text{Je} \rangle & (\text{Tu})\text{Je} \end{matrix}$				
\wedge				
$\left\{ \begin{matrix} \text{tu} & \text{tu} & \text{tu} & \text{je} \\ \text{t}' & \text{t}' & \text{t}' & \text{t}' \\ (\text{aimer manger}) & \text{connaître X} & \langle \text{être calme} \rangle & (\text{faire X}) \end{matrix} \right.$	as	as	as	ai
	vu	vu	vu	vu
	\vee			
i-ko	<l-ko>	-hi-ha-	ha	
(mòk-sip)	al-it	<joyong>	(X)	
Flex.	Verb.	Pronom.	Verb.	

nò-nin X-i/ka joh-tòn-ya? → na-nin ... 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khi-ka khi-tòn-ya? → khī-tòl-a
 “Est-ce que tu l’as vu être grand?” →
 “C’est que, je l’ai vu ...”
 kī-nin kikos-il mòk-ko ittòn(nin) = ya?
 ... ittòl-a →
 “Est-ce que tu l’as vu connaître X?” →
 “C’est que je l’ai vu ...”

*주의 : “être/étant”;
 “aimer/aimant”,
 등은 근원·동형적
 의미에서의 “비존대/
 존대”에 해당함(*위
 註 9 참조).

nò-nin X-i/ka mòk-ko siptòn-ya? →
 na-nin ... 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manger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X-lil mòk-ko siphò-ha tòl-ya?
 → ... haròl-a
 “Est-ce que tu l’as vu aimer manger X?”
 → “C’est que, je l’ai vu ...”
 nò-nin X lil ha-ko it-nya?
 → na-nin ... iss-ò
 “Est-ce que tu t’as vu faire X?” →
 “C’est que je m’ai vu ...”
 kī-nin X-lil hatò-nya? → ... hatò-la
 “Est-ce que tu l’as vu faire X?”
 → “C’est que je l’ai vu ...”
 kī-nin joyong-hatò-nya? → ... hatò-la.
 “Est-ce que tu l’as vu être calme?”
 → “C’est que, je l’ai v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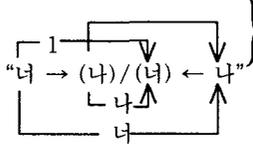
*주의 : *위 그림의 “tu t’, m’, l’ as vu/je m’, t’, l’ ai vu”에서의 조동사 “avoir”는, “₁Est→(ce)/₂(Est)←que” 또는 “ce(Etre) → <ce>Ê/que <Ê>←(que)E”에서의 “/” 左측의 記号표시로서의 “j’être”와 對比되는 “ce-que 또는 tu-je 동사(=代名動詞 . tu t’es vu/je me suis vu)”의 記号표시로서의 “avoir”에 대응되고, “/” 右측의 記号표시로서의 j’être와 對比되는 il-동사(=半과거)의 記号표시로서의 2avoir에, 근원·同形적 의미에서 각각 대응된다.

*주의 : *뒤 그림 : “대명사적 존대의 조직”에도 *위와 같은 *주의.

*주의 . 俞승의 예는 *뒤 그림 . “동사적 존대의 조직” 참조.

II. 理論 - 同形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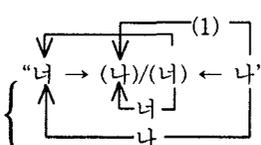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 - 同形化 1度



- *바로 *아래의 複合적 조직의 同形化(변형)로서의 非존대적 “너 → (나)”/“너 → (그)”의 單一적 조직.

外部 2차 分節 - 同形化(1)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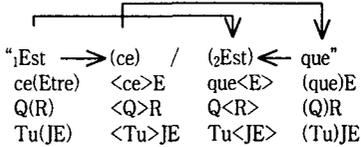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I) - 被同形化(1)度



*예: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非존대/(존대)”의 單一적 조직.

*예: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非존대/(존대)”의 複合적 조직.

“대명사적 비 존대/(동사적 존대)”



{	tu	tu	tu	je
	t'	t'	l'	l'
	(aimer)	aimer	<être>	(être)
	as	as	as	ai
	vu	vu	vu	

i-ka(joh) <i-ka>joh ya?<isi> òl(isi)

Flex. Verb. Pronom. Verb.

nò-nîn X-i-nyā? → ... X-i ya.

“Est-ce que tu t'as vu êtr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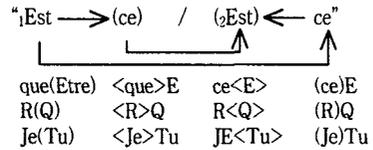
→ “C'est que je m'ai vu ...”

kī-nîn X-ī-n-ya? → ... -X-i-si-ta.

“Est-ce que tu l'as vu être X?”

→ “C'est que je l'ai v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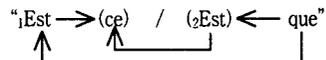
(“대명사적 비 존대/



{	je(tu)	tu(je)	je(tu)	tu(je)
	(manger<amant>)	amant(aimer)	(aimer X)	(aimer X)
	t'	l'	m'(t')	t'(m')
	ai(as)	as(ai)	ai(as)	as(ai)
	vu	vu	vu	
	-il	-il joha ha-tin-i joh-til	-i joh-tin	
	(mòk-til	<joh-a-ha-tin>(-i joh-til)	<-tin>	(-til)

Flex. Verb. Pronom. Verb.

<동사적 존대>”)



ce(E) <ce>E que<E> (que)E

Q(R) <Q>R Q<R> (Q)R

Tu(JE) <Tu>JE Tu<JE> (Tu)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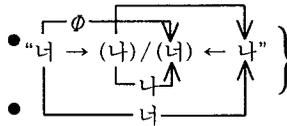
{	tu(je)	je(tu)	tu(je)	je(tu)
	l'	l'	l'	
	(être<étant>X)	étant(être)X	être(étant)X	étant(être)X
	as	ai(as)	as(ai)	ai(as)
	vu	vu	vu	
	-i	si	-isi	-sipni
	(si)	(-i)	(-sipni)	(-isi)

Flex. Verb. Pronom. Verb.

kī-nin X-lil mòk-tò-la(kī-pun ... l-sipni-ta)
 "C'est que je l'ai vu manger X
 (C'est que je l'ai vu être X)"
 kī ... X-lil joha-ha-tòla(kī ... X-i-si-ta)
 "C'est que je l'ai vu aimant X
 (C'est que je l'ai vu étant X)"
 na-nin X-i/ka joh-tòla(Na...X-i-ya)
 "C'est que je m'ai vu aimer X
 (C'est que je m'ai vu être X)"
 Nò...X-i/ka joh-tò-nya?(Na ... Joh-tò-la)
 "Est-ce que tu t'as vu aimer X?"
 (C'est que je m'ai vu aim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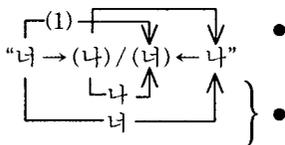
理論 - 同形化(= 변형)
 "1°"도의 일반 <인칭>
 음운론 = "나" - 음운론

內部2차 分節
 - 同形(변형)
 1°度
 *바로 *앞 "너"-음운
 론 단계의 被同形化
 로서의 "너→(그)"적
 2單一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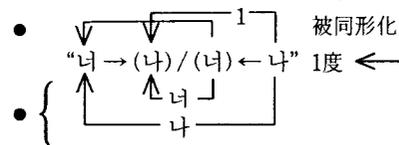
*예 : *뒤(부록) "근원적 인칭 음운론 단계"의
 "변형" = "너→(그)"단계 : 그 자체가 "()"
 안에 被同形化(= 1生2)를 內有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안에 同形化, 즉 바로
 *뒤의 "그"-음운론과 바로 *위 左의
 (單一적)外部통사론(I)을 內有하고 있
 는, *앞 "변형 0도"와는 逆方向의 "변
 형 1°도"의 변형적 조직.

(單一적)外部통사론(II) -
 同形化(1)度



*예 :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複合적 外部통사론(II) -
 被同形化 1度 外部2차
 分節 -
 被同形化
 1度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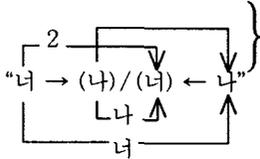


*예 :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근원적/同形적)
존대적 의문-대답

Ⅲ. 理論 - 被同形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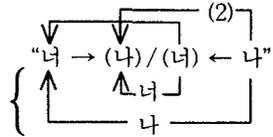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Ⅲ) - 同形化 2度



- 바로 *아래의 複合적 존대의 조직의 同形化로서의 “너→(나)”/“너←(그)”의 單一적 존대의 조직.

外部 3차 分節 - 同形化 (2)度

(單一적) 外部통사론(Ⅲ) 被同形化(2)度



-

*예: *뒤(부록) “(單一적) 外部통사론(Ⅲ)단계”의 “근원/변형”의 “言語/人稱 표기”: 바로 *앞 “理論 단계”의 同形化 2도로서의 “너→(나)”/“너←(그)”의 單一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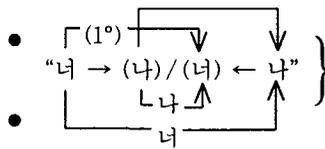
*예: *뒤(부록) “(單一적)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₁生成/₂生成”의 “言語/人稱 표기”: 바로 *뒤의 “同形化(2)” = “複合적 外部통사론(Ⅲ)”의 “근원/변형” 및 “被同形化 2” = “上同”의 “₁生成/₂生成” 단계를 “()”안에 內有하고 있는 被同形化(2)도로서의 “너→(나)”/“너←(그)”의 複合적 조직.

理論-被同形化(= 生成) “(1°)”도의 일반
<인칭> 음운론 = “그”-음운론

內部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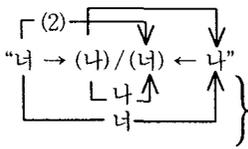
分節 - 同形
(生成)(1°)度

*위 “1單-½單-”적 “너-/나-음운론” 단계의 被同形化로서의 “너→(나)”/“너←(그)”적 複合적(生成적) 조직.



*예: *뒤(부록) “근원적 인칭 음운론 단계”의 “₁生成/₂生成” = “너→(나)”/“너←(그)”단계 : 그 자체가 “()”안에 同形化, 즉 바로 *위 左의 “外部통사론 同形化 2度” = *뒤(부록) “(單一적) 外部통사론(Ⅲ)단계”의 “理論(= ₁근원)-₁言語(= ₁변형)” 단계를 內有하고 있는, 변형(1°)도의 代名詞인칭적 성격(“너→(나)”/“너←(그)”)의 複合(= 生成)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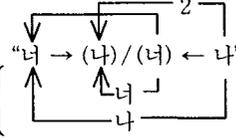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Ⅲ) - 同形化(2)度



- 바로 *위의 “單一적 존재의 조직”의 被同形化로서의 “너→(나)”/“너→(그)”
- 의 複合적 존재의 조직.

*예: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그 자체가 “()”안에 바로 *옆의 “複合 단계”를 內有하고 있는, 변형 (2)도의 “너→(나)”/“너→(그)”의 單一적 조직(*뒤 “代名詞적 존재의 조직” 참조).

複合적 外部통사론(Ⅲ) - 被同形化 2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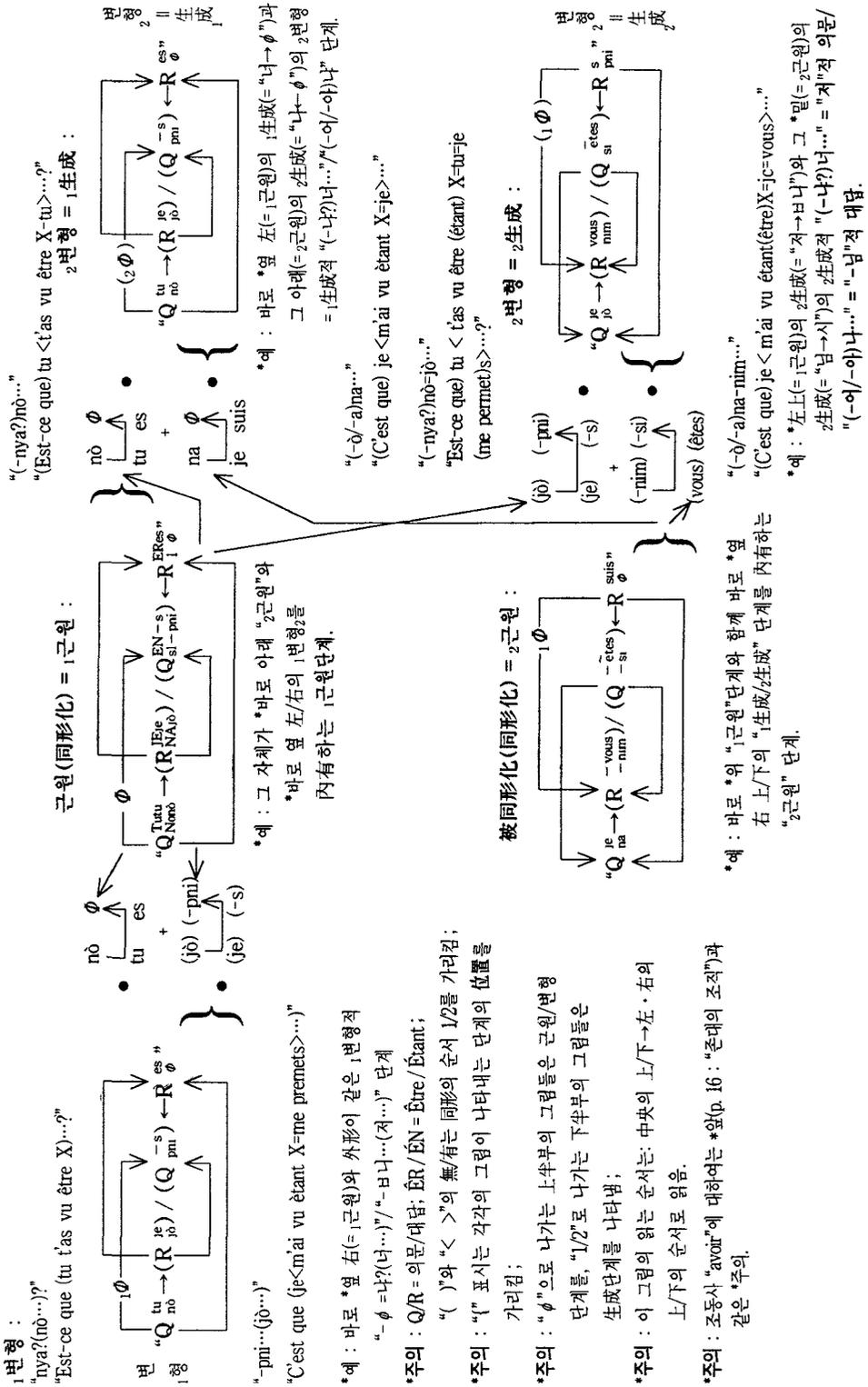


外部 3차 分節 - 被同形化 2度 ←

*예: *뒤(부록) “上同”의 모든 “言語/人稱 표기”: 전통적/비근원적 조직을 拒否함을 그 유일한 존재이유로 하는, 바로 *옆 左의 複合으로서의 변형 2도의 複合적 조직(*뒤 “代名詞적 존재의 조직” 참조).

*주의: *위의 “複合적 조직”은 나무그림의 세 개의 마디의 각각에 해당함 (*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 p. 462 이하 참조).

(근원적/同形적) 대명사적 존재의 조직 (= 의문-대답) :



1 변형 :

*예 : “너(-나?) = “너”-의문 + (너×이)가 먹고 싶더냐?) = 主觀助動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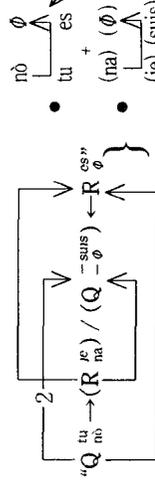
“나(-이/어)” = “나” 대답 + (나...러라) = 主觀助動詞

“nya?(nò...)?”

“Est-ce que (tu t’as vu être X)....?”

+ (“Nò X-i/ka mòk-ko sip tònnya?”)

+ (“<Est-ce que> tu t’as vu aimer manger X?”)



“(C’est que) je <mi ai vu être(étant)X = suis>...”

“(-ò/-ahna...”

“(<C’est que> je m’ai vu aimant (mang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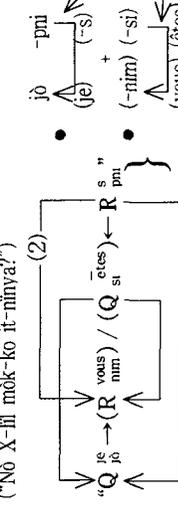
+ (“Na X-i/ka...tòla”)

“(C’est que) je <mi ai vu être(étant) X = me permets>...”

“(-pni...)jò...”

“(<Est-ce que> tu t’as vu être(étant) manger X?”

+ (“Nò X-lll mòk-ko it-ninya?”)



“(-si...)-num...si...”

“(C’est que) je <’ai vu être(étant)X= vous êtes>...”

+ (“Na X-lll...it-sò”)

“(<Est-ce que> je m’ai vu être(étant) manger X”

*예 : “저(-나?) = “저”적 의문 = “너(-나?)”(cf. *의

2 변형 : *예 : “저(-나?) = “저”적 의문 = “너(-나?)”(cf. *의

*변형 = 生成) + (너 X를 먹고 있느냐?) =

記述조동사

“님(-시)” = “님”적 대답 = “나(-이/어)”(cf. 上同) +

(나 X를 먹고 있어) = 上同.

1 生成 : *예 : “그분(-는아?)” = “(나)-님”적 의문 +

(그분 X를 잡수시고 싶어하시느냐?) = 主觀助動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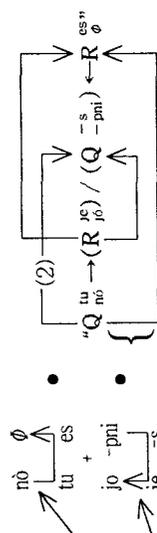
“-님(-마나)” = “(저)-마나”적 대답 + (그분...니다) = 上同.

“(-ninya?)ki-pun...”

“(Est-ce que) tu <’as vu être(étant)X? = Monsieur>...?”

+ (“Ki-pun X-lll japsusi-ko siphò ha-si-ninya?”)

+ (“<Est-ce que> tu t’as vu aimer(aimant) manger(mangeant) X?”)



“(-pni...)-nim...”

“(C’est que) je <’ai vu être(étant)X = Monsieur>...”

+ (“Ki-pun...-n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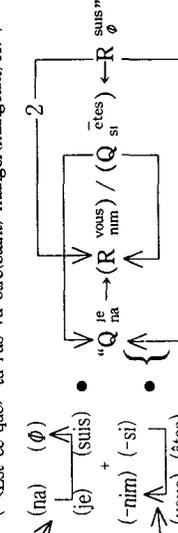
+ (“<C’est que> je t’ai vu aimant(aimer) mangeant (manger) X”)

“(-ninya)-nim...?”

“(Est-ce que) tu <’as vu être(étant)X = Monsieur>...?”

+ (“Apò-nim X-lll...kye-si-ninya?”)

+ (“<Est-ce que> tu t’as vu être(étant) manger(mangeant) X?”)



“(-pni)-nim...”

“(C’est que) je <’ai vu être(étant) X = Monsieur>...”

+ (“Apò-nim...-sip-nita”)

+ (“<C’est que> je t’ai vu être(étant) mangeant (manger) X”)

2 生成 : *예 : “-님(-는아?)” = “(나)-님”적 의문 + (아버님 X를

~고 계시느냐) ? = 記述助動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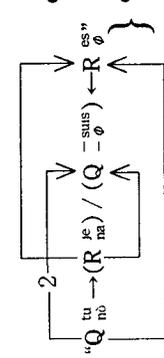
“-님(-마나)” = “-님(-시)”적 대답 + (아버님...-

-마나) = 上同.

(근원적/同形적) 동사적 존재의 조직 (= 命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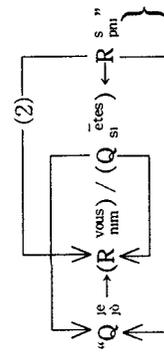
*주의 : *앞 "대명사적 존재의 조직"에서와 같은 *주의.
 1 변형 : *예 : "너(나) (먹게)해!" = "너" - 命令
 "너)나 (먹게)해!" = "나" - 命令

"Nò(na)mòk-ke(hae)" "C(<est> que) je t'(m)'ai vu faire(faisant) manger(mangeant) X" → "Que tu(me) fasses(manger) X!" :



"(Nò) na mòk-ke(hae)" "C(<est> que) je m'(t)'ai vu faire(faisant) (faire) mangeant(manger) X" → "Que (tu) me (fasses) manger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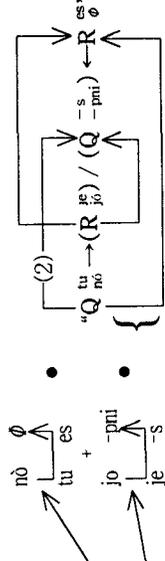
"Nò(na) X-mòk-ke(joyong-hi-hae)"
 "C'est (que) je t'(m)'ai vu faire(faisant) calme(mangeant X)"
 → "Que tu sois calme(pour que je puisse manger X)!" :



"(Nò) na X-mòk-ke (joyong-hi-hae)"
 "(C'est que) je m'(t)'ai vu faire(faisant) mangeant- X(calme)"
 → "(Que tu sois calme) pour que je puisse manger X!"
 2 변형 : *예 : "너(나) (X먹게) 조용히 해!" = "너"적 命令 = "너(-해!)"
 *cf. 앞 "대명사적 존재의 조직"의 "배합적 변형단계"
 "(너)나 X먹게(조용히 해!) = "-님"적 命令 = "나(-게)" = *cf. 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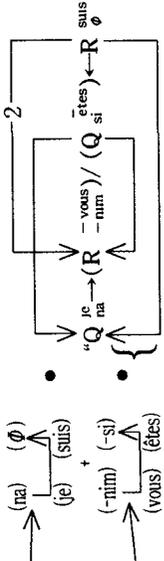
1 生成 : *예 : "-님(그분/제)(X잡수시/먹게) 하십시오!" = "-님(-게)" = "(너)-님"적 命令
 (*cf. 앞 "대명사적 존재의 조직"의 "배합적 (生成단계)";
 "-님)그분/제 X잡수시/먹게(하십시오!) = "그분/제(-십시오)" = "(저)-님"적 命令 (*cf. 上同).

"-nim(ki-pun)jo" (japsu-si/mòk-ke)ha-sip-sio"
 "C'(<est> que) je t'(l)'ai vu faire(faisant) manger(mangeant) X"
 → "Que vous (Monsieur, me) fassiez(manger X)!" :



"(-nim)ki-pun/cò X-japsusi/mòk-ke(haspisio)"
 "C'(<est> que) je l'(t)'ai vu faisant(faire) mangeant(manger) X"
 → "Que (vous) Monsieur, me (fassiez) manger X!" :

"-nim(ki-pun X-japsu-si-ke) joyong-hi hasip-sio"
 "C'est (que) je l'(t)'ai vu faire(faisant) calme(mangeant X)"
 → "Que vous soyez calme(pour que ce Monsieur puisse mang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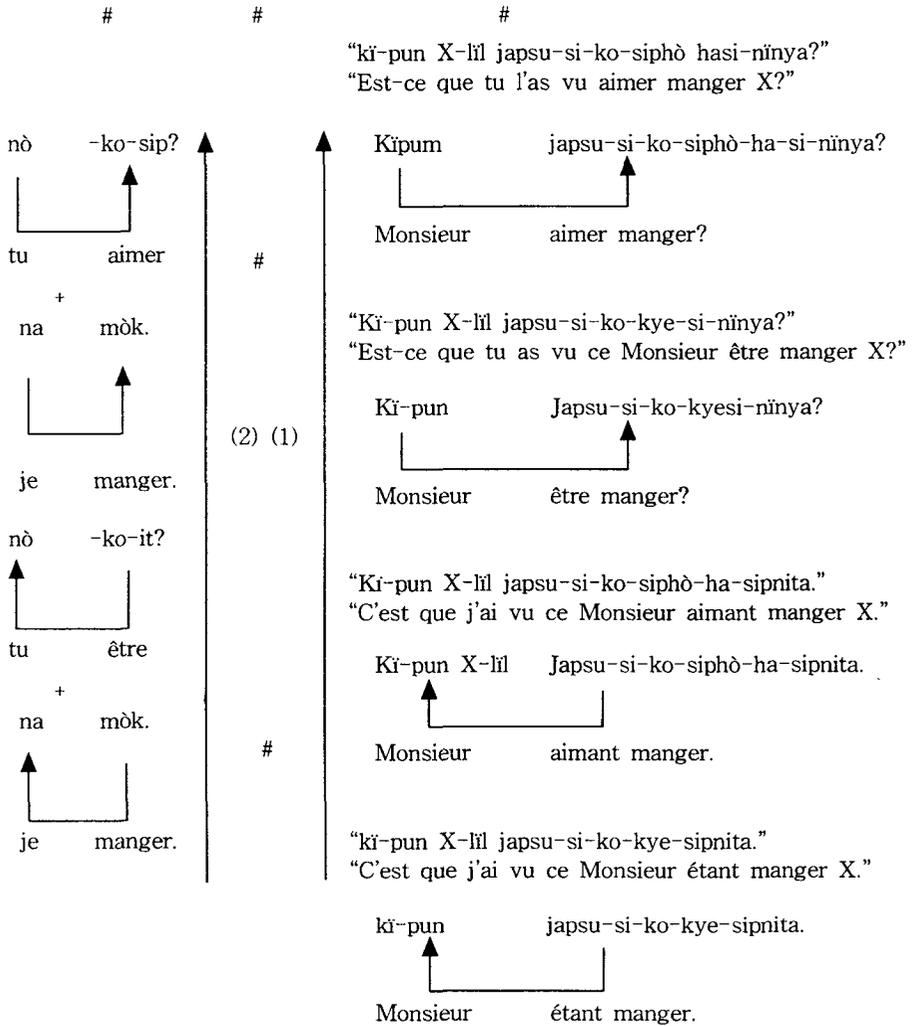
"(-nim)ki-pun X-japsu-si-ke (joyong-hi hasip-sio)"
 "(C'est que) je l'(t)'ai vu faisant(faire) mangeant-X(calme)"
 → "(Que vous soyez calme) pour que ce Monsieur puisse manger X!"
 2 生成 : *예 : "-님(그분 X잡수시게) 조용히 하십시오!" = "-님(-게)" = "(나)-님"적 命令 (cf. 上同);
 "-님)그분 X잡수시게(조용히 하십시오)" = "그분(-십시오)" = "-님(-사)"적 命令 (*cf. 上同).

(비근원적/結合적) 대명사적 존재의 조직: (= 의문-대답)

*주의: “#”표시는 그 자리에는 그림이 없는 이 “結合적 단계”의 특징을 나타냄. “同形적 단계”에서 “의문→(대답)”으로서 존재하던 이들 자리의 그림들은 모두 각각 “대답→의문”으로 바뀌고 그 속에 흡수되었음.

*주의: 숫자 “(1)/(2)”가 달린 화살표시(↑)는 結合의 순서를 가리킴.

*주의: “. /?”의 語末의 표시는 “연결(= 先語末)/ 종결(= 語末)”표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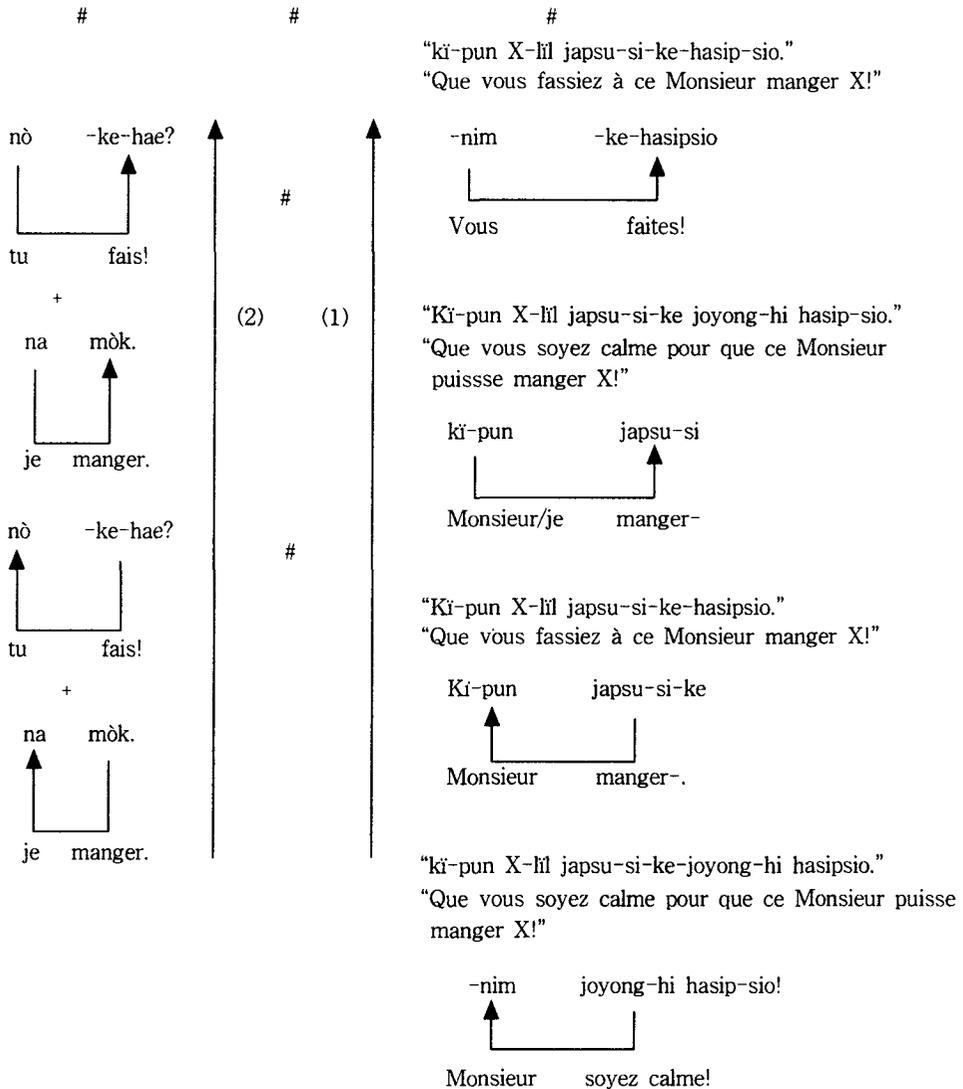


(비근원적/結合적) 동사적 존대의 조직(= 命令):

주의: *앞("의문-대답 단계")와 같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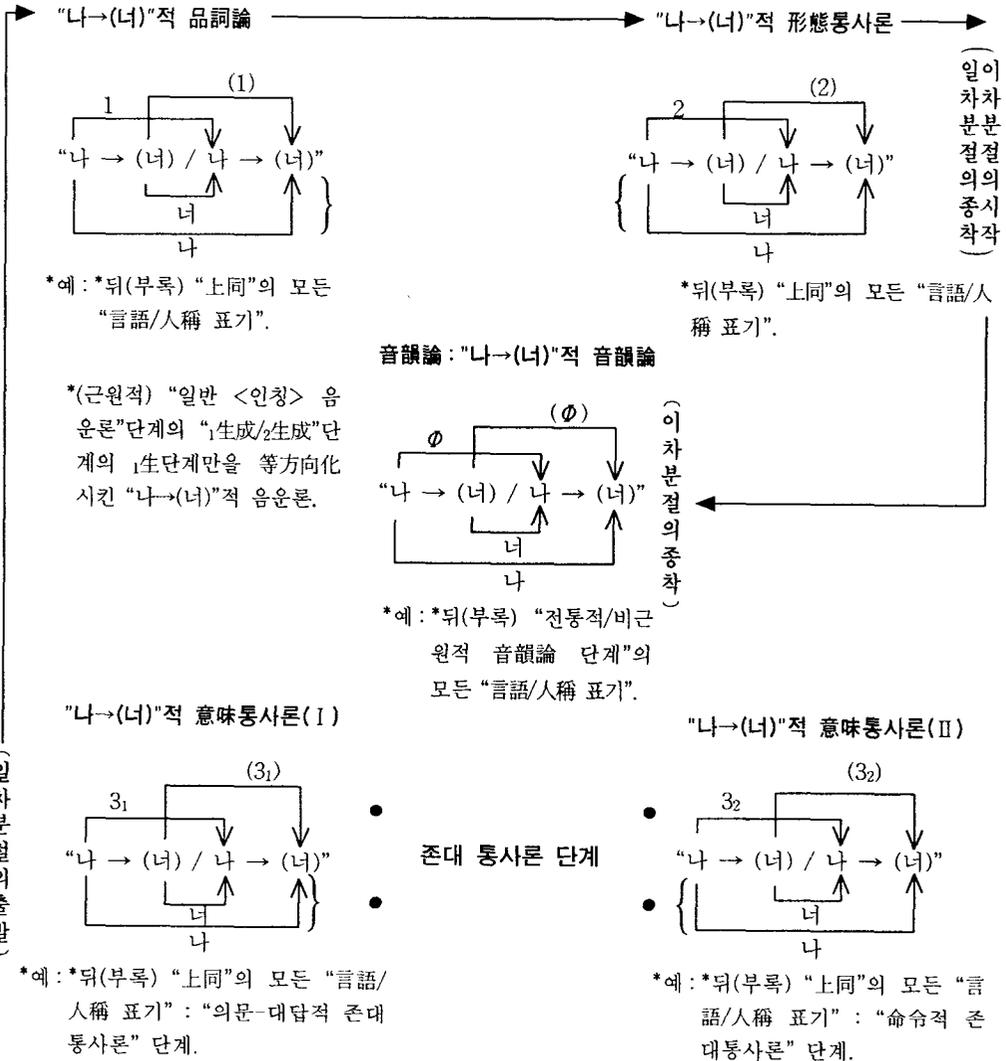
주의: 語末의 ". /!"의 표시는 "연결(= 先語末)/

종결(= 語末)" 표시임.



(結合적/비근원적) 존재의 조직 (= 반말과 존재의 조직)

*주의: 아래 표기는 “나→(너)/(너)←나”적 근원적(I)/(II)단계가 (III)단계로 “나→(너)/나→(너)”적 等方向적으로 흡수된 표기임에 *주의.



*주의: 변형 “∅(∅)/1(1)/2(2)/3₁(3₁)/3₂(3₂)”의 순서는 主張하는 순서이고 “일차/이차 分節”은 사실상의 순서임에 *주의. 또 “나→(너)/나→(너)”표기는 “引用표지/引用내용”에 해당하고 “()”의 有/無는 “引用내용/引用표지”에 해당함에 *주의.

부 록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의 조직의 기본틀의 정리

1. 근원 : “=”적(= 内部, 잠재, 等質, 연속, 형태, 單一적) 複合(밀착된 ‘하나로’적 복합):

1° ${}_1$ 근원 $_2$ (= ${}_1$ 頂点 $_2$) 및 ${}_1$ 변형 $_2$ (= ${}_1$ 非頂点 $_2$ = 非頂点적 ${}_1$ 頂点 $_2$)

: 指示 (거부/同形化) 단계.

*예 : *뒤 單一적 ㉠ → ㉡ / 複合적 ㉢ → ㉣의 모든 과도적 변형단계.

이것을 “頂点的 非頂点化”/“非頂点的 頂点化”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다 (拙稿 “記號의 非恣意性和 文法體系”, 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1996/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96-522 참조).

“指示/거부”란 “근원단계”에 해당되고, “同形化”란 “과도변형단계”를 말한다.

2° ${}_1$ 生成 $_2$: 被指示/被거부/被同形化 단계 :

*뒤 單一적 과도변형으로 새로운 “頂点 → 非頂点”이 生成되는 단계.

*예 : *뒤 單一적 ㉠ → ㉡ / 複合적 ㉢ → ㉣의 모든 生成단계.

(*이 단계는 근원단계와 外形이 같은 점에서 “다시 하나로”단계라 할 수 있다).

2. 변형 : “≠”적(= 外部, 구체, 異質, 불연속, 의미, 非單一적) 複合 (밀착되지 않은 ‘따로따로’적 複合):

1° ${}_1$ 근원 $_2$ (= ${}_1$ 頂点 $_2$) 및 ${}_1$ 변형 $_2$ (= ${}_1$ 非頂点 $_2$ = 非頂点적 ${}_1$ 頂点 $_2$)

: 指示 (거부/同形化) 단계 :

*예 : *뒤 單一적 ㉠ → ㉡ / 複合적 ㉢ → ㉣의 모든 과도 변형단계.

*위 1° 와 같음.

2° ${}_1$ 生成 $_2$: 被指示/被거부/被同形化 단계 :

*예 : *뒤 單一적 ㉠ → ㉡ / 複合적 ㉢ → ㉣의 모든 生成단계.

*위 2° 와 같음.

單一적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 (=피거부/被同形化)”의 조직

*위 “기본틀”의 (“근원단계”를 포함하는) 과도적 “변형단계”와 “결과적 生成단계”를

$$\begin{array}{ccccccc}
 {}_1C & \rightarrow & ({}_2C) & / & ({}_1D) & \leftarrow & {}_2D \\
 \rightarrow & & \leftarrow & & \rightarrow & & \leftarrow \\
 {}_1\text{근} & & ({}_1\text{변}) & & ({}_2\text{근}) & & {}_2\text{변}
 \end{array}$$

(*주의 : C : “1”적/“=”적/연속 · 等質 · 형태적; D : “2”적/“≠”적/불연속 · 異質 · 미적 ; C/D에 붙은 숫자 ①/② : 근원/변형에 각각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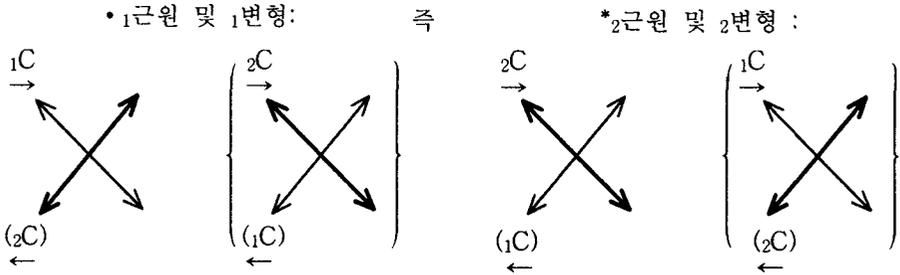
□ “ ${}_1C={}_1\text{근}$ ” 단계:

* 대각선表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 \begin{array}{c} {}_1\text{근원} \quad ({}_1\text{변형}) \\ {}_1C({}_2C) \left(\begin{array}{c} ({}_1C){}_2C \\ ({}_1\text{근}){}_1\text{변} \\ \rightarrow(\leftarrow) \quad (\rightarrow)\leftarrow \\ (\psi)\psi \\ (=) (=) \end{array} \right) \end{array} $	
• ${}_1\text{근원}$ 및 ${}_1\text{변형}$	•		• *左/右 {괄호}의 有(의미적)/無(형태적)의 짝짓기 =同形적 並置化 단계.
• 生成= [2근원 및 (2변형)]	•	$ \begin{array}{c} {}_2\text{근원}({}_2\text{변형}) \\ \left[\begin{array}{c} {}_1C({}_2C) \\ {}_1\text{근}{}_1\text{변} \end{array} \right] \end{array} $	• *위 “ ${}_1\text{근원}\{{}_1\text{변형}\}$ ”의 짝을 그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 “ $\{{}_1\text{근원}\}_1\text{변형}$ ”로 짝지을 때 그 짝의 生成적 變형단계. 괄호 { } 없는 “ ${}_1\text{근원}={}_1C({}_2C)$ ”와 그 外形이 같음. $ \begin{array}{c} \rightarrow \leftarrow \\ \rightarrow \leftarrow \end{arra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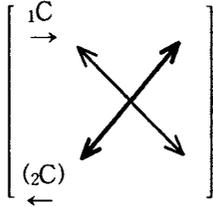
*위 [괄호] 안의 生成적 짝 ${}_1C({}_2C)$ 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위의 틀에 맞춰 “ ${}_1\text{근원}$ 및 $\{{}_1\text{변형}\}$ ”로 삼은 다음, 그것을 각각 “ ${}_1\text{근}=\psi$ ”/“ ${}_1\text{변}=(\psi)$ ”적으로 ‘짝짓기’=同形적 並置化 할 때 그 ‘결과적 生成단계’가 아직 [괄호] 안에 머물러 완료되지 않고 있는 아래와 같은 과도적 變형단계:

• ${}_1\text{근원}$ 및 ${}_1\text{변형}$:	• ${}_2\text{근원}$ 및 ${}_2\text{변형}$:
$ \begin{array}{c} {}_1\text{근원} \quad {}_1\text{변형} \\ {}_1C({}_2C) \left(\begin{array}{c} ({}_1C){}_2C \\ \rightarrow \leftarrow \quad (\rightarrow)\leftarrow \\ \psi(\psi) \quad (\psi)\psi \end{array} \right) \end{array} $	$ \begin{array}{c} {}_2\text{근원} \quad {}_2\text{변형} \\ \left(\begin{array}{c} {}_1C({}_2C) \\ \rightarrow \leftarrow \end{array} \right) ({}_1C){}_2C \\ \psi(\psi) \quad (\psi)\psi \end{array} $
• ${}_1\text{生成적}$ 근원 및 變형 :	• ${}_2\text{生成적}$ 근원 및 變형 :
$ \left[\begin{array}{c} C \quad ({}_2C) \\ \rightarrow \leftarrow \\ \varphi \quad (\varphi)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_1C \quad ({}_2C) \\ \rightarrow \leftarrow \\ \varphi \quad (\varphi) \end{array} \right] $
• *위 左/右 각각의 짝의 “ ${}_1\text{근원}$ ”/“ ${}_2\text{변형}$ ”와 각각 그 外形이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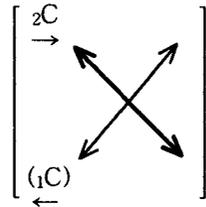
*위 左/右(괄호)의 {有(=의미적)}/無(=형태적)의 대각선이 짝을 이루는 단계.

• 1生成적 근원 및 변형:



*위 左/右 각각의 짝의 {괄호} 無 (=형태적)와 각각 그 外形이 같음.

• 2生成적 근원 및 변형:



*위 左/右 각각의 “1근원{1변형}”/ “2변형{2근원}”의 각각의 짝을 각각 그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 “{1근원}1변형”/ “{2변형}2근원”로 짝지을 때 그 짝의 生成적 변형단계.

② “(2C)= (1변)” 단계:

*대각선 表記는 *앞 □에 대응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 *이하 모두에 해당함.

• 근원 및 {1}변형: 앞 □ : 1C=1근 단계 맨 끝 “1生成/2生成적 근원 및 변형단계”의 짝 [1C(2C)][(1C)2C]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아래와 같이 1근원 및 {1}변형으로 삼은 다음,

그것을 각각 1근 = $\overset{1}{\rightarrow} \emptyset$ / 1변 = $\overset{2}{\leftarrow} \emptyset$ 로 짝지은 단계 :

1근원	{1변형}
1C(2C)	}
1근(1변)	
$\overset{1}{\rightarrow} \emptyset$ (2 \emptyset)	
= (=)	
	(1C)2C
	(1근)1변
	$\overset{1}{\rightarrow} \emptyset$ (2 \emptyset)
	(=) =

- 生成=[₂근원 및 (₂변형)]: *위 “₁근원{₁변형}”의 짝을 그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 “{₁근원}₁변형”로 짝지을 때, 그 짝의 生成적 변형단계. *위 {괄호} 없는 “₁근원=₁C(₂C)”
→←
와 그 外形이 같음.

$$\begin{array}{c}
 \text{{}_2\text{근원}(\text{{}_2\text{변형}})} \\
 \left[\begin{array}{c}
 \text{{}_1\text{C} (\text{{}_2\text{C}}) \\
 \text{{}_1\text{근} (\text{{}_1\text{변}}) \\
 " " \\
 " "
 \end{array} \right]
 \end{array}$$

*앞 ①의 단계와 모두 그 外形이 같으나, 다만 그 변형의 度가 “₁근=₁∅ / ₁변=₂∅”로 바뀌고, *위의 “₁근원 및 {₁변형}”과 “生成 = [₂근원 및 (₂변형)”의 짝을 逆方向化 시킨 (= 더 구체적) 짝 즉: “₁근원 및 {₁변형}” / “{₂근원} 및 ₂변형”의 짝이, [괄호]안에 머물고 있는 “₁生成/₂生成”의 짝과 짝짓고 있는 과도적 변형단계 : *앞 단계의 “대각선 그림” 참조.

③ “₂D=₁변” 단계:
←←

- ₁근원 및 {₁변형: 위 ②와 모두 그 外形이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가 “₁근=(₁∅)” / “₁변=(₂∅)”로 바뀐 점과 그에 따라서 {₁변형}이 구체적·불연속적 “D”로 바뀐 점만이 다르다.

$$\begin{array}{c}
 \text{{}_1\text{근원}} \quad \text{{}_1\text{변형}} \\
 \text{{}_1\text{C}(\text{{}_2\text{C}}) \quad \left(\text{{}_1\text{C}}\text{{}_2\text{C}} \right) \\
 \text{{}_1\text{근}(\text{{}_1\text{변}}) \quad \left(\text{{}_2\text{근}}\text{{}_2\text{변}} \right) \\
 \rightarrow (\leftarrow) \quad \left(\rightarrow \right) \leftarrow \\
 (\text{{}_1\emptyset})(\text{{}_2\emptyset) \quad \left(\text{{}_1\emptyset} \right)(\text{{}_2\emptyset}) \\
 = (\neq) \quad \left((\neq) = \right)
 \end{array}$$

- 生成=[₂근원 및 (₂변형)]: ₂근원(₂변형)

$$\left[\begin{array}{c}
 \text{{}_1\text{C} (\text{{}_2\text{C}}) \\
 \text{{}_1\text{근} (\text{{}_1\text{변}}) \\
 "
 \end{array} \right]$$

*앞 ① 및 ②와 모두 그 外形이 같으나 그 변형의 度가 “₁근=₁∅”/“₁변=₂∅”로 바뀌고 *위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 짝으로서의 과도적 변형단계: *앞 단계의 “대각선 그림” 참조.

④ “(1D)=(1근)” 단계:

- 1근원 및 {1변형} : 위 ③과 모두 그 外形이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가 “1근=1°” / “1변=(1°)”로 바뀐 점만이 다르다.

1근원	{1변형}
1C(2C)	}
1근(1변)	
→(←)	
1°(1°)	
=(≠)	
	(1D)2D
	(2근)2변
	(→)←
	(1°)1°
	(≠) =

- 生成=[2근원 및 {2변형}]:

2근원(2변형)
1C (2C)
1근 (1변)
" "
" "

*앞 ①, ②, ③과 모두 그 外形이 같으나 그 변형의 度가 “1근 = 1°” / “1변 = (1°)”로 바뀐

*위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인 쪽으로서의 과도적 변형단계: *앞 단계의 “대각선 그림” 참조.

⑤ 1C → (2C)/(1D) ← 2D = 1근 → (1변)/(2근) ← 2변 단계:

- 1근원 및 {1변형}: *위 ④와 모두 그 外形이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가 “1근원 및 {1변형}” 단계에서는 “1근 = 1” / “1변 = (1)”로 바뀌고, 生成[2근원 및 {2변형}] 단계에서는 “1근 = 2” / “1변 = (2)”로 바뀌면서 外部화살표시 → 가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1근원	{2변형}
1C(2C)	}
1근(1변)	
→(←)	
1 (1)	
= (≠)	
	(1D)2D
	(2근)2변
	(→)←
	(1) 1
	(≠) =

• 生成=[₂근원 및 (₂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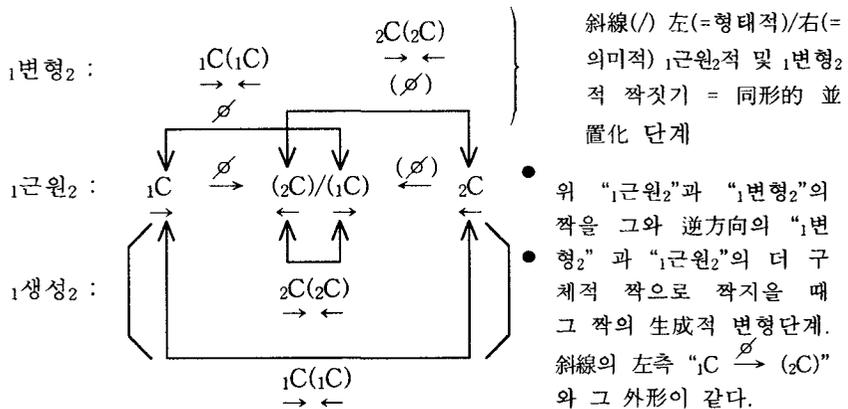
$$\begin{array}{c}
 \text{{}_2\text{근원 (}_2\text{변형)}} \\
 \left[\begin{array}{cc}
 \text{{}_1C \rightarrow (\text{{}_2C)} \\
 \text{{}_1\text{근} \quad (\text{{}_1\text{변)}} \\
 \rightarrow \quad \leftarrow \\
 \text{{}_2} \quad (\text{{}_2)} \\
 \rightarrow \quad \leftarrow \\
 \text{"} \quad \text{"}
 \end{array} \right]
 \end{array}$$

*앞 ①, ②, ③, ④단계와 그 外形이 모두 같으나 그 변형의 度가 “₁근 = 2” / “₂변 = (2)” 로 바뀐 점과 지금까지의 内部 화살표시 “→/←” 및 괄호 표시 “{ }/ [] 대신에 外部 화살표시 “→/←”와 斜線 “/”의 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위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複合적) 짝으로서의 과도적 변형단계 : *앞 단계의 “대각선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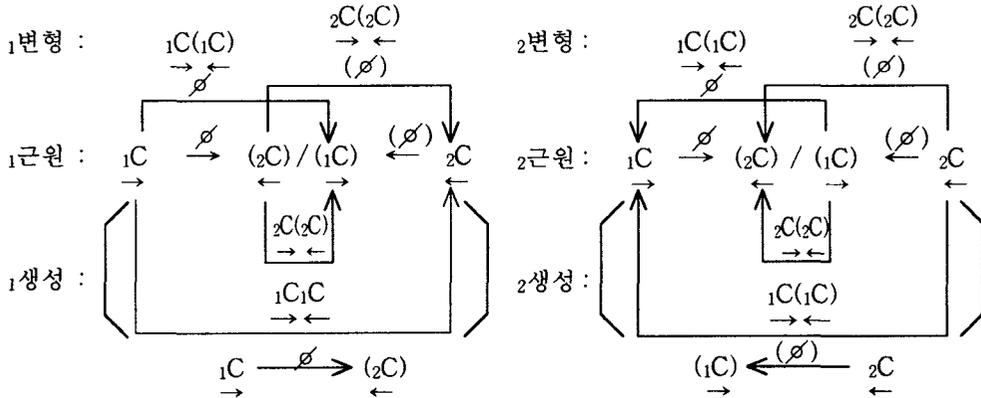
複合적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의 조직

1 *대각선 表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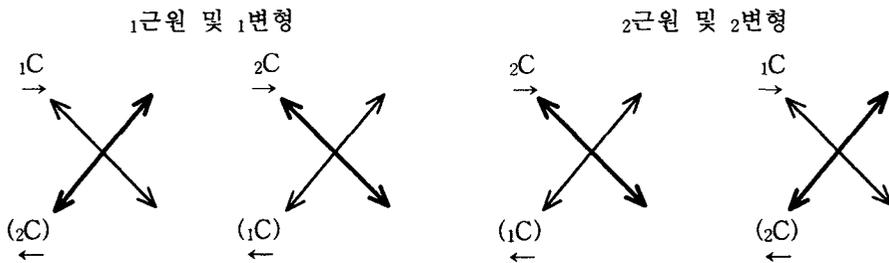
*주의 : 이 生成단계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뒤 5의 설명을 참조. 여기서 “₂근원” 단계는 생략되어 있음에 주의.



*單一적 □과 그 外形이 모두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가 複合的이라는 점이 다른, 아래와 같은 과도적 변형단계 :



즉



* 위 左/右 대각선이 이루는 짝 = 근원과 그 짝의 左邊과 右邊, 右邊과 左邊이 이루는 의미적/변형적 짝=변형이 짝을 이루는 단계="頂点(=근원)의 非頂点(=변형)化"/"非頂点(=변형)의 頂点(=근원)化"가 짝을 이루는 과도적 변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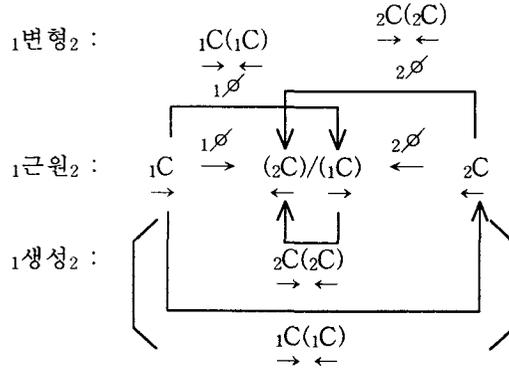
* 맨 위의 (單一的)生成단계와 그 설명이 같음.

* 위 "근원/변형"의 짝을 逆方向化시켜 "변형"을 "근원"으로 잡았을 때 그 "근원"과 짝을 이루는 생성적 변형단계(=*위 左/右 각각의 대각선의 左邊끼리 그리고 右邊끼리의 의미적/생성적 짝짓기(同形的 莖置化)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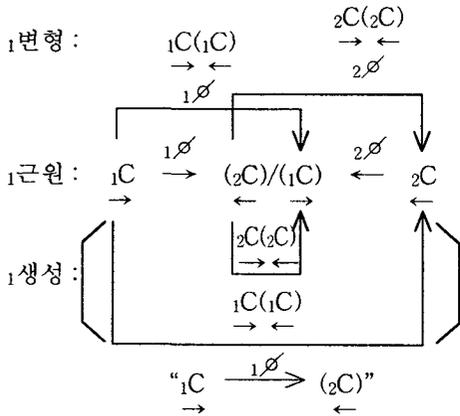
2 *대각선 表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주의 : 앞 **1**과 같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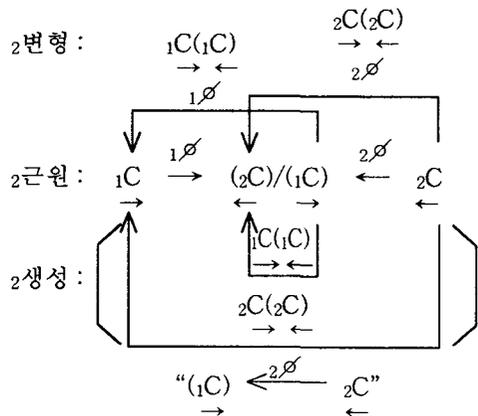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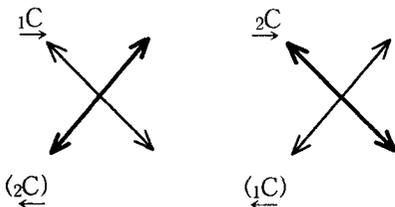
* 1 근원 $_2$ / 1 변형 / 1 생성 $_2$ 의 설명은 앞 **1**과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만이 다르다.



*單一적 **2**와 그 外形이 모두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가 複合的이라는 점이 다른, 아래와 같은 과도적 변형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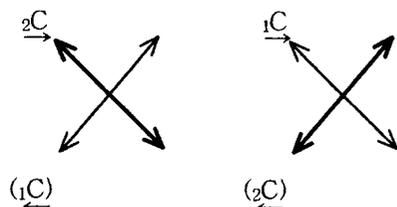


1근원 및 1변형



즉

2근원 및 2변형



*앞 ❶ 설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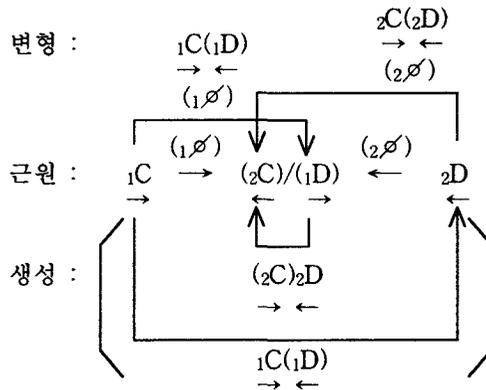


*앞 ❶ 설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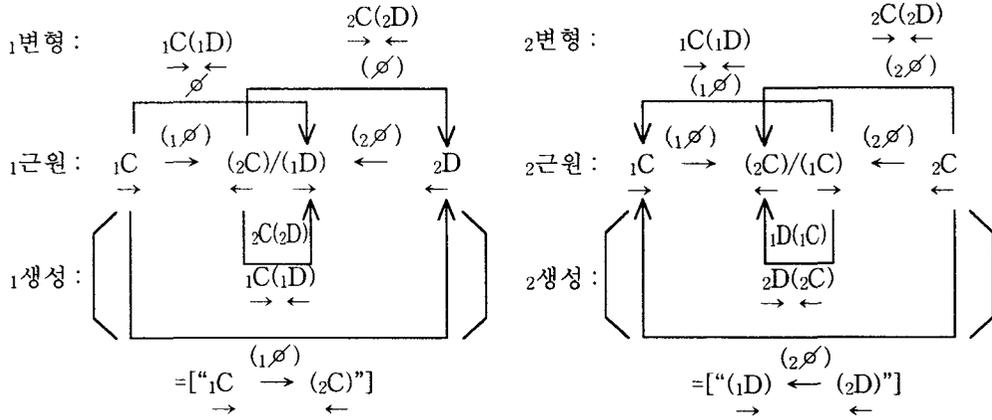
❸ *대각선 表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주의 : 앞 ❶과 같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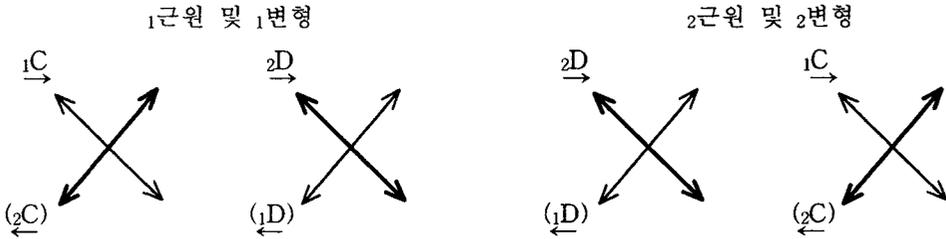
*₁근원₂ / ₁변형 / ₁생성₂의 설명은 앞 ❶, ❷와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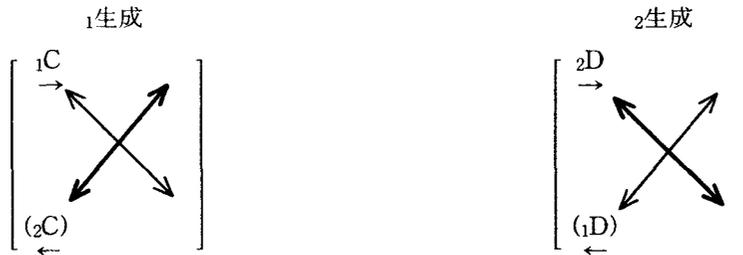
*앞 ❷의 괄호안의 生成의 짝 “[₁C^{1∅}→(₂C)/(₁C)^{2∅}←₂C]”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위와 같이 근원으로 삼은 다음(*右측이 “D”로 변한 것은 이 단계의 “불연속성”을 나타냄), ₁변형 = (₁∅)/₂변형 = (₂∅)적으로 ‘짜짓기 = 同形的 竝置化’할 때 그 결과적 ₁生成/₂生成단계가 아직 괄호안에 머물러 완료되지 않고 있는 과도적 변형단계 :



즉



*앞 1 설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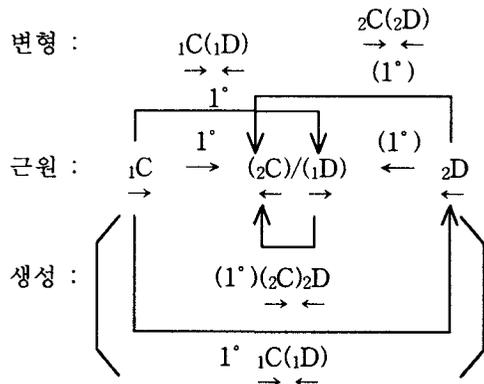


*앞 1 설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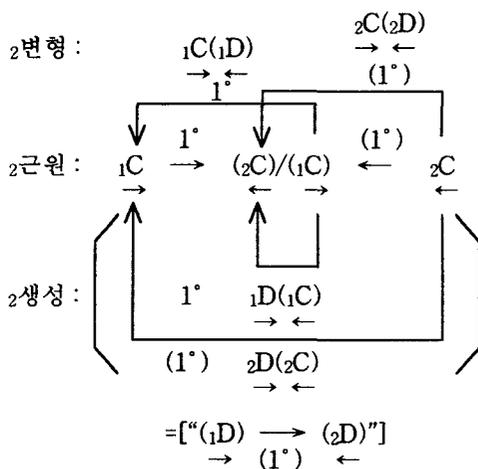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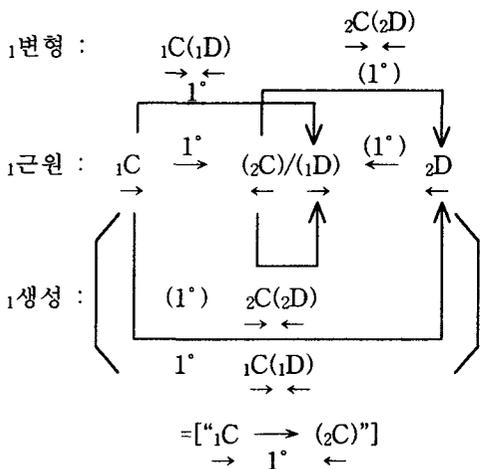
4 *대각선 表記는 아래 左의 대각선에 해당함.

*주의 : 앞 1과 같은 주의.

*₁근원₂ / ₁변형₂ / ₁생성₂의 설명은 앞 1, 2, 3과 같고, 다만 그 변형의 度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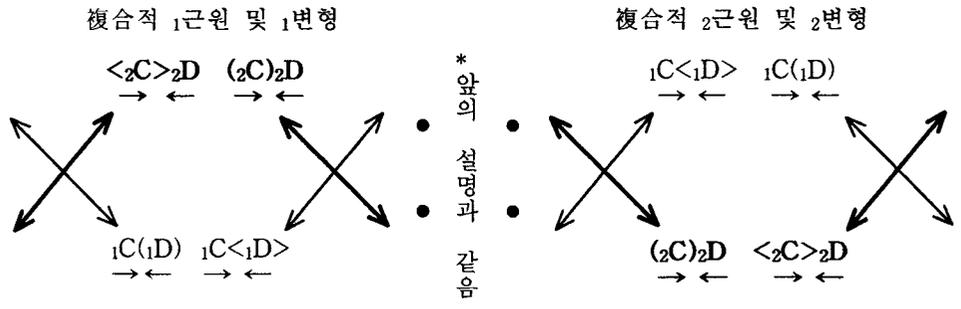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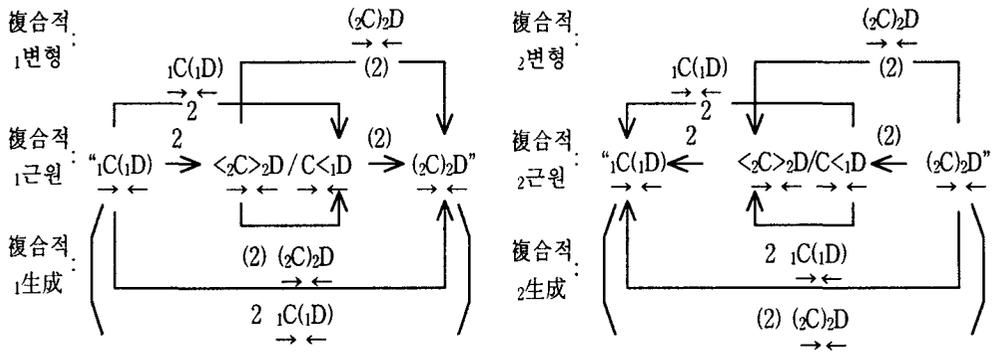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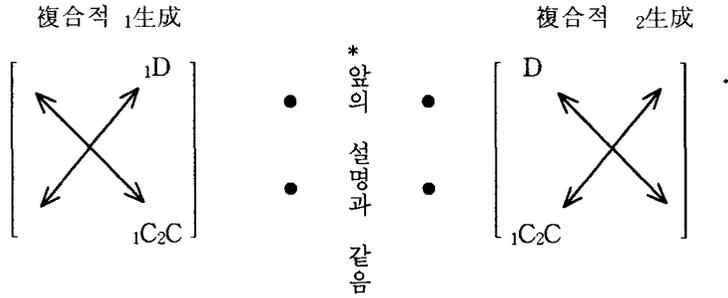
*앞 3의 괄호 안의 生成的 작 "[₁C → (₂C)] / [₁D] ← ₂D]"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위와 같이 근원으로 삼은 다음, ₁변형 = 1° / ₂변형 = (1°) 적으로 '작짓기 = 同形的 位置化'할 때 그 결과적 ₁生成 / ₂生成 단계가 아직 괄호안에 머물러 완료되고 있지 않은 과도적 변형단계 :



*앞 4의 맨끝 [괄호]안의 “ ${}_1$ 生成 $_2$ 적 근원/변형의 짝” : “[${}_1C \xrightarrow{1^\circ} ({}_2C)$]/[$({}_1D) \xleftarrow{2^\circ} {}_2D$]”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앞 4의 맨위의 ‘단일적 변형= $1^\circ(1^\circ)$ ’의 틀에 맞추되, 그보다 더 구체적인 ‘複合적 변형= $1(1)$ ’적으로 ${}_1$ 근원과 ${}_1$ 변형의 짝이 지어진 단계가 *위 “ ${}_1$ 근/ ${}_1$ 변”의 짝 단계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 ${}_1$ 근/ ${}_1$ 변”의 짝을 그와 逆方向(${}_2$ 근는 ${}_1$ 변을 ${}_1$ 근의 틀에 맞추어 ${}_1$ 근의 밑줄에다 배치=同形적 並置化=짝짓기 하고, ${}_2$ 변는 ${}_1$ 변과 그 外形이 같으나 그 實內容은 더 복합적, 구체적·生成적 성격을 띤다. 즉 ‘生成적 변형’으로서 ${}_2$ 근와 짝이 된다. *맨 위에 ${}_1$ 변 $_2$ 와 같이 ${}_2$ 변를 적은 것은 그 外形이 ${}_1$ 변과 같다는 뜻에서이다). 이 단계는 아래의 구체적·*적·의미적 複合단계(=근원 “=”과 변형 “*”의 非分析 단계)에 대하여 잠재적·=적·형태적 단계(=근원 “=”과 변형 “*”의 分析단계)가 된다.

*위 [괄호]안의 生成적 짝 “ ${}_2$ 근/ ${}_2$ 변”의 [괄호]를 벗기고 그것을 위의 틀에 맞추어 ‘구체적·複合적 변형= $2(2)$ ’적으로 ${}_1$ 근원 $_2$ / ${}_1$ 변형 $_2$ 의 짝을 지을 때, 그 결과적·生成적· ${}_1$ 근원 $_2$ / ${}_1$ 변형 $_2$ 의 짝 단계가 아직 [괄호] 안에 머물러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아래와 같은 과도적 변형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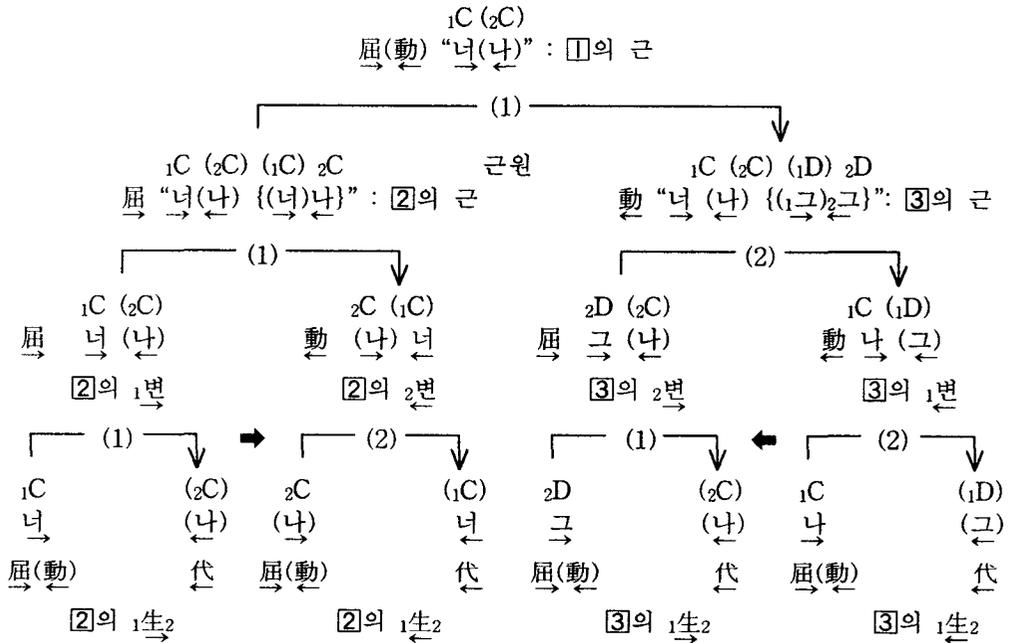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1)

*주의 : ㉠ - ㉡ ; 단일적

㉢ - ㉣ ; 복합적

*주의 : 아래 그림의 모든 화살표시는 同形적 人稱의 조직의 각각의 位置에서의 指示 → 被指示의 짝의 同形運動을 가리킴.

〈屈인칭〉



*아래

*아래

1生成 단계 이전의

2生成 단계 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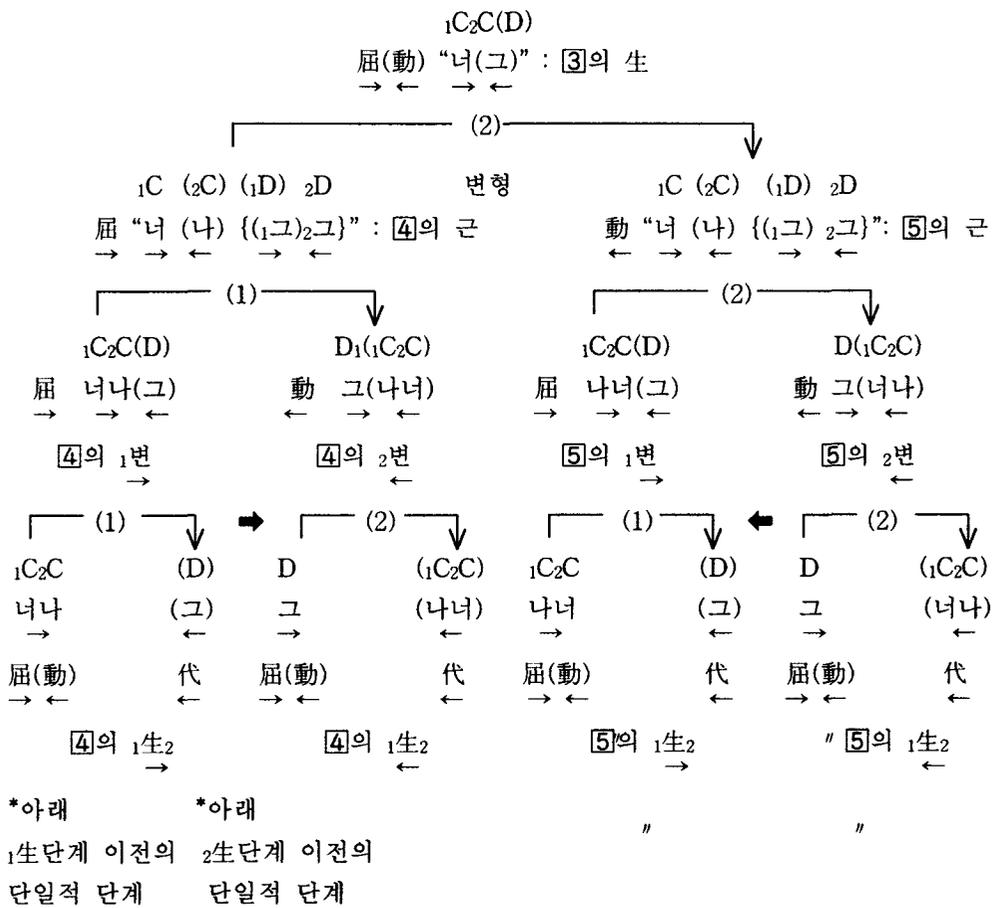
“

”

단일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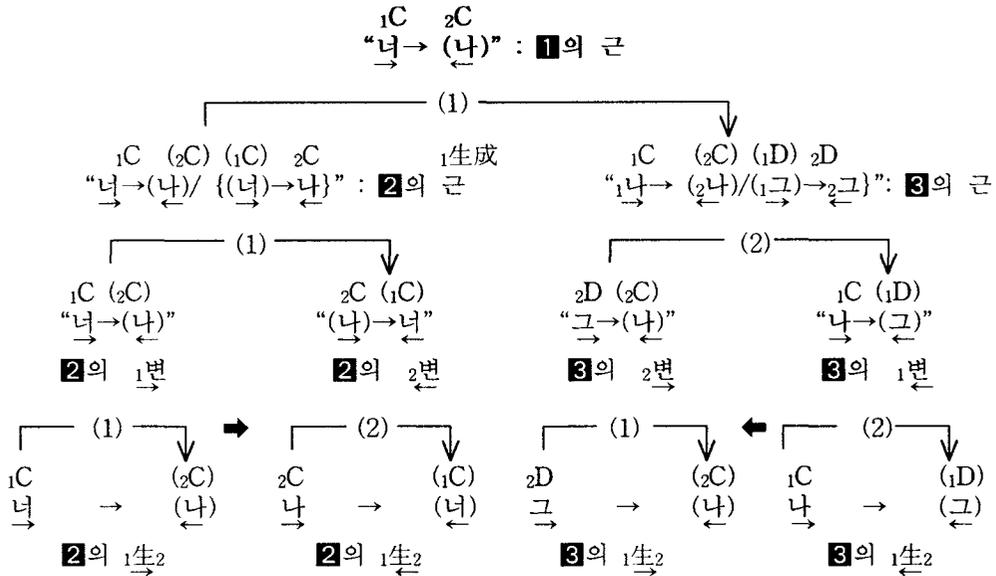
단일적 단계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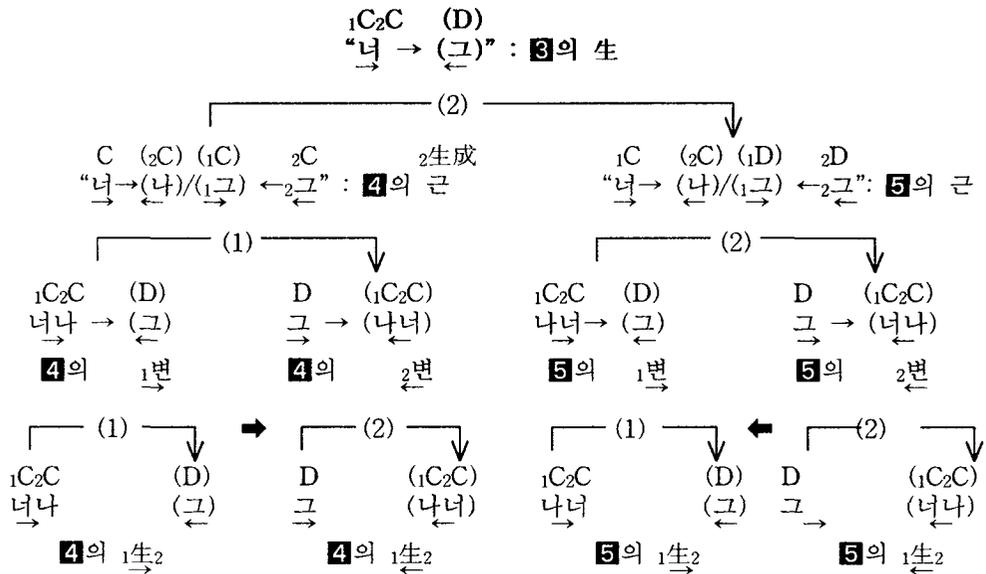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2)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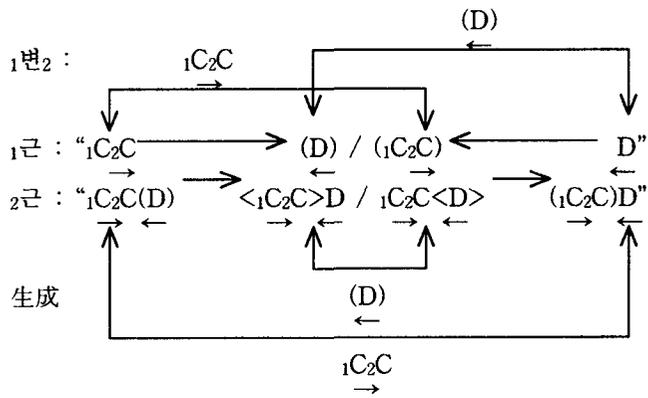


일반형태론(I)/(II)/(III)의 同形의 조직:

• 일반 人稱 音韻論 단계 :

*주의 : *앞 5를 이론단계의 複合적 表記로 잡을 때 그 生成단계를 근원으로 하는 言語단계로서 일반人稱 音韻論단계表記임.

*주의 : *앞 5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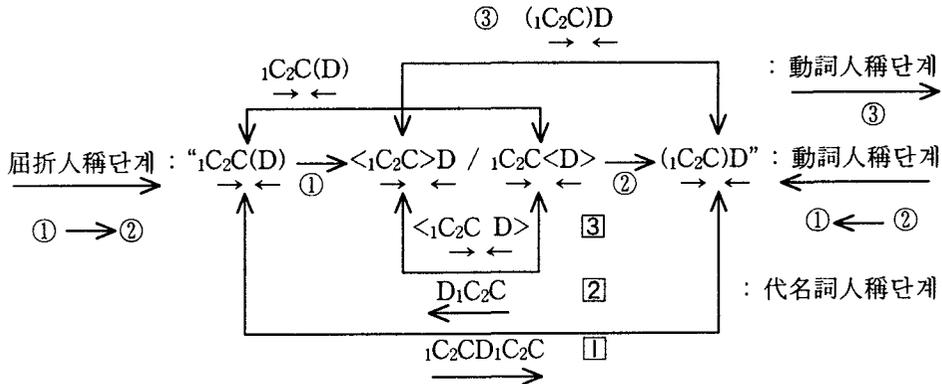


• 일반 형태론(I)/(II)/(III)단계 :

(I)단계 : 屈 → 動 →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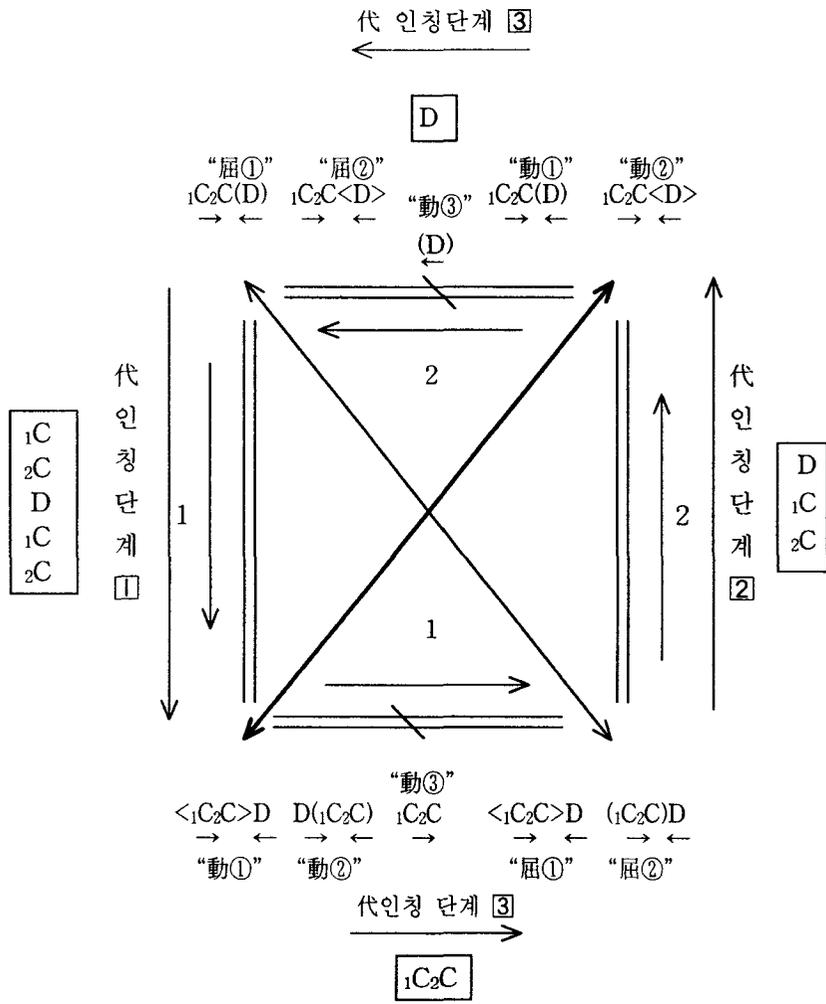
(II)단계 : 屈 ← 動 ← 代

(III)단계 : 代 인칭단계의 3을 근원=屈인칭적 대명사로 하는 複合적 屈 (근원) → 動(변형) → 代(생성)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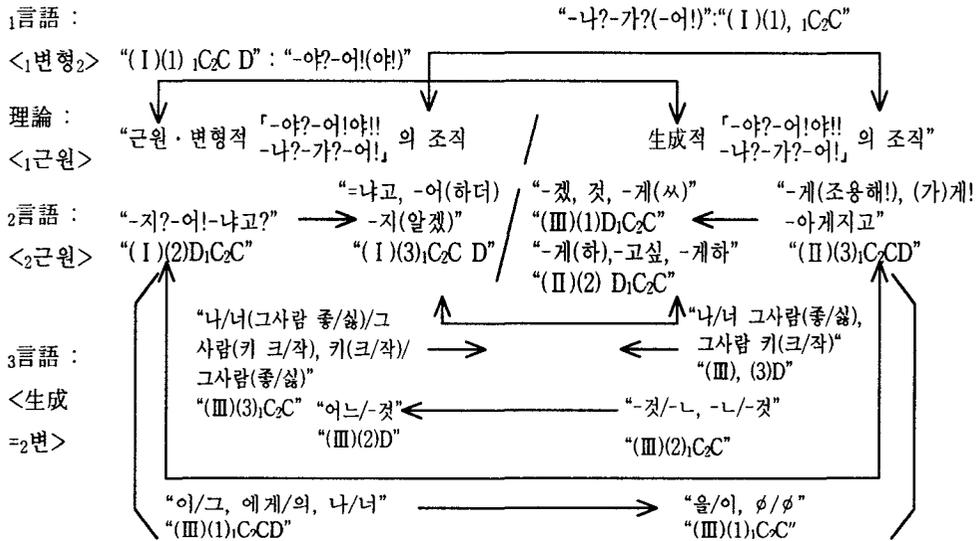
*주의 : 이 대각선의 순서는 左邊 ↘ = ↓ ↑ ; 右邊 ↗ = ↑ ↓ ; || || (먼저) / ≡ (나중)
 ① ② ② ①
 ① ① ① ②

숫자표시 1/2의 순서로 읽음.



單一적 일반형태론(I)/(II)/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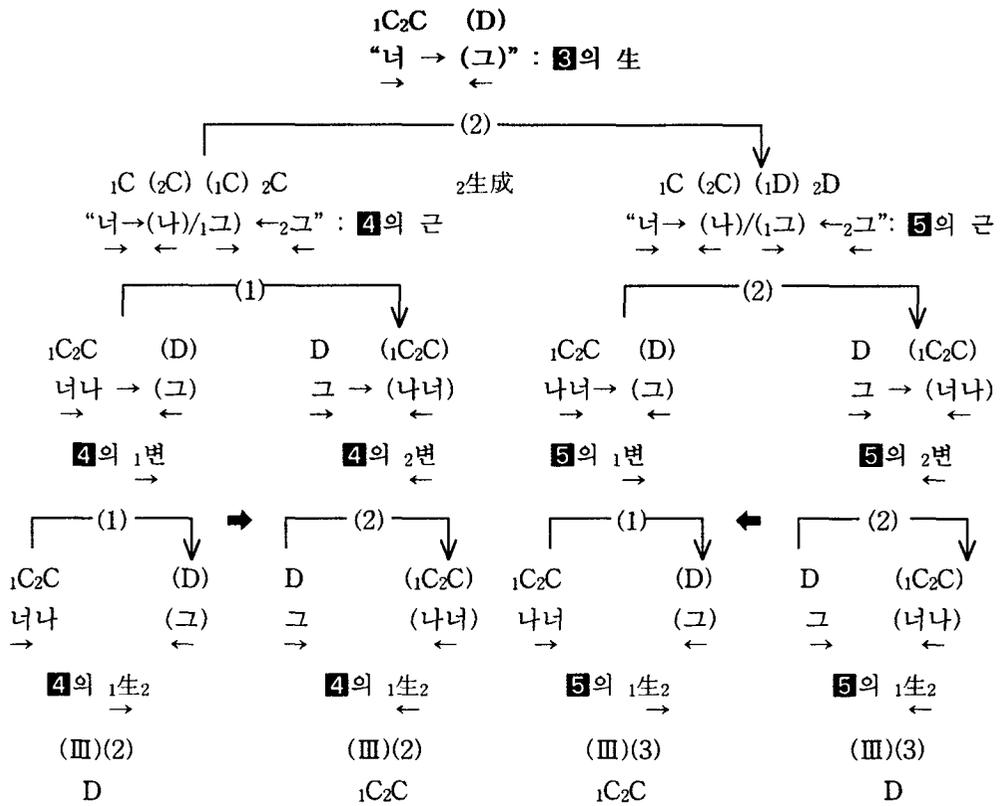
*주의 : 앞 5참조 ; 아래 그림 안의 記號들은 “일반형태론” 안에서의 각각의 位置를 가리킴(*앞 引用本 : 「理論言語學.....」, pp. 357-364 등 참조).



*앞 일반 인칭 음운론 단계의 生成단계를 근원으로 잡고 그것을 앞 5와 같은 방법으로 근원/변형([괄호]안의 生成적 근원/변형 포함)으로 짝짓기(=同形적 並置化)할 때 그 결과적 生成적 2근원=2言語/변형=3言語의 짝 단계가 아직 [괄호] 안에 머물러 완료되지 않고 있는 *위와 같은 單一적 과도변형단계 및 *위 [괄호]안의 生成적 짝 “2근=2言” / “2변=3言”의 [괄호]를 벗기고 그 짝을 위의 틀에 맞추어 그와 逆方向의 더 구체적·複合적·‘1근원/1변형’의 짝을 지을 때 (= [괄호]안의 맨 위 “→ ←” 단계가 근원, 다음의 “←” 단계가 변형, 맨 밑의 “→” 단계가 生成이 될 것임), 그 결과적·生成적·‘1근원/1변형’의 짝 단계가 아직 [괄호]안에 머물러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일반형태론의 대명사 인칭단계 = 일반형태론(III)의 직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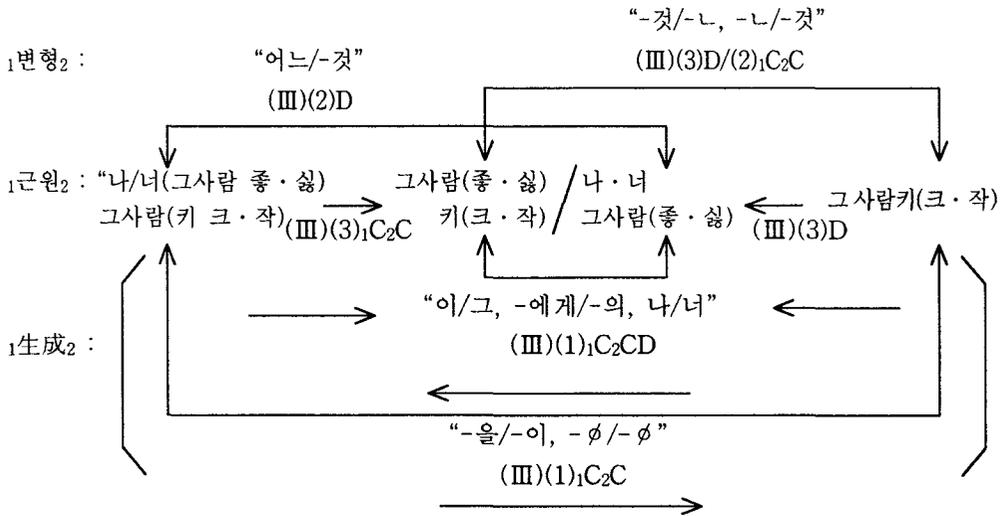
*그 틀은 앞 5참조.

〈動인칭〉



複合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주의 : *앞 “單一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의 單一적 과도 변형 단계 참조.



*주의 : *뒤 : “**1** → **5**” 식 人稱표기 참조.

複合적 일반형태론 (I)/(II)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에서 “너”->나/너 ; “나”->그 ; “그”->나/너로 바뀌어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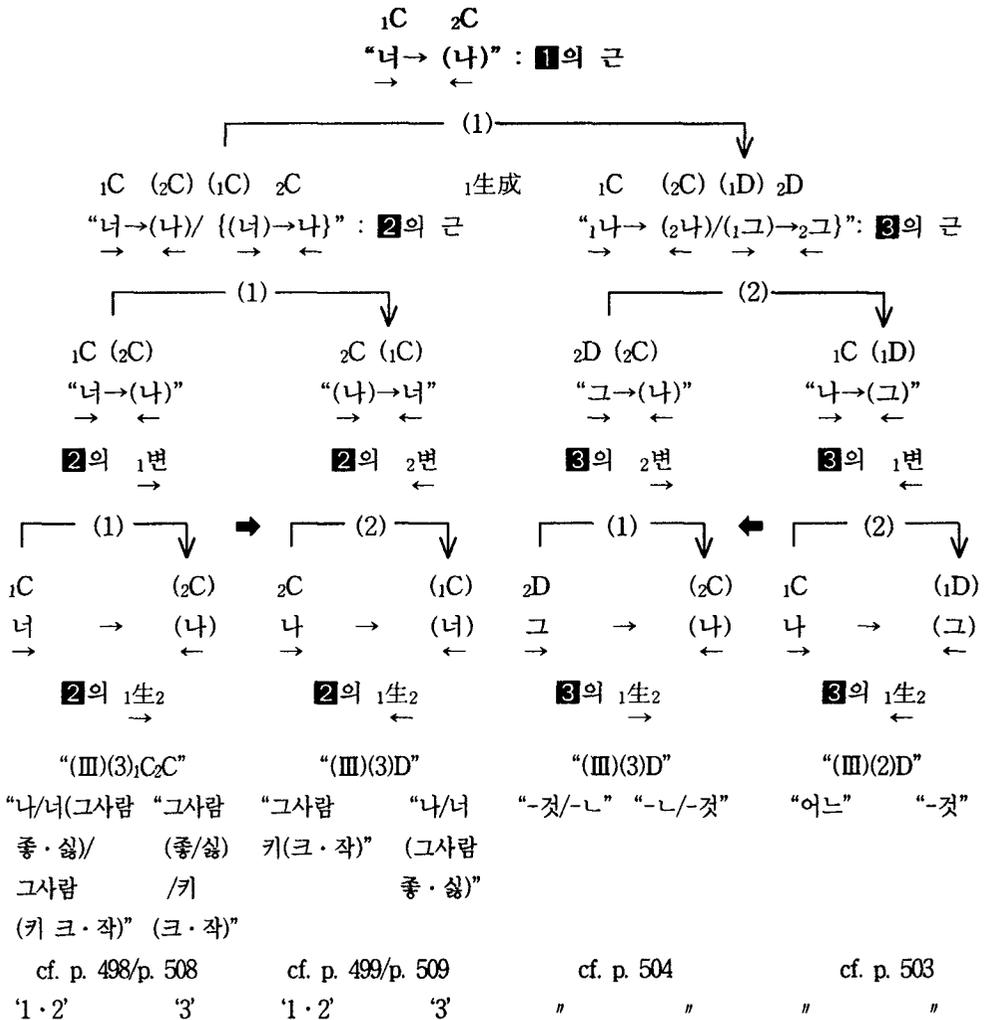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일반형태론(1)/(II)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주의 : *아래 표기에서 “너”->나/너 ; “나”->그 ; “그”->나/너로 바뀌었음.

*주의 : *아래 “1生2”의 言語의 예는 *앞 引用本 : 『理論言語學 ...』에 의함 ; ‘1, 2’ 등 표시는 ‘나무그림의 마디’를 가리킴(이하 모두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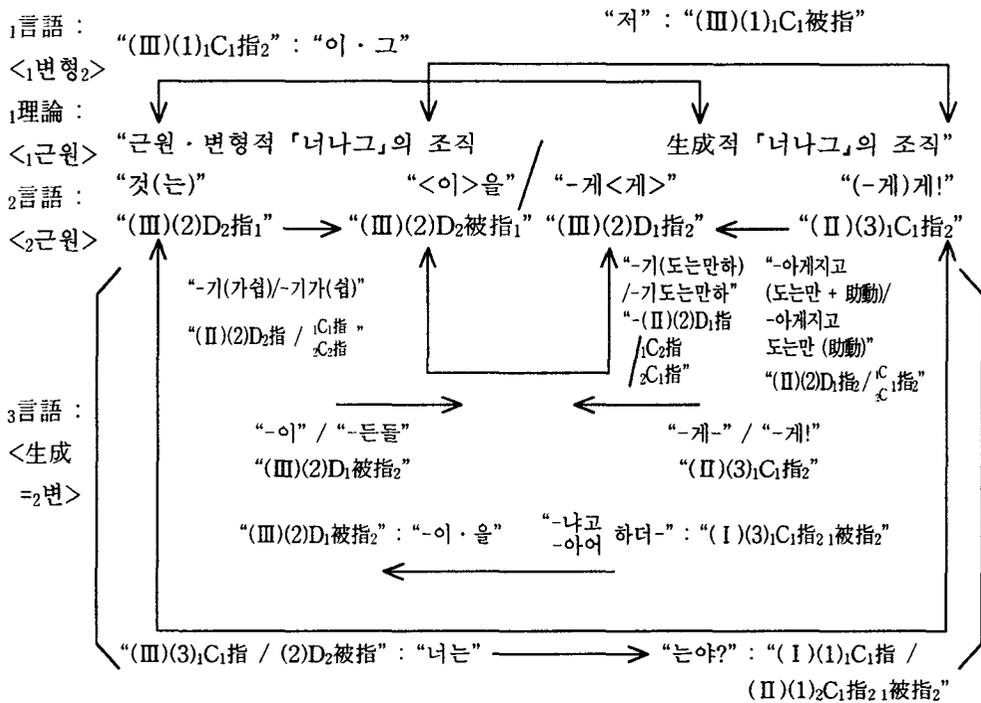
<屈인칭>



單一적 일반형태론(Ⅲ)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주의 : *앞 “複合적 일반 형태론 (Ⅰ)/(Ⅱ)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참조.

*앞 (Ⅰ)/(Ⅱ)단계와 그 원리는 같되 다만 그 변형의 度를 달리하는 單一적 과도 변형 단계 및 *위와 원리는 같되 변형의 度가 더 구체적 複合적인 複合적 과도변형단계 =複合的 일반형태론(Ⅲ) 단계 직전단계.



*주의 : *뒤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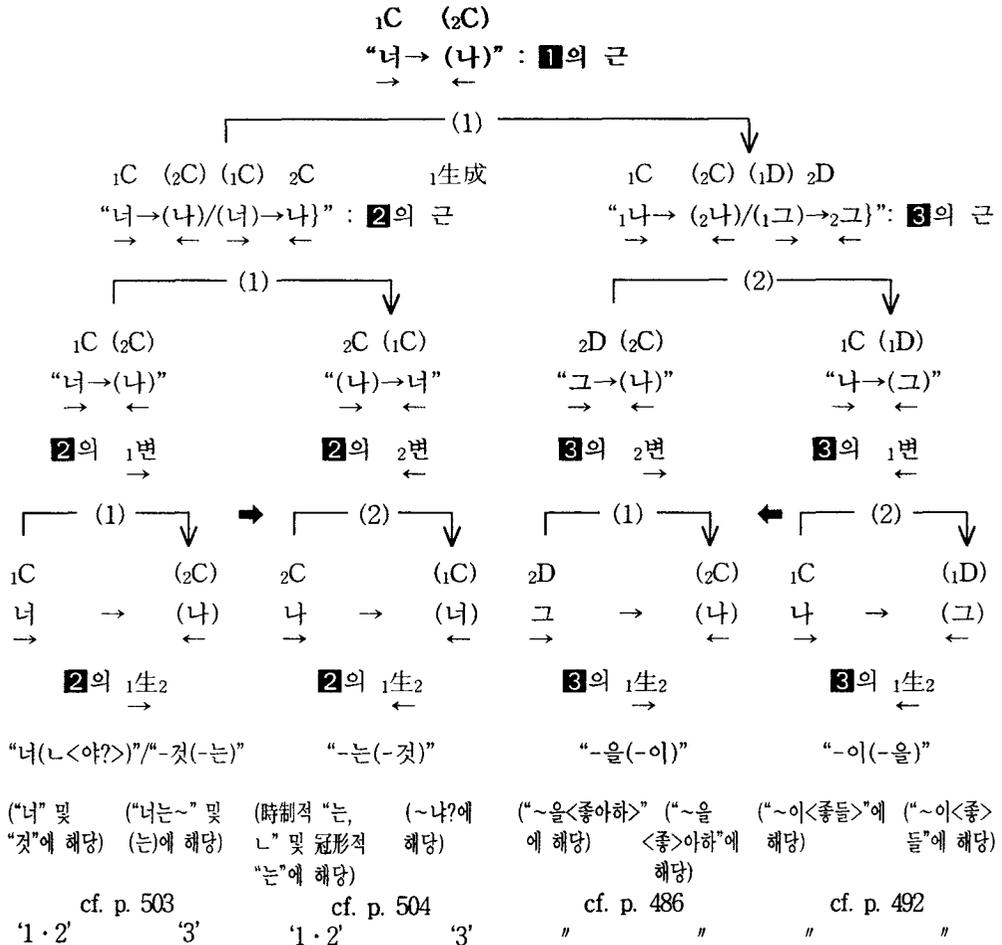
單一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그림 각각의 맨 밑의 1生2의 “너/나/그”=“이/그/저”로 바뀌어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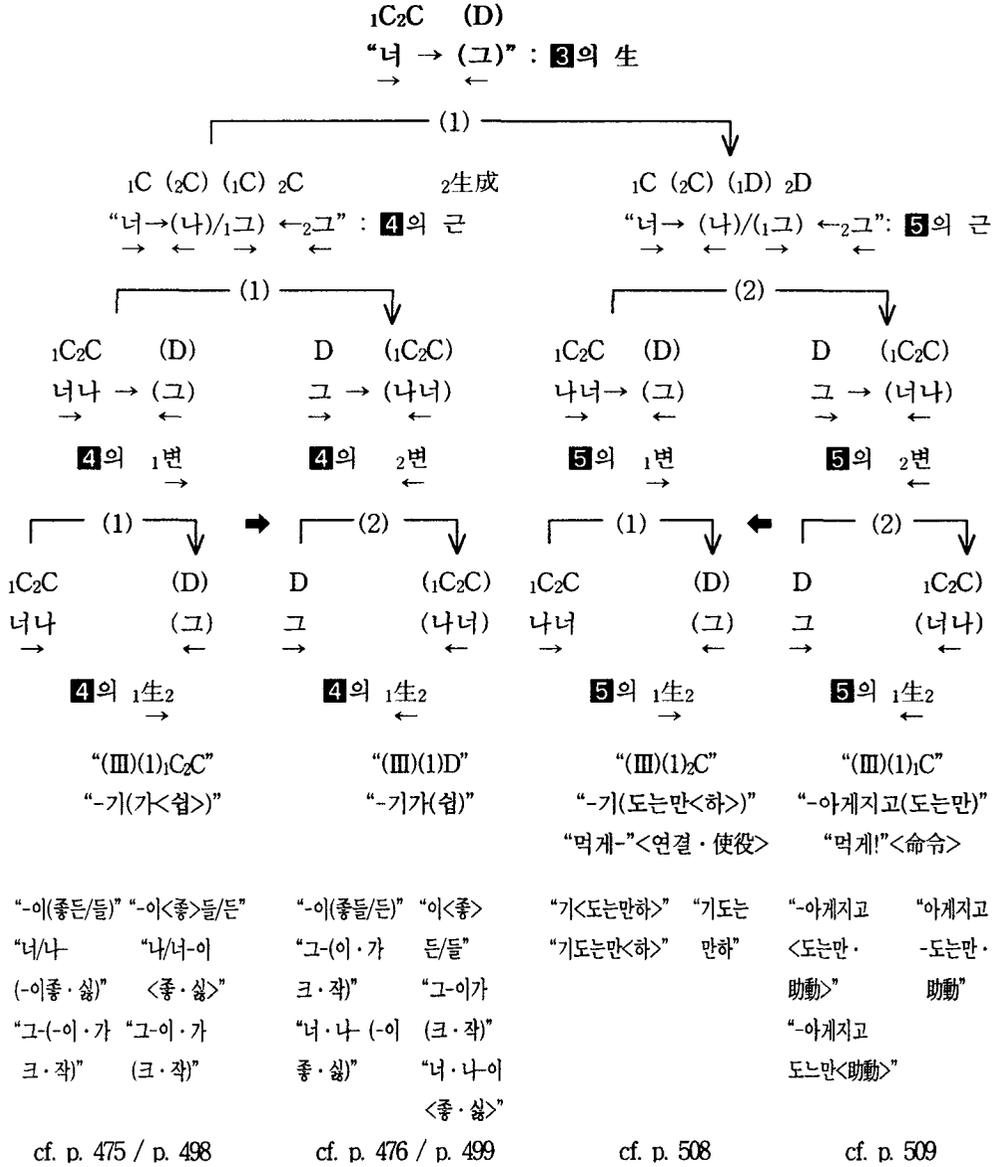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單一적 일반형태론(III)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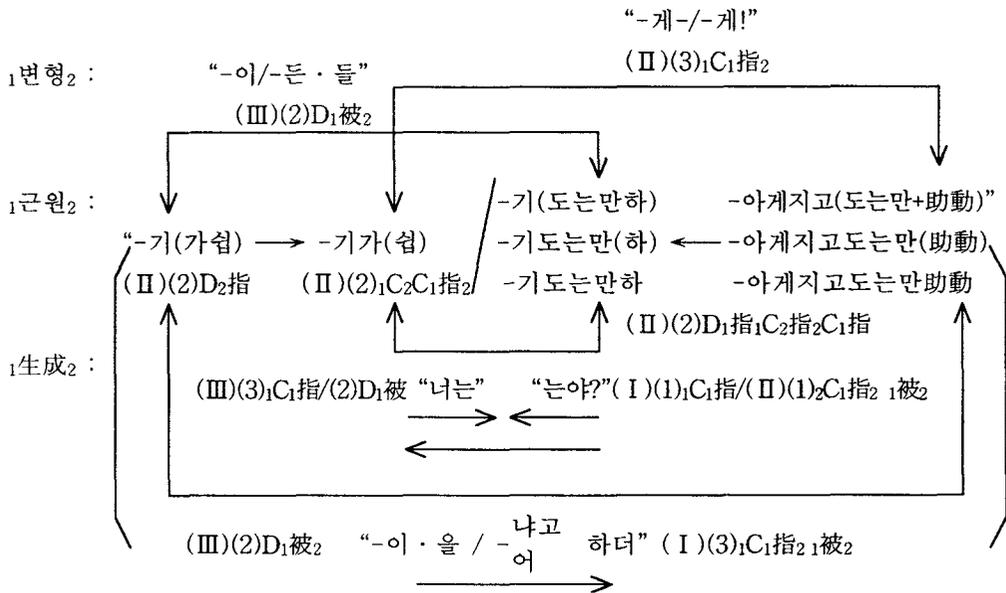


〈動인칭〉



複合적 일반형태론(Ⅲ)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주의 : *앞 “일반 형태론(Ⅲ)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의 ↑ [] 안의 生成 단계의 []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begin{matrix} \downarrow \text{근} \\ \downarrow [\text{生}] \end{matrix}$ 변으로 한, *뒤 單一적 內部동사론 (Ⅰ)/(Ⅱ)단계의 직전단계:



*주의 : *뒤 ❶ → ❺ 식 人稱표기 참조.

複合적 일반형태론(Ⅲ)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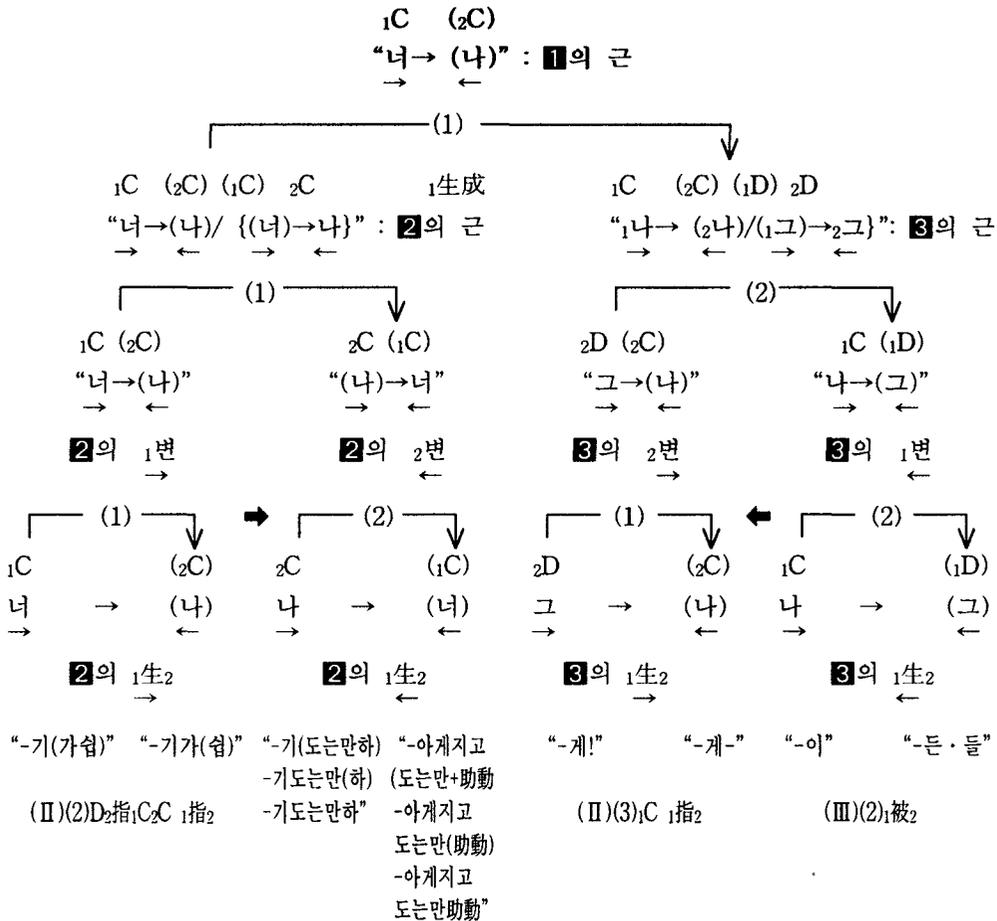
*주의 : *앞 “單一적 일반형태론(Ⅲ) 단계”에서와 같이 아래 표기에서 너→“이” ; 나→ “그” ; 그→“저”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一般형태론(III)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組織 (2) :

*주의 : *앞과 같은 주의.

〈屈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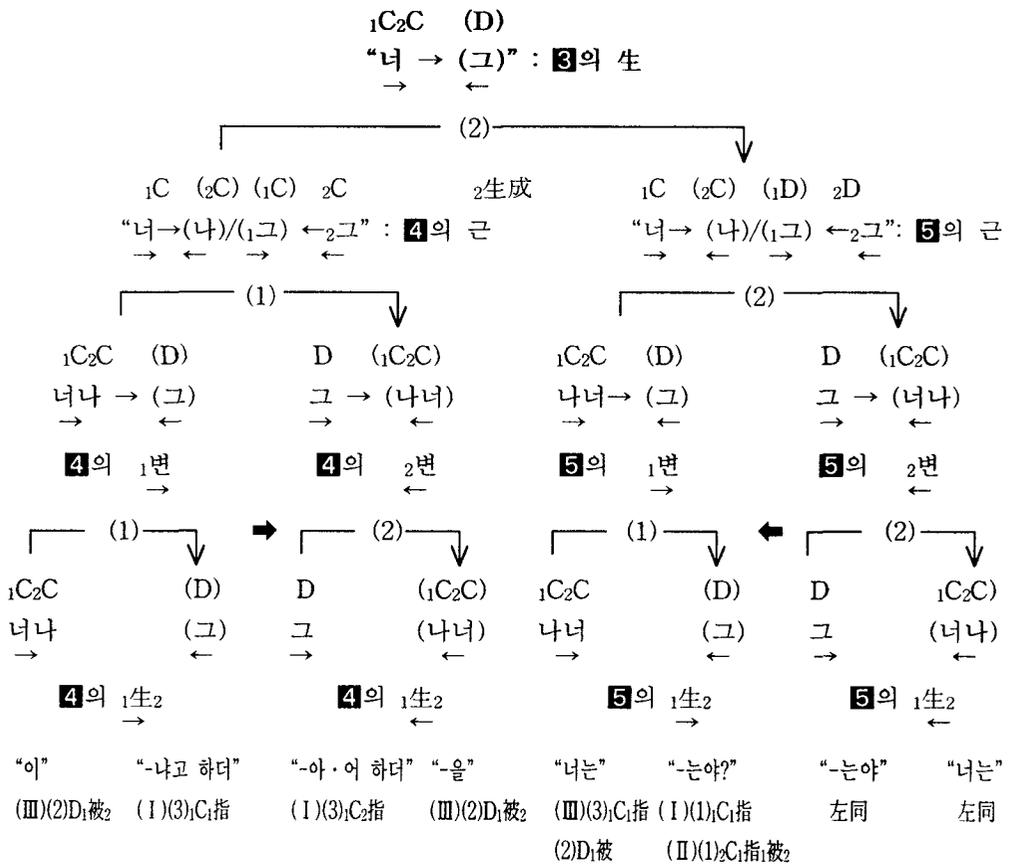


“-기(가쉽)” “-기가(쉽)” “-기(도는만하)” “-아게지고
-기도는만(하) (도는만+助動
-기도는만하” -아게지고
도는만(助動)
-아게지고
도는만助動”

(II)(2)D₂指₁C₂C₁指₂ (II)(3)C₁指₂ (III)(2)₁被₂

(II)(2)D₁指₁C₂指₂C₁指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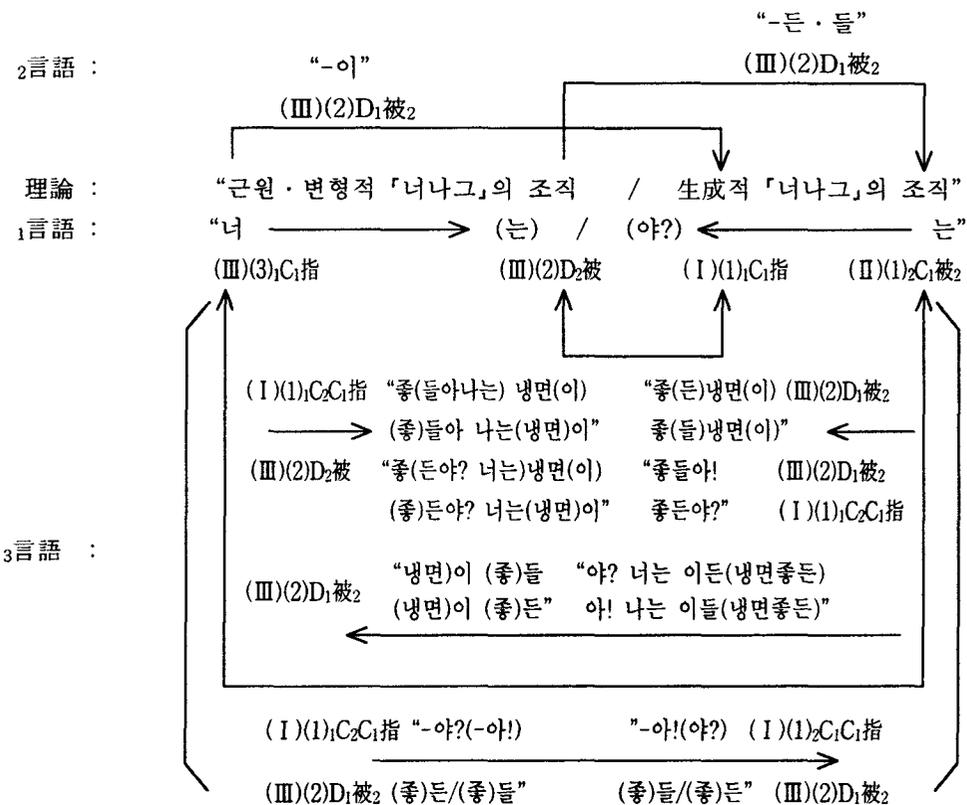


單一적 内部통사론(I)/(II)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複合적 일반형태론(III)단계”의 ↑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 變으로 한, *뒤 複合적 内部통사론(I)/(II)단계의 직전단계(*주의: ↓[生])

*앞 5에서 본 바와 같이 變형과 生成은 그 外形이 같으므로 그 중에서 이 단계 즉 말이 되는 言語化의 첫 단계로서의 主觀動詞文단계에 맞는 變형 즉 “-이/든·들”을 택한다.)

*주의 :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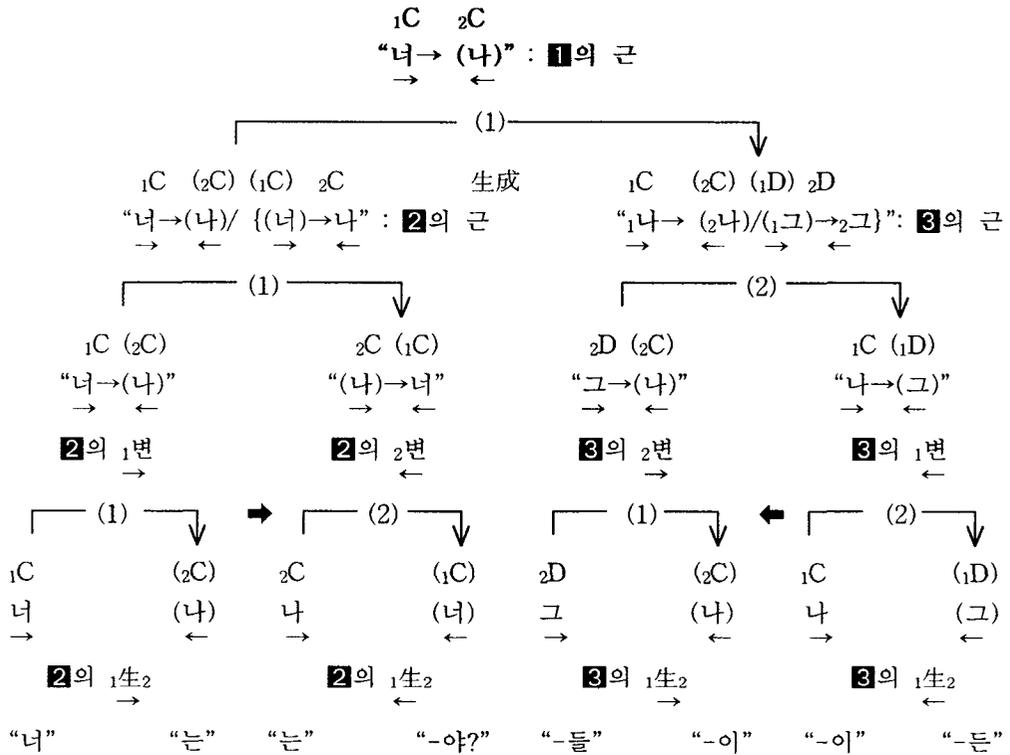
單一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이 ; “나” → -든, 들 ; “그” → -이든들 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單一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複合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橫對角線적 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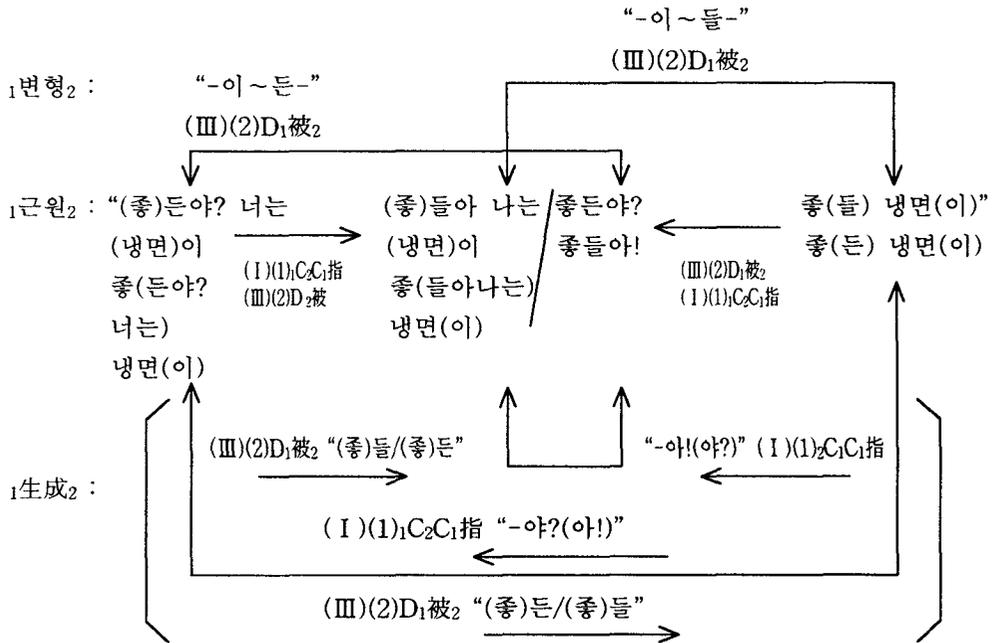
*앞 “單一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근 변으로 한, *뒤 單一적 內部통사론(III)단계 직전단계.



*주의 : 변형은 *앞 단계의 []안의 ↓^근 변의 “변” 중에서 複合助詞적 “-이 ~ 든 / -이 ~ 들”을 택함.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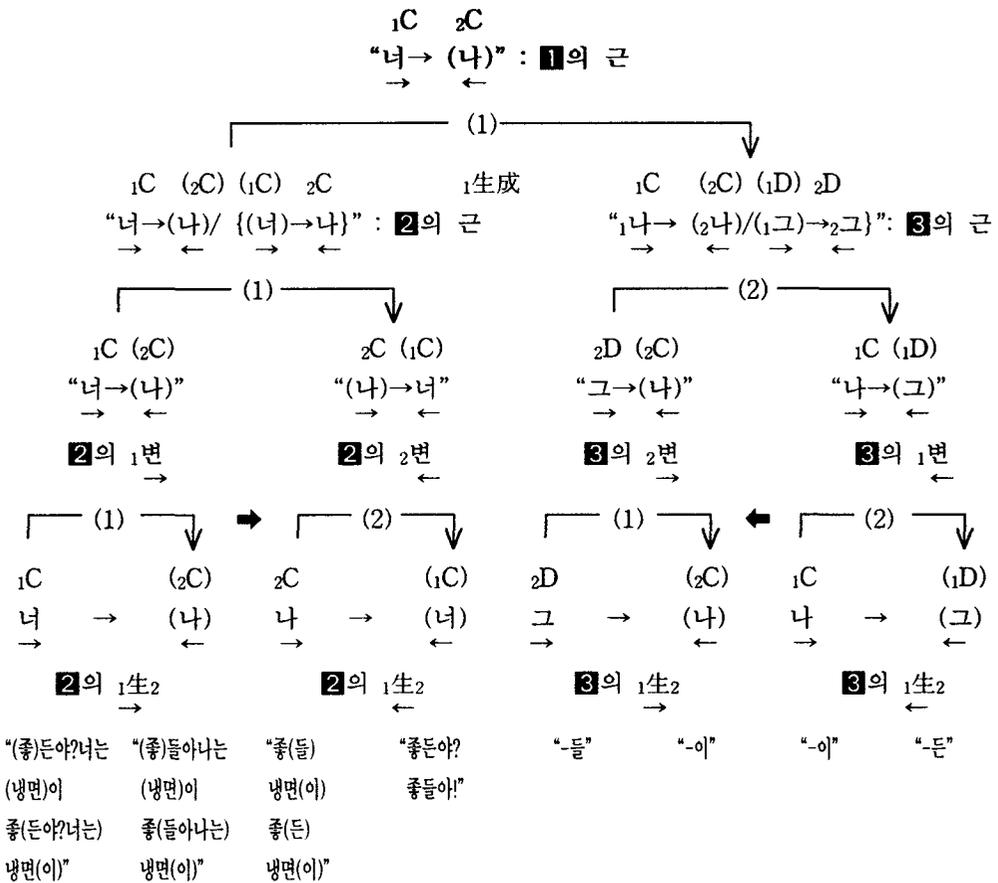
複合적 內部통사론(I)/(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₂에서 “너” → -이든 ; “나” → -이들 ; “그” → -이든들 로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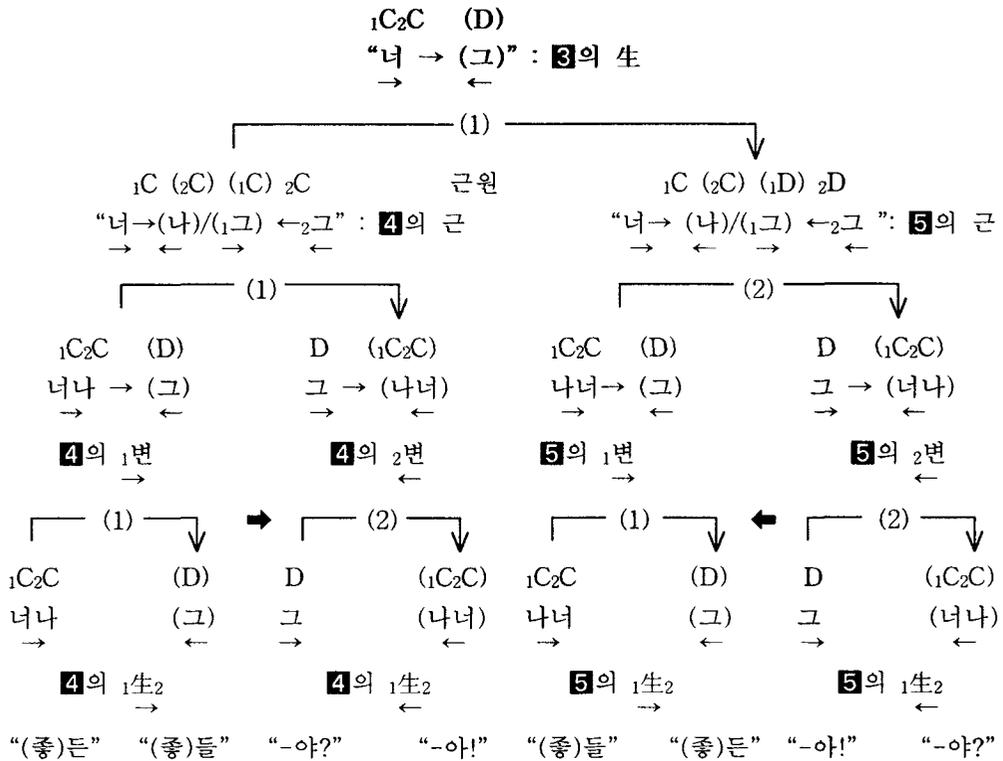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内部통사론(I)/(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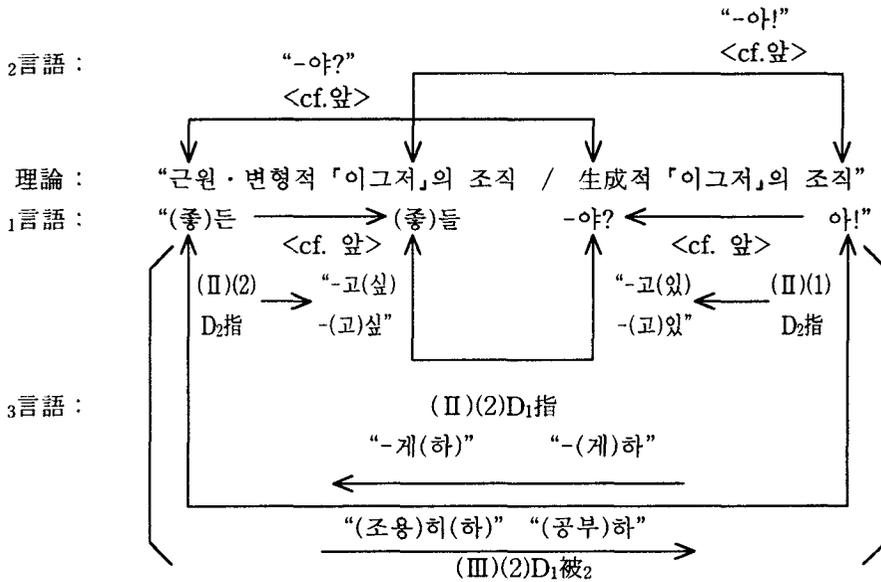
單一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複合적 內部통사론(Ⅰ)/(Ⅱ)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기고 그 順序를 그

와 逆方向의 ↓^근 변으로 한, *뒤 “複合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직전단계.
↓ [生]

*주의 : [] 안의 “조용히하/공부하” “-게하”는 “-아!”적(=“저”적)動詞에 해당하고,
“-고싶/-고있”은 “-아?”적(=“이·그”적)動詞에 해당됨.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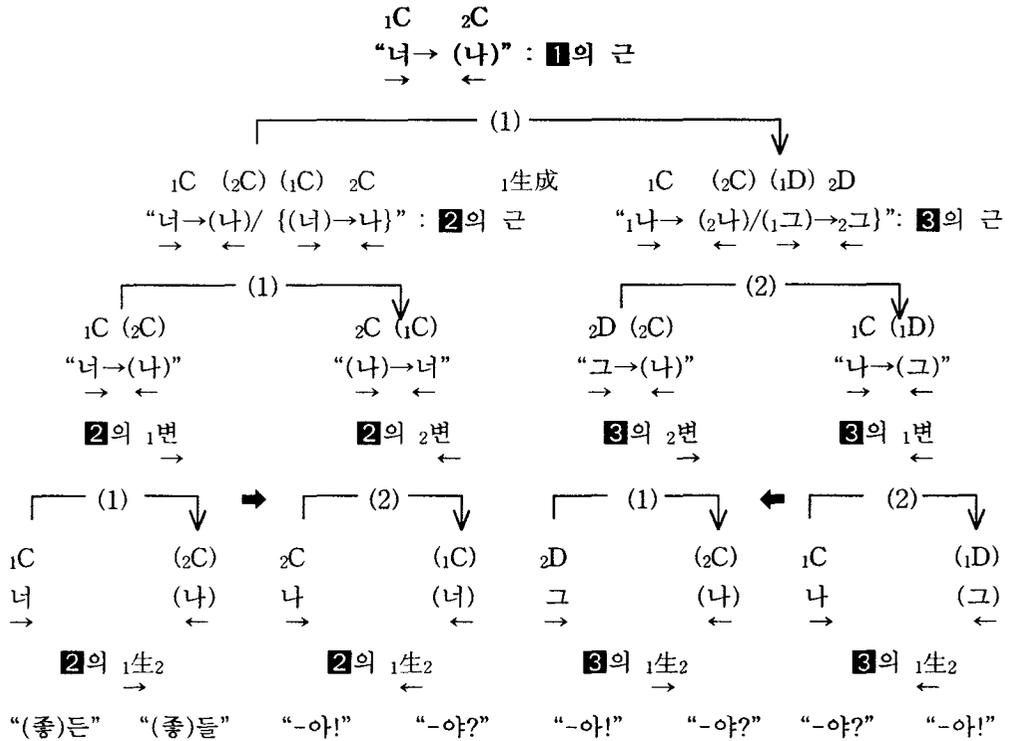
單一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아? ; “나” → 아! ; “그” → 아?야! 로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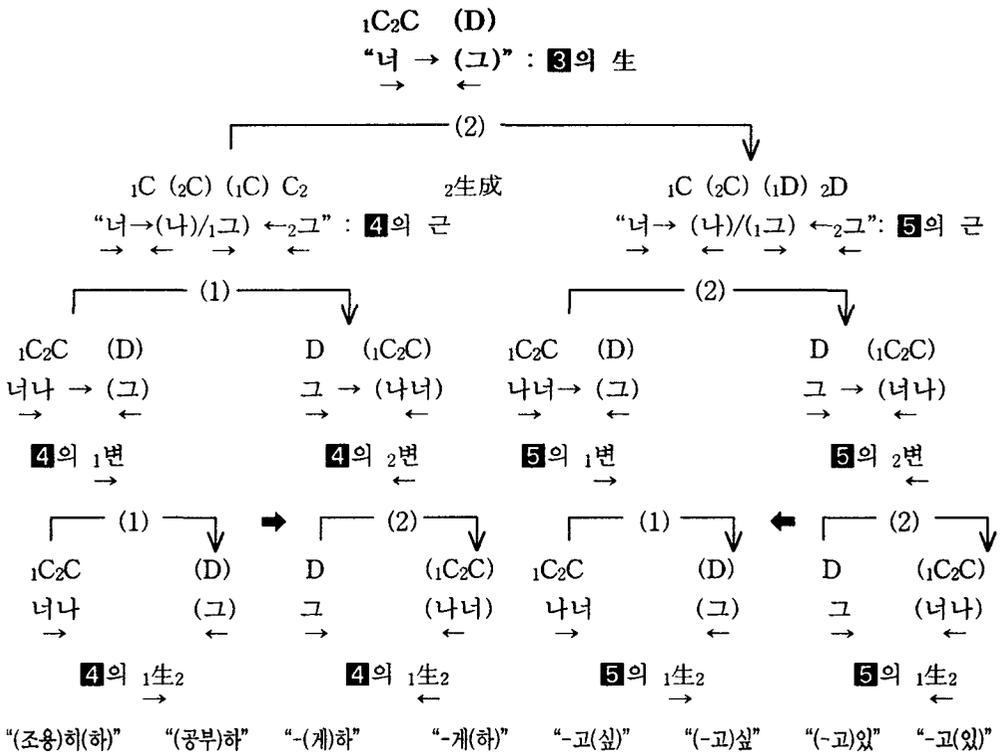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單一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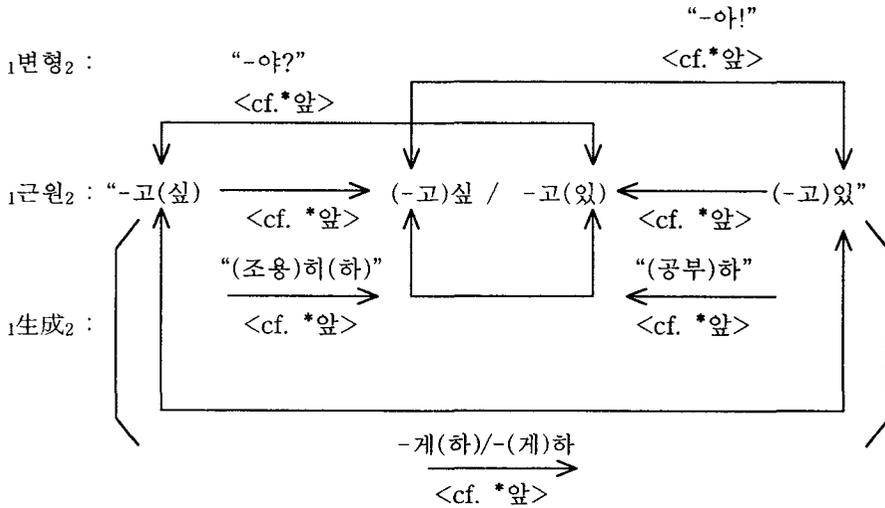
複合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單一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 []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어나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begin{matrix} \downarrow \\ \text{변} \\ \downarrow \\ \text{[生]} \end{matrix}$ 으로 한, *뒤 “外部통사론(Ⅰ)/(Ⅱ)단계”의 직전단계.

*주의 : []안의 “(조용)히(하)/(공부)하”는 “-야?”적(=“이그”적)動詞에, “-게(하)/-(계)하”는 “-아!”적(=“저”적)動詞에 해당함.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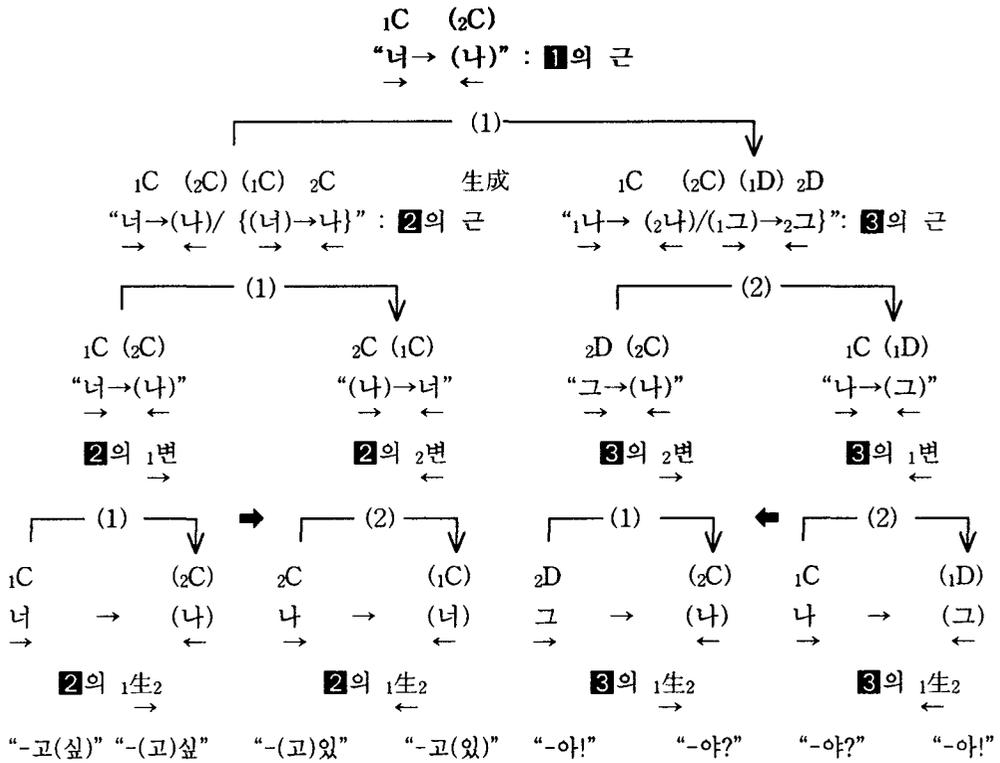
複合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야? ; “나” → -아! ; “그” → -야?아! 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内部통사론(Ⅲ)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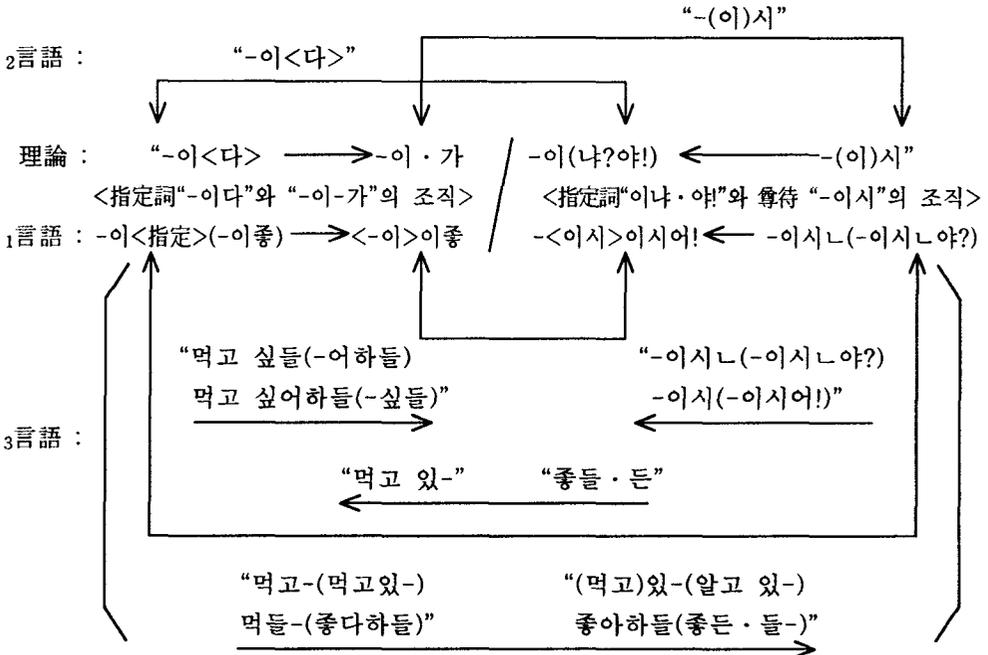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複合적 内部통사론(Ⅲ)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어나고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
 變으로 바꾼, *뒤 “複合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직전단계.
 [生]

*주의 : *앞 단계의 “(조용)히(하)/(공부)하”는 각각 “尊待零(0)적·이<다>적 「-든·들」 動詞/「-고」 動詞”로 바뀌고, “-게(하)/-(게)하”는 “尊待有적 「-시」 動詞/尊待零적 「-고·-들」 動詞”로 바뀐.

그 “바뀐”의 첫째 이유는 이 단계가 “尊待”의 출발단계여서, 그 尊待의 근원이 되는 動詞가 指定詞 「이(다)」라는데 있고, 둘째 이유는 이 단계의 外形상의 「근원」이 되는 *앞 “單一적 内部통사론(Ⅲ)단계”의 生成단계가 “「-고」 動詞/「-든·들」 動詞”의 조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앞 참조).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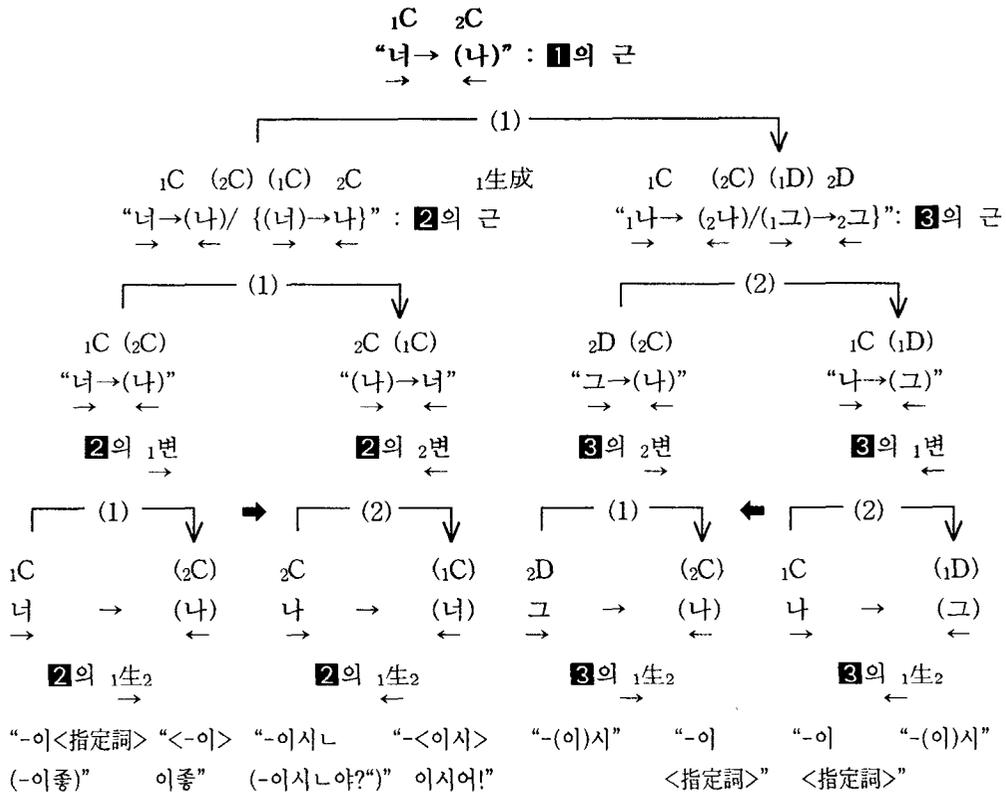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이(다) ; “나” → -(이)시 ; “그” → -이시 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單一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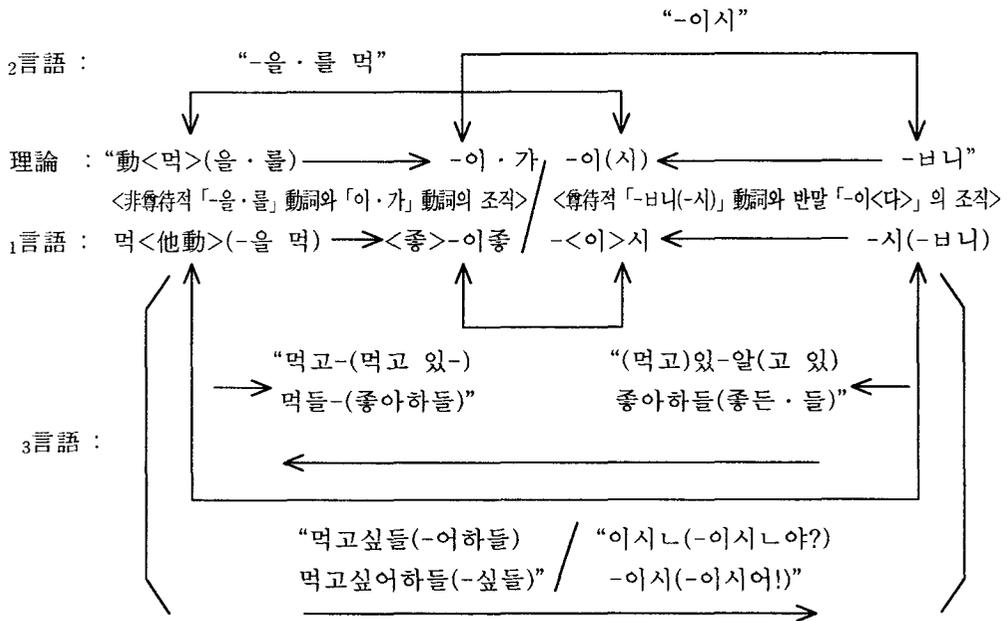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 “單一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begin{matrix} \downarrow \\ \text{[生]} \end{matrix}$ 近 변으로 바꾼, *뒤 “外部통사론(II)단계”의 직전단계.

*주의 : *앞 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변형”(맨 밑에서 둘째의 ←단계) 즉 : “먹고 있-/좋들·든”은 각각 새로운 “변형” : “-을·를(먹)/-버니 -시”로 바뀜.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의 “理論”단계에서 「반말」로서의 “-을·를”動詞와 “-이·가”動詞의 짝이 尊待로서의 指定詞 “-이(시)”와 “-버니”動詞가 이루는 짝과 짝을 짓고 있는데 있다.(그리고 그 “짝”은 *앞 단계의 “理論”의 具體化이다).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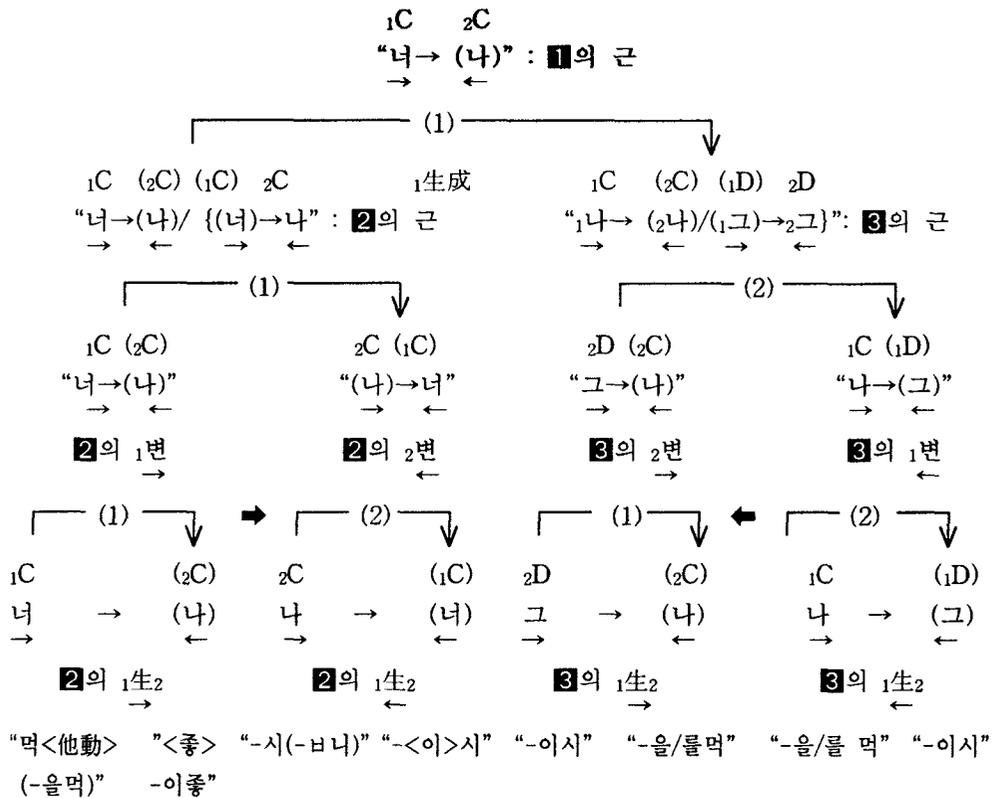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을, 를 먹 ; “나” → -이시 ; “그” → -먹들 로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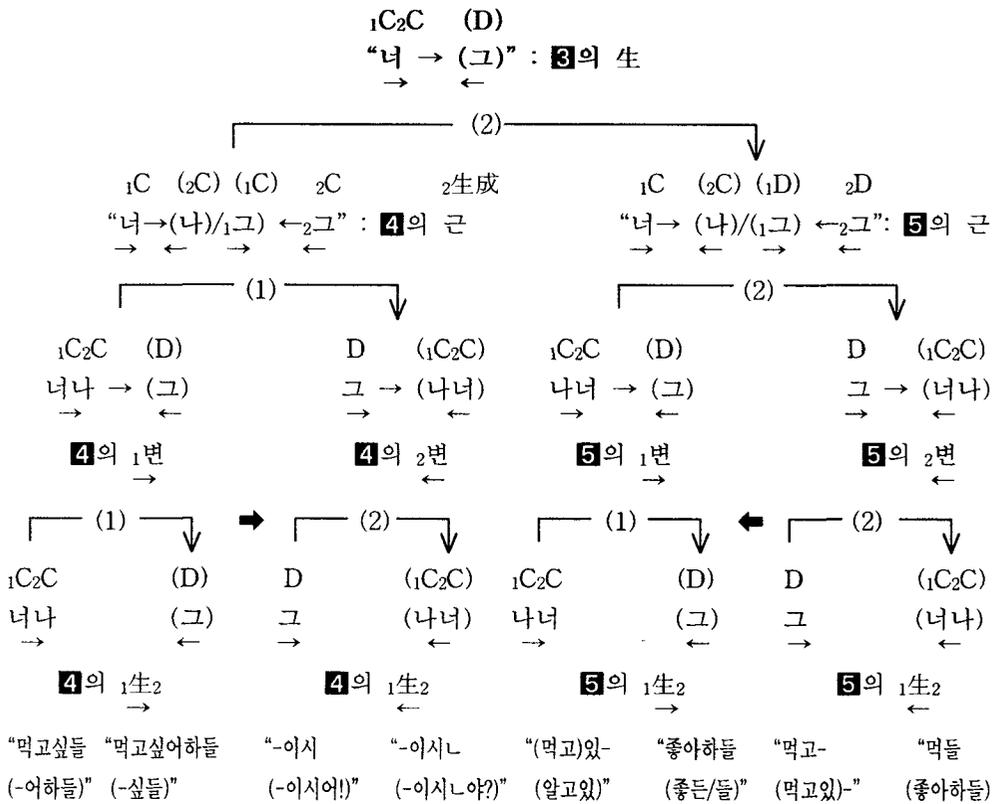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外部통사론(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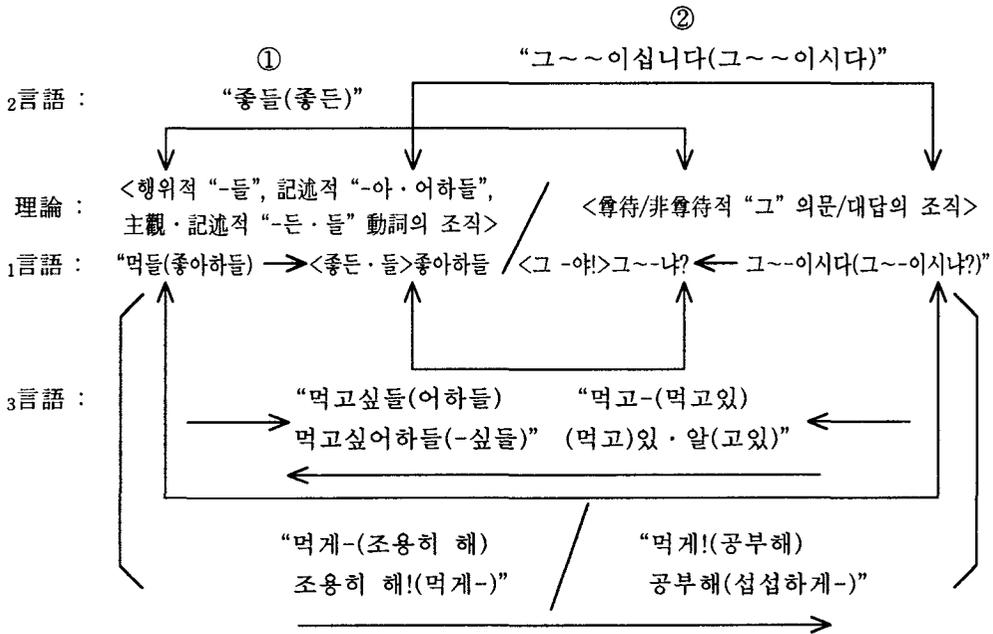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複合적 外部통사론(Ⅰ)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근변으로 바꾼, *뒤 “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직전단계.
↓[生]

*주의 : *앞 단계의 []안의 生成단계의 “生成”(↖↗의 左/右의 “→ ←”단계)은 각각 *아래 그림의 “理論” 및 “₁言語”단계로 바뀌고, “근원/변형”(맨 밑의 “↔”단계)은 각각 “/”右측의 “-이시-”는 “-게”動詞로, 左측의 “-고~들”은 “-고/-고~들”動詞로 바뀐다.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의 “理論”단계에서 “/”의 左측은 “행위→記述→主觀”의 조직이고 그 右측은 “그” 의문/대답의 조직이라는데 있다(그리고 이 左/右의 조직의 작은 *앞단계의 “理論”의 具體化이다).



*주의 : *위 그림의 “2言語”단계의 숫자표시 “①/②”는 “左 : 尊待이전단계=먼저 / 右 : 尊待단계=나중”의 순서 표시임.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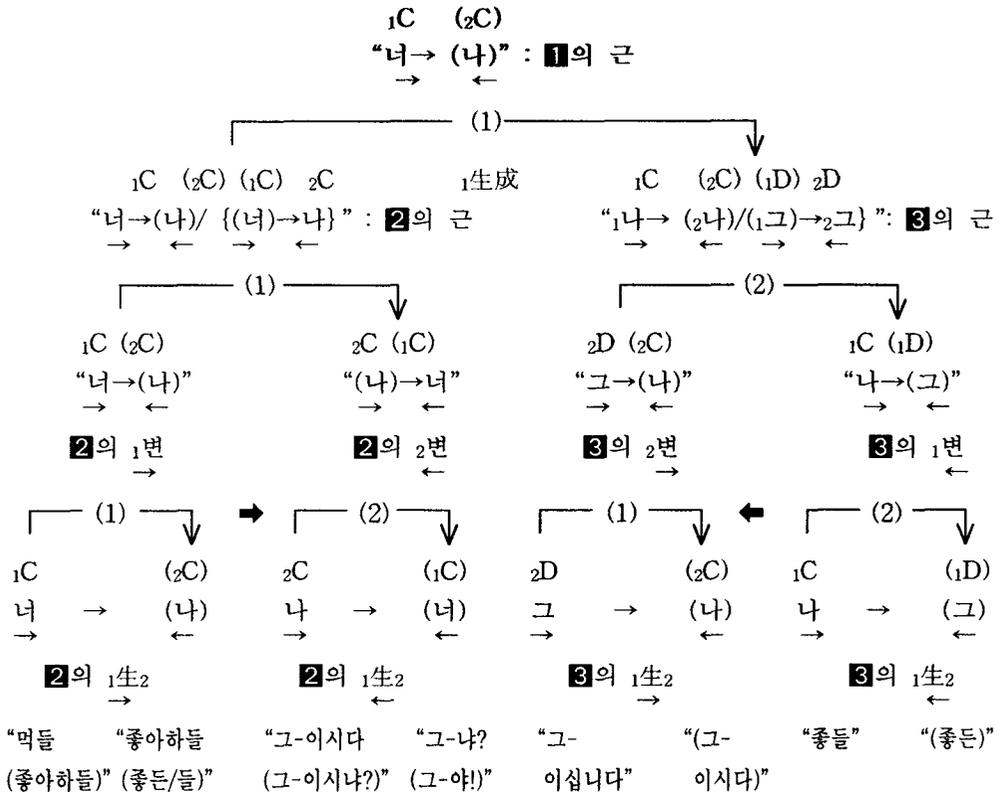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좋들 ; “나” → 좋든 ; “그” → 그-이십니다 (그-이시다)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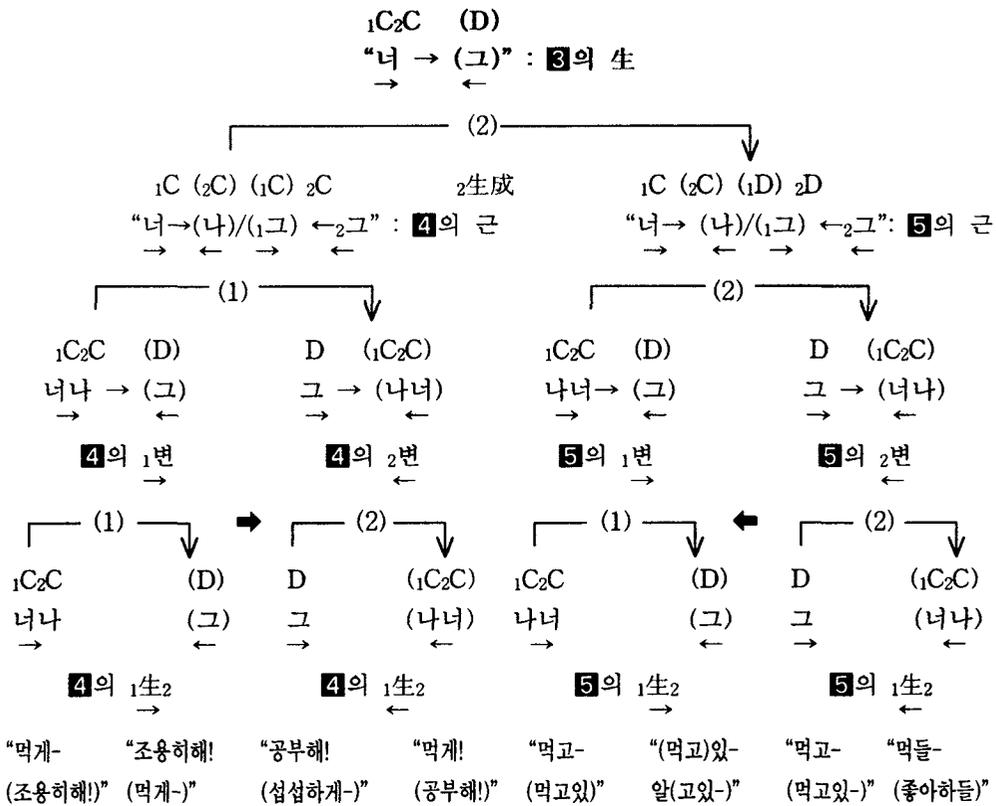
單一적 外部통사론(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屈인칭>



cf. <理論言語學...> p. 480이하.

〈動인칭〉



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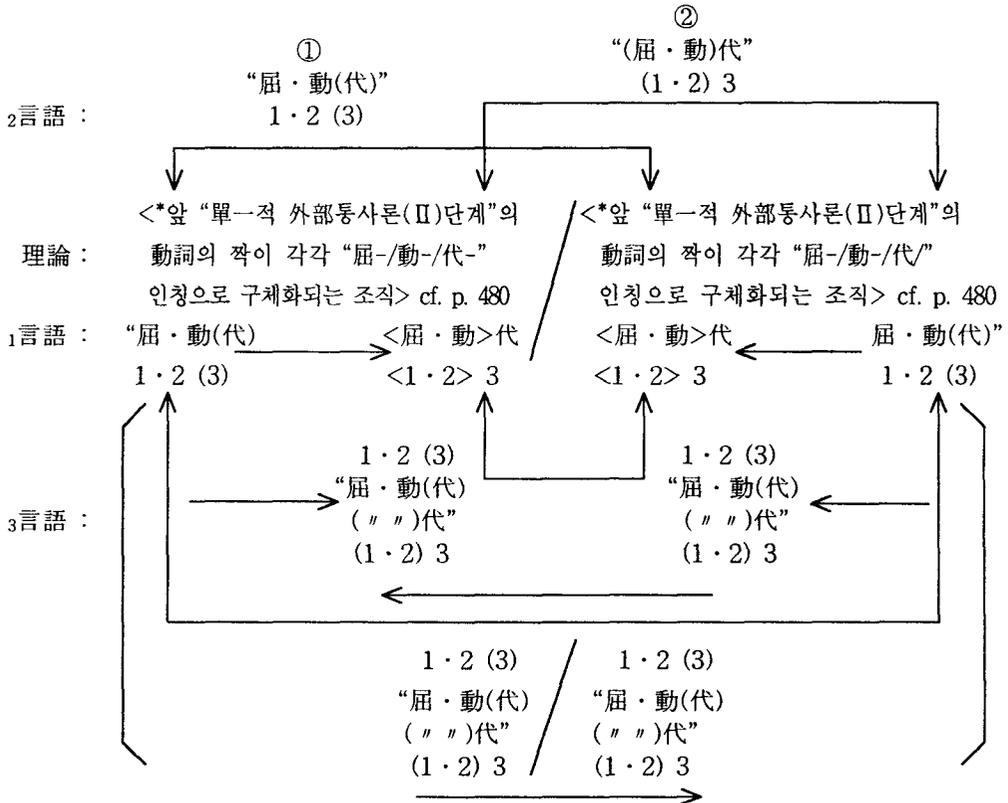
*앞 “單一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각 項目을 屈=1/動=2/代=3人稱化 시킨, *뒤 “單一적 外部통사론(Ⅲ)단계”의 직전단계.

*주의 : “理論言語學…” p. 480 및 그 이하 참조.

“屈 動 代”

“1 /2 /3”의 숫자표시는 나무그림의 마디를 가리킴.

“言語”단계의 “①/②”숫자표시는 “左=존대이전=먼저/右=존대=나중”의 순서표시임(*이하 모두에 해당됨).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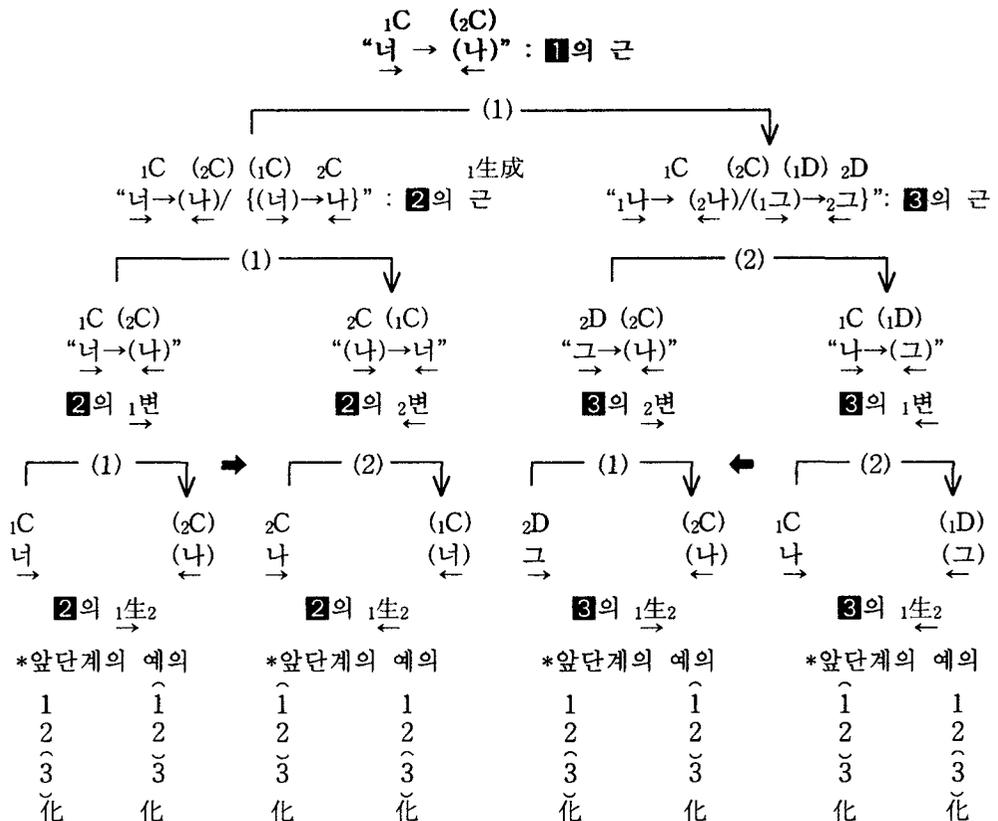
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 *주의 : 아래 표기 1生2에서 “너” → 屈·動(代) ; “나” → (屈·動)代 ; “그” → 屈·動(代) 로 읽음.
- *주의 : 이 단계는 “근원/변형”단계와 “1生成/2生成”단계가, 그 구체성 때문에 구분되지 않고 “≠”적으로 合致되어 있음에 주의.
-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주의 : 앞 “(單一的)外部통사론(Ⅱ)단계” 참조

<屈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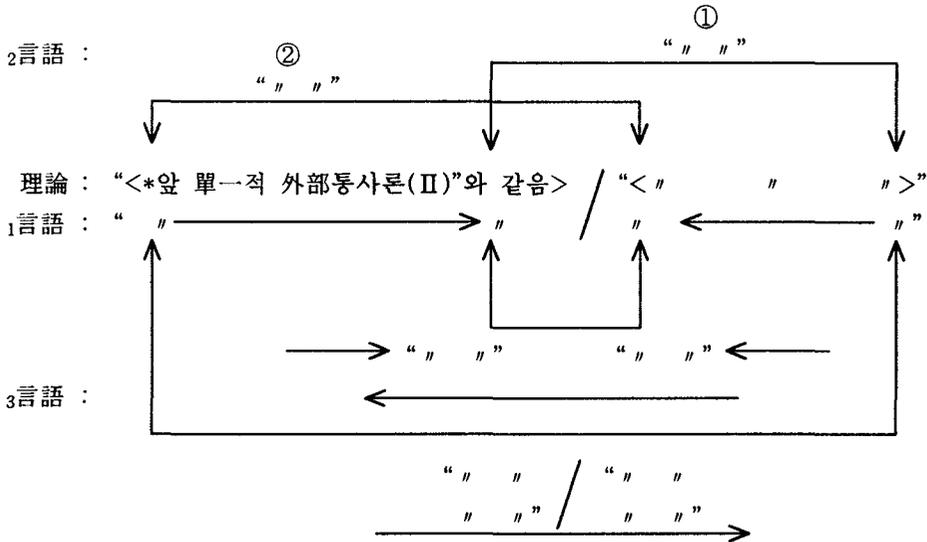


cf. <理論言語學...> p. 480 이하.

單一적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單一적 外部통사론(Ⅱ)단계”와 그 外形이 같으나 그 同形의 順序가 “右=존대= 먼저①/左=존대이전=나중②”로 바뀐, *뒤 “複合적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직전 단계.

*주의 : *앞 : 單一적/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와 같은 *주의.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單一的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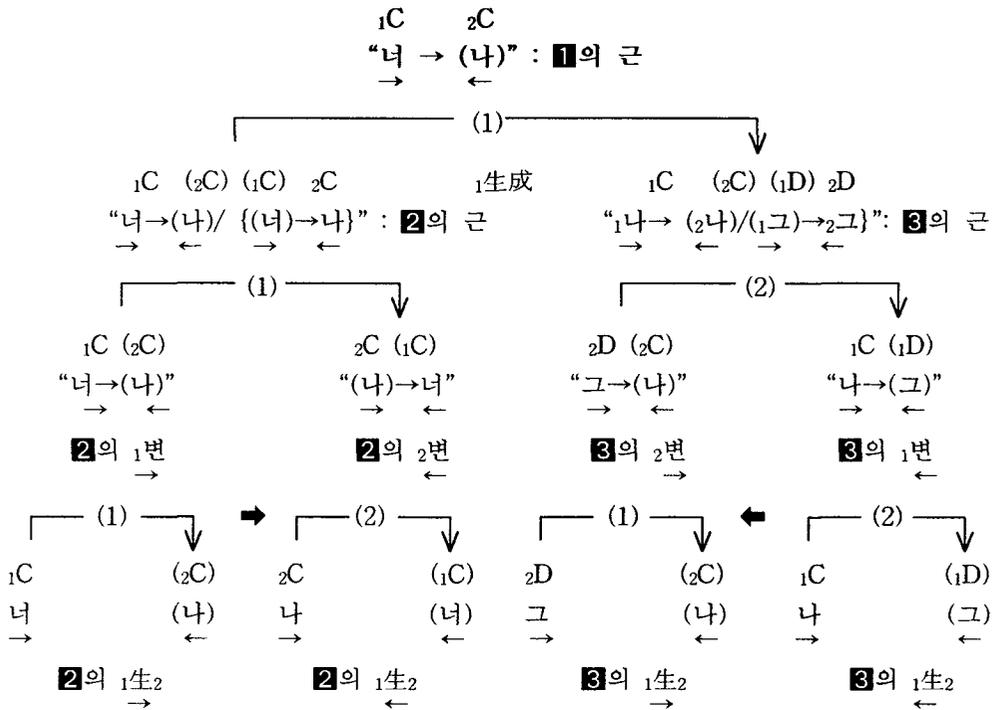
*주의 : *앞 “單一的 外部통사론(Ⅱ)단계”와 같은 주의 ; 단, 그 同形의 順序가 그와 逆 方向(←)임에 주의.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單一的 外部통사론(III)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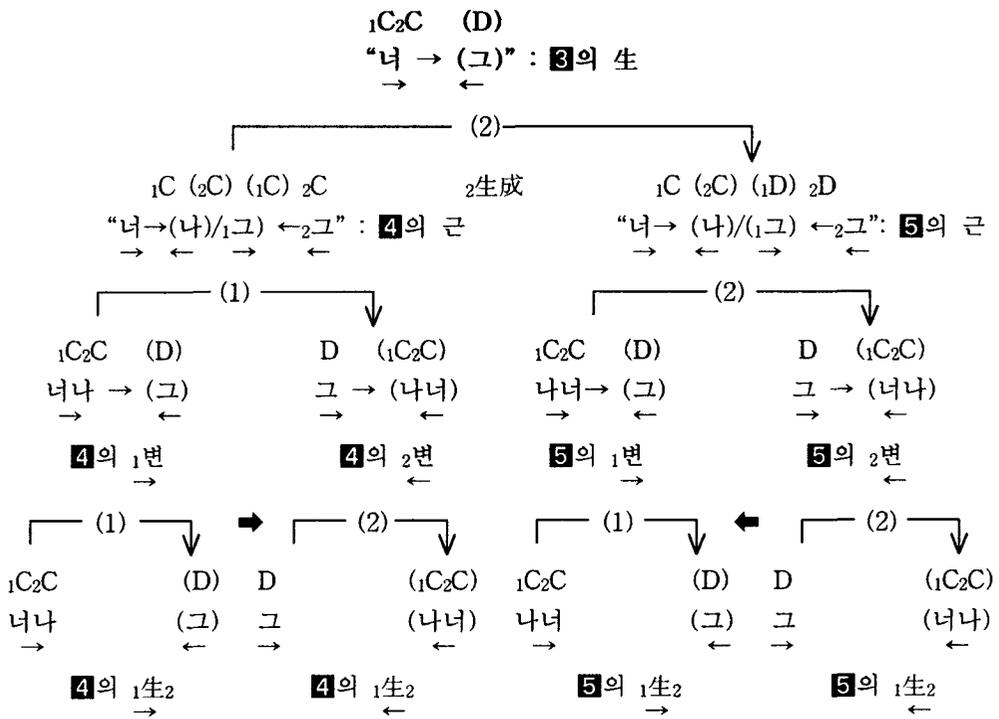
*주의 : 앞 (單一的)外部통사론(II)단계와 같은 주의 ; 단, 그 同形의 順序가 그와 逆方向(←)=구체적임에 주의.

〈屈인칭〉



*앞 “單一的 外部통사론(II)단계”와 같은 예임.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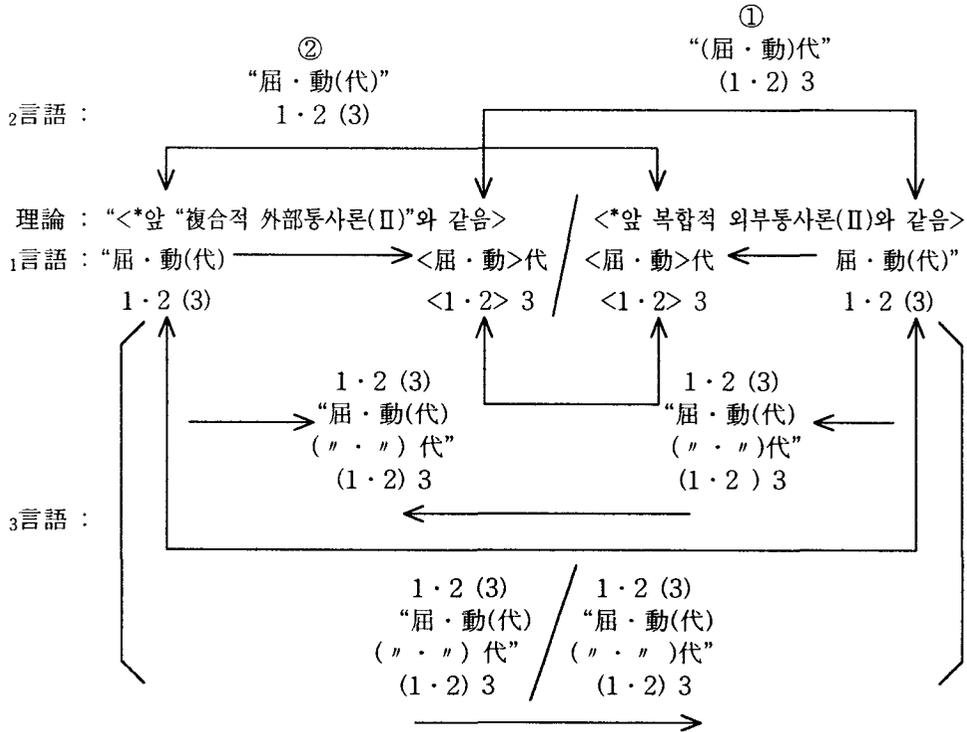


*앞 “單一的 外部통사론(II)단계”와 같은 예임.

複合적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앞 “複合적 外部통사론(Ⅱ)” 단계와 그 外形이 같으나 그 同形의 順序가 “右=존대= 먼저①/左=존대이전=나중②”로 바뀐, ‘言語活動의 거부적 조직’의 마지막 단계.

*주의 : *앞 “複合적 外部통사론(Ⅱ)단계”와 같은 *주의.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複合的 外部통사론(Ⅲ) 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1) :

*주의 : *앞 “複合的 外部통사론(Ⅱ)단계”의 人稱표기(1)에서와 같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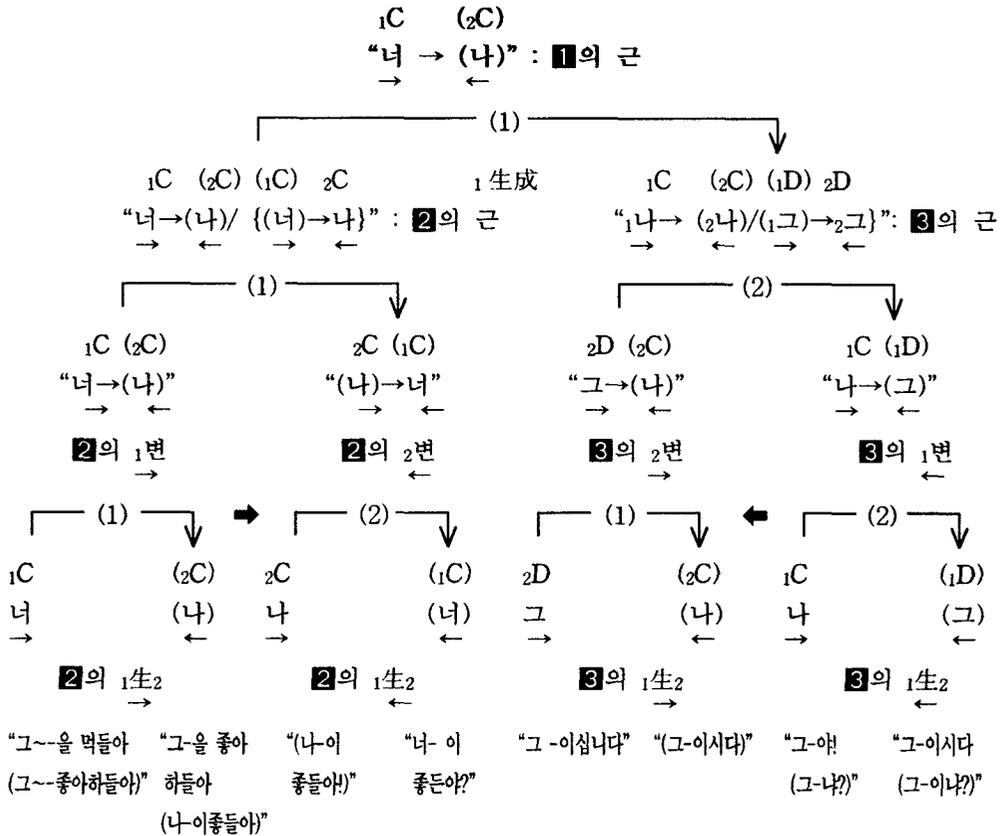
*주의 : 아래 표기 “근원” 단계의 左의 첫째/둘째 1生2에서 “너” → 너, “나” → 저로 읽고, 右의 첫째/둘째 1生2에서는 “나” → ∅, “그” → 너 로 읽음.

*주의 : *앞(pp. 40~41) “指示(=거부/同形化) → 被指示(=피거부/被同形化)”적 人稱의 기본조직 (1)과 같음(이하 모두에 해당됨).

*주의 : 아래 표기 “변형” 단계의 左의 첫째/둘째 1生2에서 “너나” → 나, “그” → 너 으로 읽고, 右의 첫째/둘째 1生2에서는 “너나” → ∅, “그” → -시 로 읽음.

複合的 外部통사론(Ⅲ)단계의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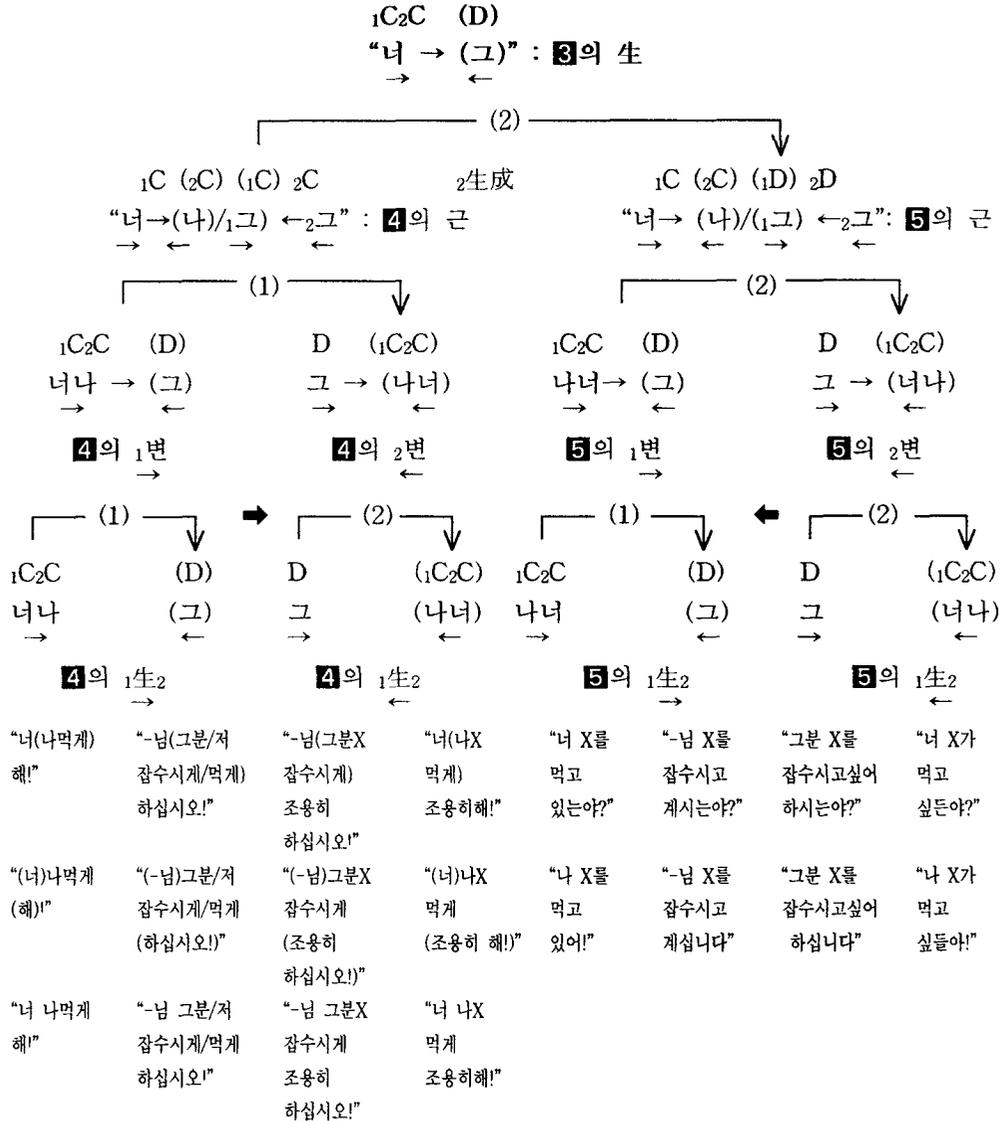
<屈인칭>



cf. <理論言語學.....> p. 480 이하.

*주의 : *앞 "複合的 外部통사론(Ⅱ)단계의 人稱표기(2)"에서와 같은 *주의 ; 단 그 '同形의 順序'가 그와 逆方向化 = 具體化되었음에 *주의.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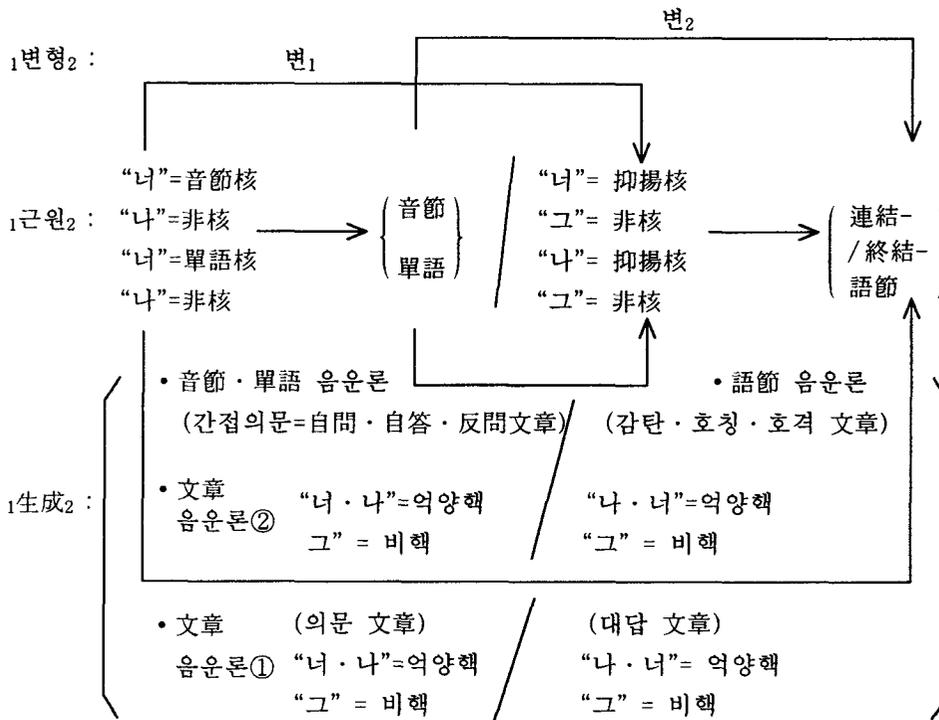


cf. <理論...> p. 480이하.

*주의 : *앞과 같은 *주의.

전통적/비근원적 音韻論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주의 : 아래 표기에서 (괄호)안의 것은 指示내용, 괄호 밖의 것은 指示요소를 가리킴. 生成단계의 [괄호]도 넓은 의미의 “指示내용”임.
 이 비근원 단계에서는 괄호 안의 指示내용이 먼저순서=나=중심, 괄호 없는 指示요소는 나중순서=너=비중심=수단=기능표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없는 “비중심=指示요소”를 먼저로, 괄호있는 “중심=指示내용”을 나중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배치한 것은, 사실상 實物적·구체적·의미적 指示내용=나를 중심=테두리=먼저로 잡고, 역시 實物·구체·의미적 성격을 띤 指示요소 = “너”를 비중심=구성요소=나중 으로 잡고있으면서 前者(=指示내용=나)를 근원적 의미에서 指示요소(=“너”=형태)로, 後者(=指示요소=“너”)를 역시 근원적 의미에서의 被指示요소(=“나”=의미)로 오인/착각하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비근원적 관점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것을 근원적 관점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理論言語學....]p. 254 이하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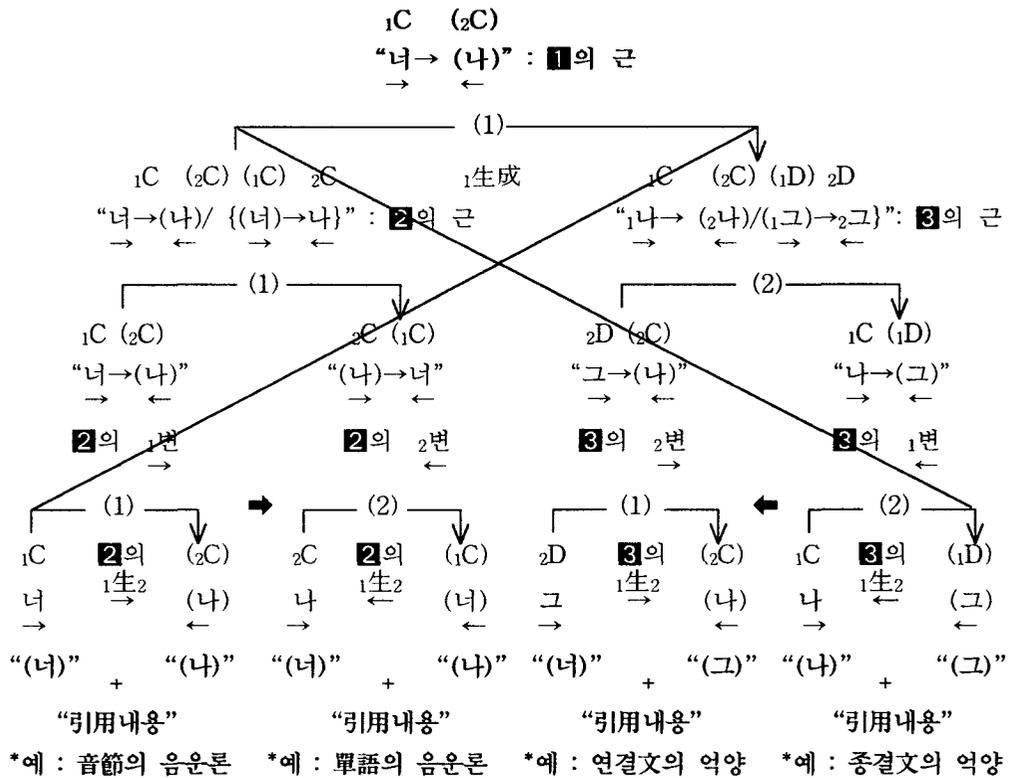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전통적/비근원적 音韻論 단계의 指示(=代名詞)적 人稱의 조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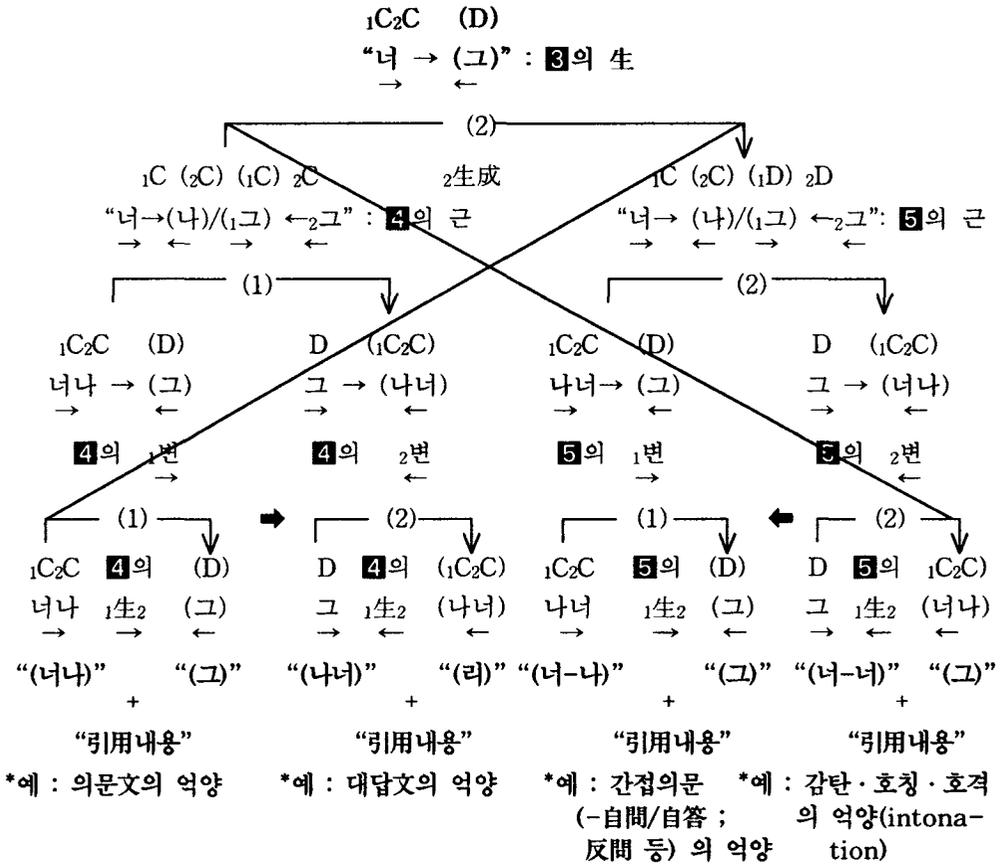
*주의 : 근원적 “指示((屈-動-/代-)적 人稱의 조직)과는 달리 이 비근원적 조직은 屈折 人稱과 動詞人稱이 없이 代名詞 人稱만이 있는 “나” 中心의 代名詞적 人稱의 조직임에 *주의(이하 모두에 해당됨).

*주의 : *아래에서 (전통적/비근원적) “音韻論 → 品詞論 → 形態통사론 → 意味통사론”의 원래의 순서는 그와 逆의 순서이다(*앞 p. 26 : “結合적/비근원적 존재의 조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배열한 것은 “근원적 관점”과의 比較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바로 뒤 p. 90 : *주의 項 참조).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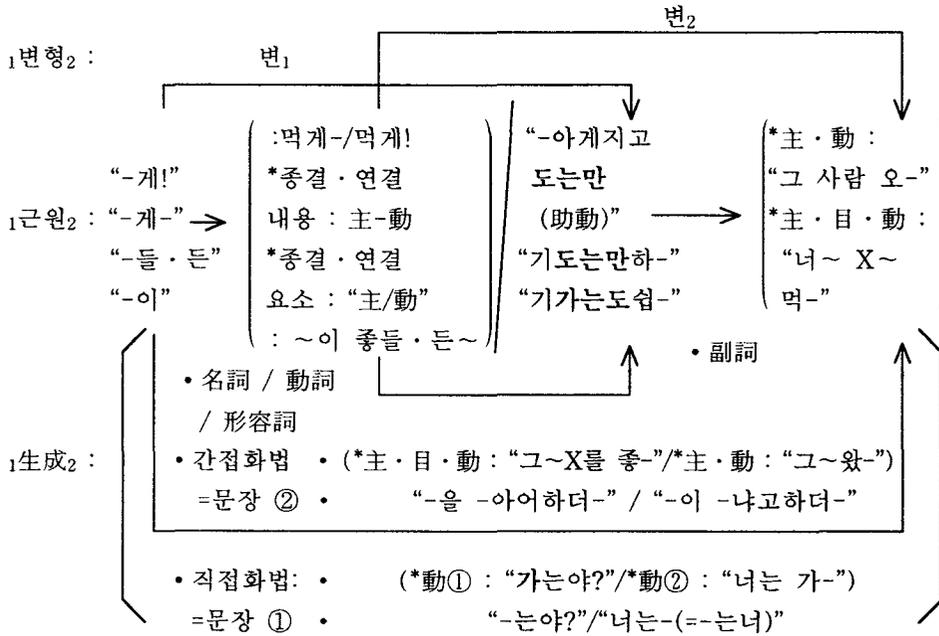
*주의 : “複合적 일반(인칭)음운론 단계” = “1生成/2生成 단계”의 “너” } 가 이루는
 “나” }
 “그” }

指示의 작은 각각(괄호)안에 들어가는 보충요소=complementizer가 되고, 그 에 각각 대응하는 文章의 직접 분석의 요소들의 소리의 특징들이 中心요소가 된다.

*주의 : 기타 *주의는 *뒤 “전통적/비근원적 品詞論단계” 참조.

전통적/비근원적 品詞論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주의 : 아래 표기에서 (괄호) 안의 것은 “引用내용”이고, 괄호 밖의 것은 “引用표지”를 가리킴. 1生成단계의 [괄호]도 넓은 의미에서 “引用내용”임.
 그런데 이 “비근원단계”에서는 이 괄호 안의 引用내용이 중심=먼저순서=“나”, 괄호 밖의 引用표지는 보충적 요소(complementizer)=나중순서=“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없는 것을 먼저로, 있는 것을 나중에 배치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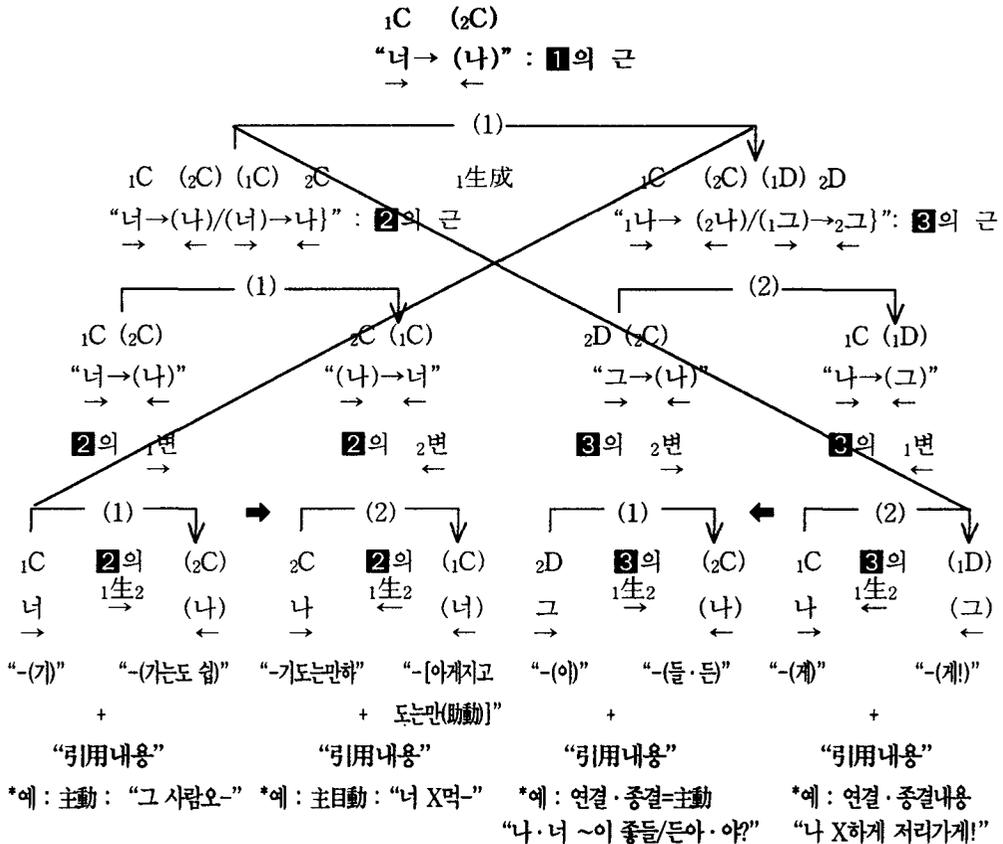
이 비근원 단계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사실상 實物·구체의미=“나”를 중심=먼저로 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형태=“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특징이 곧 그것이다. (*여기서 “나” = 引用내용/ “너” = 引用표지가 된다). 거꾸로 그 “형태(=너)”는 “의미(=나)”에서 誘導되는 “부차적 보충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한 그 특징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理論言語學...] p. 254이하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참조).

*주의 : *앞 근원적 “複合적 일반형태론(Ⅲ)단계”의 1변2는 이 비근원 단계의 비 분석성 때문에 “1근원”단계로 합쳐졌음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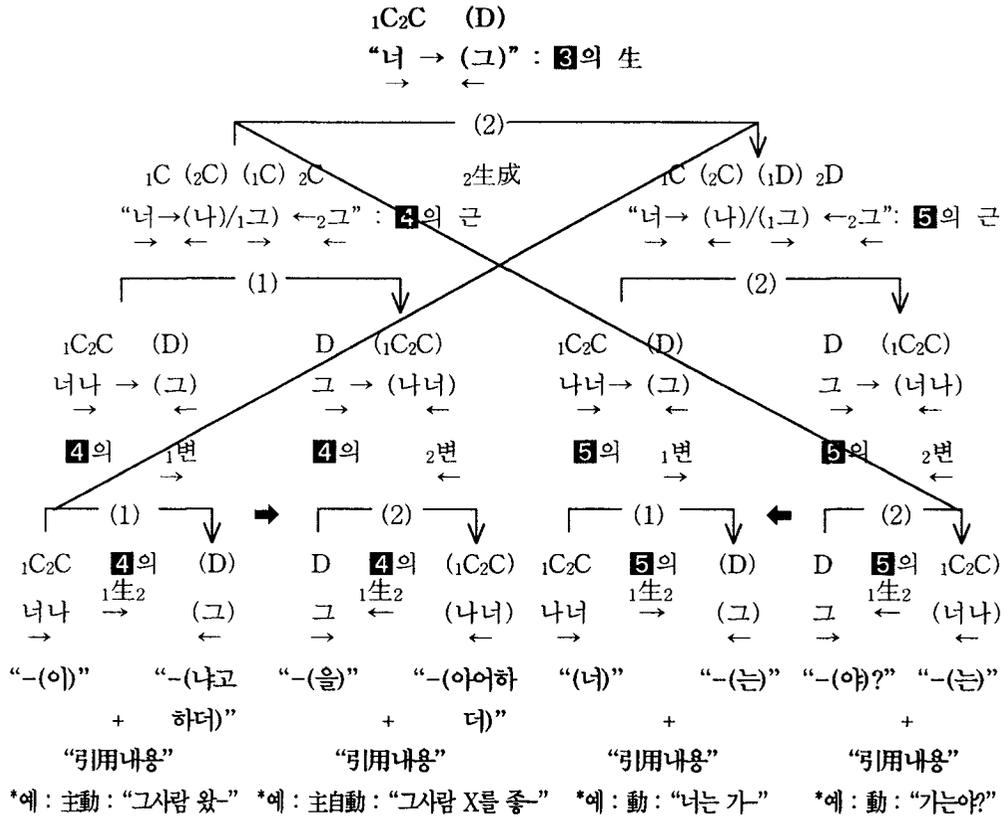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전통적/비근원적 品詞論단계의 指示(=代名詞)적 人稱의 조직 :

〈屈인칭〉



〈動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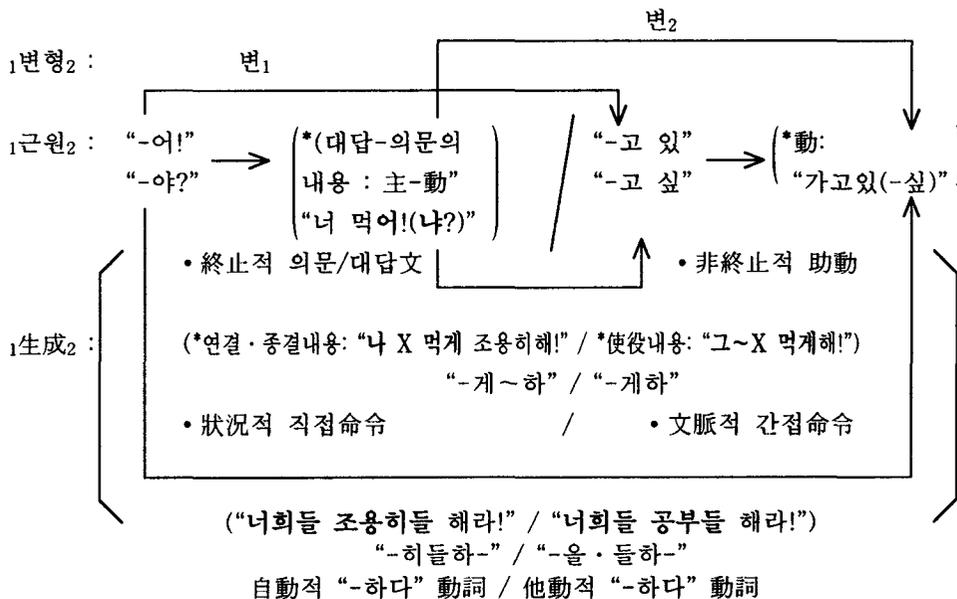
*주의 : *위 표기에서 “引用내용”(먼저)/“(引用표지)”(나중)의 짝은 순전히 비근원-/의 미-/‘나→너’적 「인여·일치·반복」적 結合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주의. 이 “結合”은 “引用표지”(먼저)/“(引用내용)”(나중)의 근원-/형태-/‘너→나’적 「인여·일치·반복」적 “同形”의 짝과 구별된다.

*주의 : 이 “비근원적 조직”의 순서는 “2生”가 먼저 “1生”이 나중임.

*주의 : “引用내용”이란 “複合적 일반형태론(Ⅲ)단계”의 被指示辭를, “引用표지”란 “指示辭”에 해당됨(*단 等方向으로 바뀐점이 다르다). 따라서 “複合적 일반형태론(Ⅲ)단계”의 “너” → 이 } “그” → 저 = 引用내용 }
 “나 → 그 } 는 “나” → 그 = 引用표지 } 로 바뀌고, 等方向적 화살표시(←)의 순서에
 “그” → 너 } “너” → 이 = 引用표지 }
 따라서 그와 같이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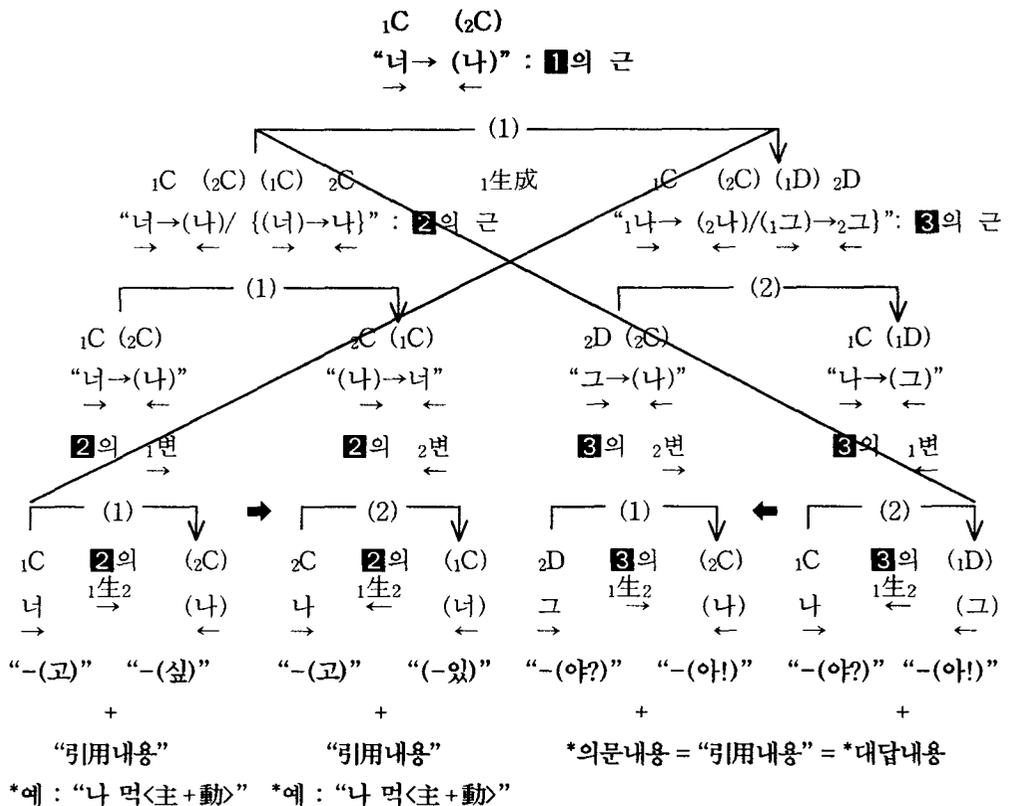
전통적/비근원적 形態統辭論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 *주의 : *앞 “전통적/비근원적 品詞論단계”와 같은 *주의.
- *주의 : *앞 “근원적 複合적 內部통사론(Ⅲ)단계”의 “1변2”는, 이 비근원단계의 비 분 석성 때문에 근원단계로 합쳐졌음에 *주의.
- *주의 : *뒤 : “**1** → **5**”식 人稱표기 참조.
- *이 단계를 “形態統辭論 단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 “品詞論 단계”와 *뒤 “意味統辭論 단계”의 중간단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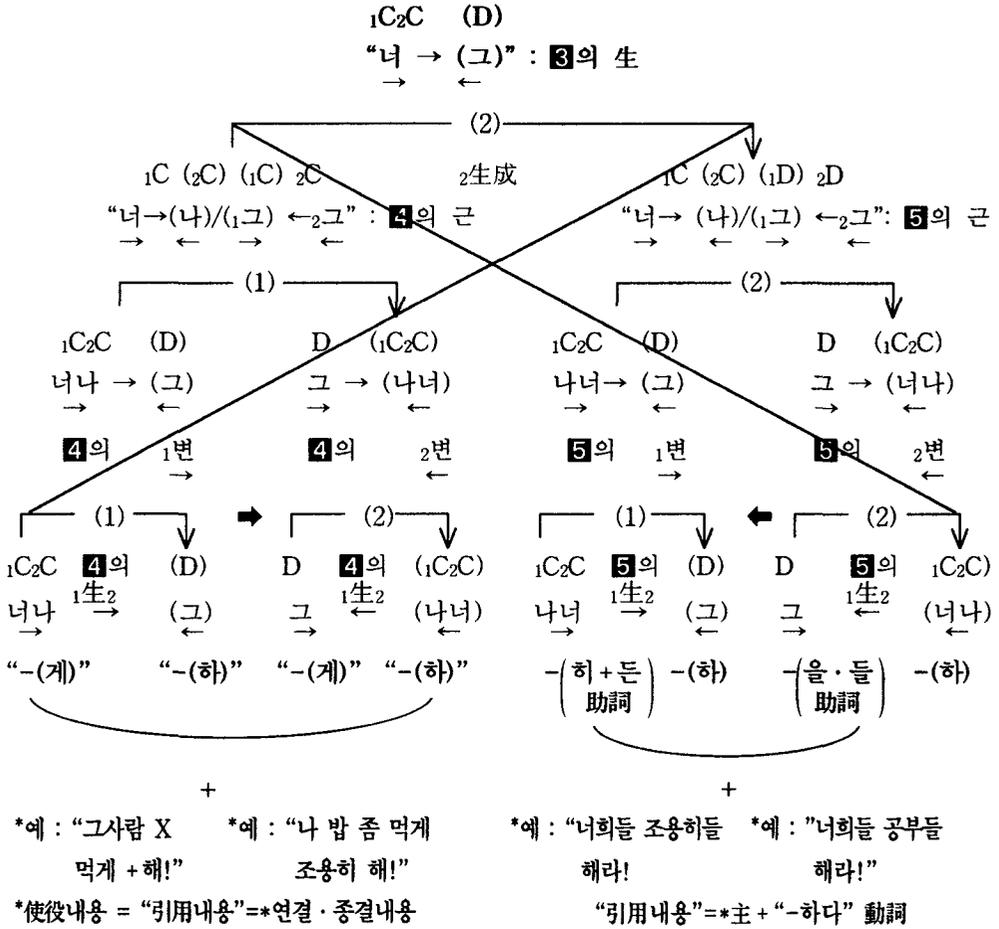


전통적/비근원적 形態統辭論단계의 指示(=代名詞)적 人稱의 조직 :

<屈인칭>



〈動인칭〉



*주의 : *위 표기에서 “(괄호)”안의 것은 引用표지(=complementizer 補文字)를 “화살표시(←)”는 “複合적 内部통사론(Ⅲ)단계”와 구별되는 等方向性을, “X”표시는 理論단계의 不在를 각각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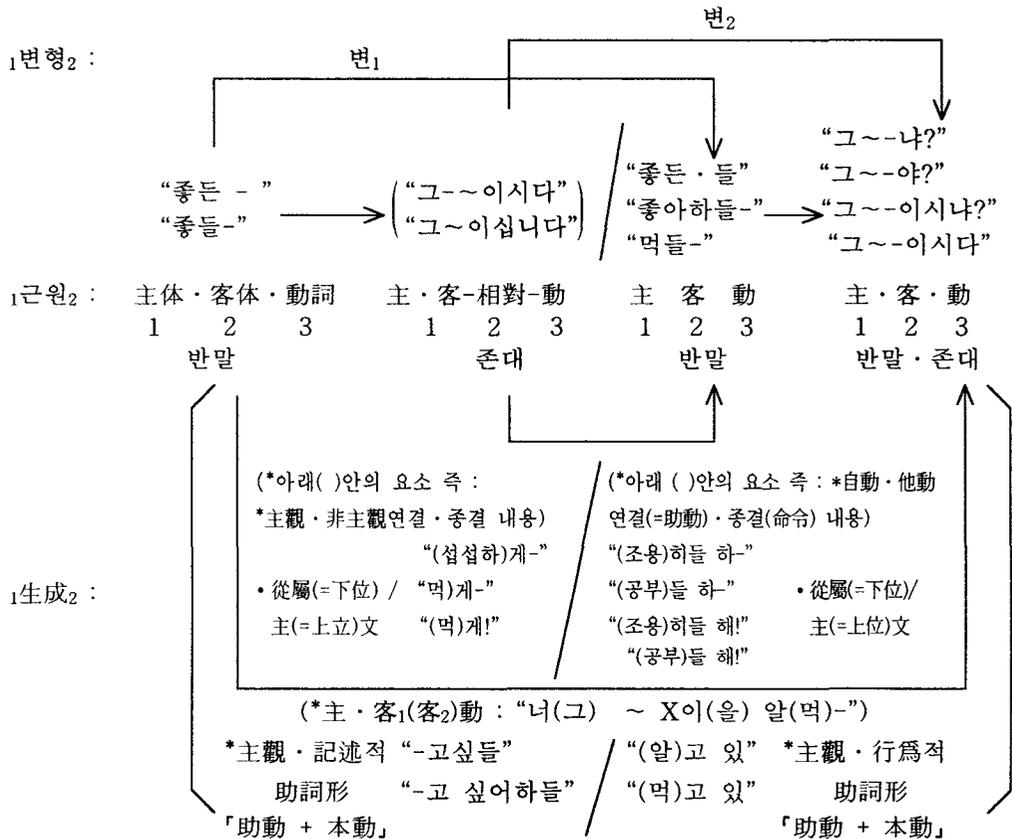
*주의 : “複合적 内部통사론(Ⅲ)단계”의 “나” → -야! “그” → 引用내용 }
 “나” → -야! }
 “그” → 야?야! “나” → 引用표지₁ }
 “너” → 引用표지₂

等方向적 화살표시(←)의 순서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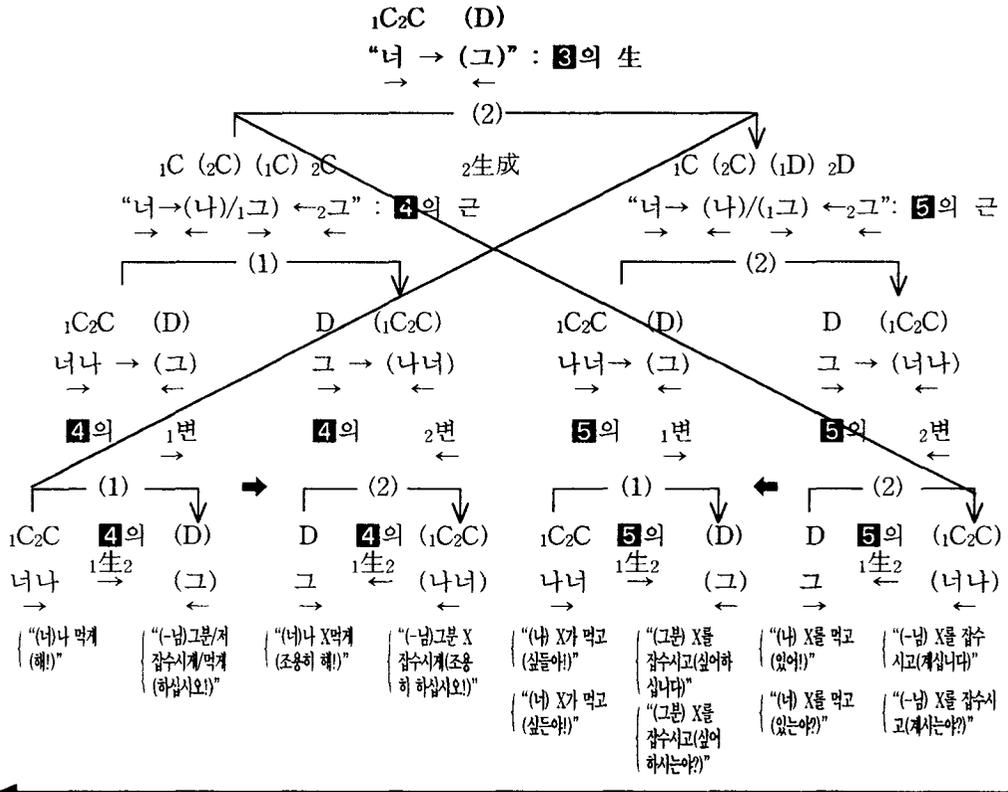
*기타 *주의는 *앞 “전통적/비근원적 品詞論단계”와 같음.

전통적/비근원적 意味統辭論 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

*주의 : 아래 표기에서 “(조용)히들하-”/“(공부)들하-”와 같이 표기한 것은 근원적 표기와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근원적 표기에서는 위 표기에서 “-히들하-”/“-들하-”를 複合助詞적 指示요소(=助動詞) 즉 動詞인칭으로 파악함에 반하여 비근원적 관점에서는 主語와의 의미적 一致項으로서 파악한다(*예 : “너희들 조용히들/공부들 해!”). 한편 이것을 근원적 관점에서는 代名詞인칭으로 파악한다. 主語와 動詞의 一致는 곧 행위자-행위(=나-너)의 짝을 뜻하며 그것은 實物의 의미적 “나” 중심의 관점이다. 바꿔 말하면 實物의 의미적 單數에 역시 實物意味의 複數가 等方向적으로 첨가됐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複數요소 “-들”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고 보는, 형태와 의미의 斷切體觀이다. 근원관점에서는 “-들”은 언제나 붙어 있으며 그것은 “너-나”의 근원적 인칭의 조직안에서 動인칭/代인칭의 자리를 갖게된다.



〈動인칭〉



* 주의 : 이 “비근원적 조직”의 순서는 2生가 먼저, 1生이 나중임.

* 주의 : *위 표기 “1生成”단계의 右에서 첫째/둘째 1生2는 右에서 左의 순서로 각각 “저”/“너”로 읽고, 左의 첫째/둘째 1生2는 역시 右에서 左의 순서로 각각 “-ϕ”/

“-버니”로 읽음. 橫대각선으로는 : “저 → (너) / -ϕ → (-버니)”와 같이 되어, 근원

적 표기: “너 → (저) / (-버니) ← ϕ”와 구별됨.

“2生成” 단계에서는 위 1生成단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右의 첫째/둘째 1生2는 각각 “-님”/“나”로, 左의 그것은 “-ϕ”/“-시”로 읽음. 橫대각선으로는 :

“-님 → (나) / -ϕ → (-시)”와 같이 되어, 근원적 표기: “나 → (-님) / (-시) → ϕ”와 구별됨.

RÉFÉRENCES BIBLIOGRAPHIQUES

- Clément, D., 1982, *Élaboration d'une syntaxe de l'allemand*, Verlag Peter Lang.
- Curat, H., 1982, *La locution verbale en français modern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 traduction anglaise, *Of grammatology*, 197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raduction coréenne, 1997, Séoul.
- Grünig, B. N., 1981, *Structure sous-jacente : essai sur les fondements théoriques*, Honoré Champion, Paris.
- Grünig, B. N., 1982, "Démontrer des contraintes?",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théorie et méthodologie)*, Université Paris VIII, 113-126.
- Guenette, L., 1995, *Le démonstratif en français*, Édition Honoré Champion, Paris.
- Guillaume, G., 1971,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Hirtle, W. H., 1975, *Time, aspect, and the verb*,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Huh, W. 1963, *Jungsé-kugò-yòngu <Études du moyen coréen>*, Séoul, 8-122.
- Joly, A., 1975, "Toward a theory of gender in modern English", *Studies in English grammar*, Université de Lille III, 229-287.
- Joly, A., 1983, "Ambiguïté et paraphrases à propos de certains types d'inversion en français", *Modèles linguistiques(tome 5, fasc, 2)*,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35-173.
- Kripke, S. A., 1996,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traduction française, 1982, *La logique des noms propres*,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 traduction coréenne, 1986, Séoul.
- Kuno, S.,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Volume III, number 2) Spring*, 161 - 195.
- Launay, M., 1976, "A propos du mot et de la phrase: - réflexions sur les rapports entre sémantique générative et grammaire systématique",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IV, I)*, Strasbourg, 327-370.
- Martin, R., 1980, "Psychomécanique et formalisation de la théorie linguistique", *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525-536.
- Martinet, A., 1956,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Genève/ Paris.

- Milner, J. -C., 1978, *De la syntaxe à l'interprétation*, Édition du Seuil, Paris.
- Moignet, G., 1961, "L'adverbe dans la locution verbale", *Cahier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NO. 5)*,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36.
- Moignet, G., 1973, "Incidence verbale et transitivité",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I, I)*, Strasbourg, 363-379.
- Moignet, G., 1974, "Sur la <<transitivité indirecte>> en français", *T.L.L (XII, I)*, 281-299.
- Pak, H. D., 1994, "L'analys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forme/matière :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 et nominalisation en français-coréen", *The Journal of Humanities(3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83-233.
- Pak, H. D., 1996/1997, *Iron-ònohag-ïi pigyo-yònku <Étud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et comparé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Ruwet, N., 1972,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Édition du Seuil, Paris.
- Saussure, F. D., 195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Paris.
- Toussaint, M., 1983, *Contre l'arbitraire du signe*, Didier Érudition, Paris.
- Valin, R., 1966, "D'une difficulté inhérente à l'analyse du présent français", *Les Mélanges Gardette*, Strasbourg, Klincksieck, 485-493.

■ Résumé

Sur la formalisation du mécanisme déictique énonciatif: l'exemple de la pré-postposition en coréen et en français

Hyong-Dal PAK

En linguistique saussurienne comme en psychomécanique guillaumienne, l'activité de langage (ou le circuit de la parole) a été saisie comme le circuit *égo(je) centrique* de la paire *je-tu*, en prenant le concret visible (=je comme entité interrogative réelle/lexicale) pour l'abstrait invisible (=tu comme marqueur grammatical interrogatif) et vice-versa, avec cette différence qu'il présuppose ou non la notion de cinétisme. Cette même saisie *égocentrique* du circuit a entraîné le traitement de deux types de marqueur grammatical (pré-postposé au lexical) en français et en coréen, comme par exemple le *genre-honorifique* se rapportant à l'*homme-chose* et la *préposition-particule de cas (interphrastique)* sous l'étiquette séparée et dans cet ordre implicite. Pour dépasser les limites de ce traitement lexico-grammatical(=incidenciel/combinatoire), force nous est de reconstituer le mécanisme de la *personne cinético-synaptique (tu-centrique) non arbitraire*, ce qui revient à *réduire la paire du circuit non synaptique (je-centrique)* en deux temps synaptiques distincts: l'*avant* (question-réponse pure <honorifique zéro>) et l'*après* (Q.R.<honorifique>), c'est-à-dire, à saisir le *mécanisme synaptique général* ($tu \rightarrow \langle je \rangle / \langle tu \rangle \leftarrow je$) en tant que *genèse* \rightarrow *synaptisant/synaptisé* ou *personne flexionnelle* \rightarrow (*personne verbale*) / *personne pronominale*, ou bien encore *théorie (phonologie générale <personnelle> \Leftrightarrow morphologie générale \Leftrightarrow syntaxe interne \Leftrightarrow syntaxe externe.**

*N.B. : l'absence / présence de paranthèse correspond à l'*ordre synaptique 1/2* : la ligne oblique(/) indique la limite du *couple synaptique interne(gauche)/externe(droit)* ; la flèche(\rightarrow / \leftarrow) indique l'*ordre/ mouvement synaptique*.

■ Abstract

On the formalization of the enunciative-deictic mechanism: the example of the pre-postposition in Korean and in French

Hyong-Dal PAK

In saussurian linguistics as in guillaumian psychomechanics, the activity of language (or the circuit if the speech) has been apprehended as the *ego(I)* centric pair of *I-You*, taking the visible concrete(=*I* as real/lexical interrogative entity) for the invisible abstract(=*You* as interrogative grammatical marker), and vice-versa, with this difference that it presupposes or not the notion of kinetism. This same *egocentric* apprehension of the circuit has led to the error of treating two types of grammatical marker(pre-postposed to the lexical in French and in Korean), such as the *gender-honorific* relating to the *man-things* and the *intrasentential preposition-particle of case*, under the separate label and in this implicit order.

In order to surpass the limits of this lexico-grammatical(=incidental/combinatory)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reconstitute *the kinetico-synaptic(You-centric) non arbitrary mechanism of the person*, namely, to reduce the pair of the non *synaptic(timeless/I-centric)* circuit to two distinct synaptic times: the *before*(pure question-response: zero honorific) and the *after* (Q. -R. : Honorific), *that is*, to apprehend the *general synaptic mechanism*($You \rightarrow \langle I \rangle / \langle You \rangle \leftarrow I$),* which is equivalent to the following formula: “genesis \rightarrow (synaptifying)/synaptifée”, or “flexional person \rightarrow (verbal person)/ pronominal person”, or else “theory(general<personal> phonology) \Leftrightarrow general morphology \Leftrightarrow internal syntax \Leftrightarrow external syntax”.

*N.B : the absence/presence of bracket corresponds to the *synaptic order 1/2*; the slash(/) indicates the limit of the *internal(left)/external(right) synaptic pair*; the arrow (\rightarrow/\leftarrow) shows the *synaptic movement or order*.